

제13회 영남여성학포럼

2026.04.17(금) 13:00~18:00
부산대학교 인문관 206호 고현철 기념관

지역의 교육 생태계에서 페미니즘의 역할

사회 석영미 부산대 교육학과

사회 하정화 부산대 여성연구소

13:00~13:10 개회사

15:10~15:30 휴식

강다연 부산대 국어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의 복원과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
이유리의 「브로콜리 편지」와
황정은의 「묘생」을 중심으로

최이숙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부산-경남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젠더 교육의
현황과 과제: 달라진 것 & 남아 있는 것

13:10~14:30
학술후속세대
발표

김민정 계명대 여성학과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의 확장:
대구지역 독서모임 A를 중심으로

15:30~16:50
연구자
주제 발표

김인선, 이수경, 최나현 부산대 여성연구소

지역 페미니즘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 현황과 수강생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2011~2026)

박준훈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대안적 문해 교육으로서 페미니스트 문학 읽기의 가능성:
교양 교육을 매개로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반/페미니즘과 극우:
지역 청년여성의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김예원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자녀 살해 후 자살과 사회정의의 페미니즘 교육

최윤서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대구-경북지역 여성주의 지식 생산의 거점으로서
여성학과 대학원의 역할: 계명대 사례를 중심으로

14:30~15:10
종합토론

임정빈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장지은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16:50~17:30 주현희 부산대 교양교육원

종합토론 이지현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주관 | 부산대 여성연구소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경상국립대 여성연구소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

제13회 영남여성학포럼

‘지역의 교육 생태계에서 페미니즘의 역할’

- 일시: 2026. 04. 17(금) 13:00~18:00
- 장소: 부산대학교 인문관 206호 고현철 기념관
- 주관: 부산대 여성연구소,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경상국립대 여성연구소,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 수행기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시간		주제
		사회 : 석영미 부산대 교육학과
13:00~13:10	개회사	
13:10~14:30	학문 후속 세대 발표	생태전환교육의 복원과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 이유리의 「브로콜리 편치」와 황정은의 「묘씨생」을 중심으로 발표 강다연 부산대 국어교육과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의 확장: 대구지역 독서모임 A를 중심으로 발표 김민정 계명대 여성학과
		대안적 문해 교육으로서 페미니스트 문학 읽기의 가능성: 교양 교육을 매개로 발표 박준훈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자녀살해 후 자살과 사회정의의 페미니즘 교육 발표 김예원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토론 임정빈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토론 장지은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14:30~15:10	종합 토론	
15:10~15:30	휴 식	
		사회 : 하정화 부산대 여성연구소
15:30~16:50	주제 발표	부산-경남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젠더 교육의 현황과 과제: 달라진 것 & 남아 있는 것 발표 최이숙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지역 페미니즘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 현황과 수강생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2011~2026) 발표 김인선, 이수경, 최나현 부산대 여성연구소
		반/페미니즘과 극우: 지역 청년여성의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대구·경북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원 여성학과와 역할: 계명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최윤서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토론 주현희 부산대 교양교육원
		토론 이지현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16:50~17:30	종합 토론	

목 차

학문후속세대발표

1. 생태전환교육의 복원과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
이유리의 「브로콜리 편지」와 황정은의 「묘씨생」을 중심으로
발표 강다연 (부산대 국어교육과) 1
토론 임정빈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27
2.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의 확장: 대구지역 독서모임 A를 중심으로
발표 김민정 (계명대 여성학과) 32
토론 임정빈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50
3. 대안적 문해 교육으로서 페미니스트 문학 읽기의 가능성: 교양 교육을 매개로
발표 박준훈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53
토론 장지은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64
4. 자녀살해 후 자살과 사회정의 페미니즘 교육
발표 김예원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66
토론 장지은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88

주제 발표

1. 부산-경남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젠더 교육의 현황과 과제:
달라진 것 & 남아 있는 것
발표 최이숙 (동아대 젠더·어팩트 연구소) 93
토론 주현희 (부산대 교양교육원) 105
2. 지역 페미니즘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 현황과 수강생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2011~2026)
발표 김인선, 이수경, 최나현 (부산대 여성연구소) 108
토론 주현희 (부산대 교양교육원) 125
3. 반/페미니즘과 극우: 지역 청년여성의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128
토론 이지현 (동아대 젠더·어팩트 연구소) 151
4. 대구·경북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원 여성학과와 역할: 계명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최윤서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153
토론 이지현 (동아대 젠더·어팩트 연구소) 164

1부 학문후속세대 발표

1. 생태전환교육의 복원과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

이유리의 「브로콜리 펀치」와 황정은의 「묘씨생」을 중심으로

발표 강다연 (부산대 국어교육과)

토론 임정빈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2.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의 확장: 대구지역 독서모임 A를 중심으로

발표 김민정 (계명대 여성학과)

토론 임정빈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3. 대안적 문해 교육으로서 페미니스트 문학 읽기의 가능성: 교양 교육을 매개로

발표 박준훈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토론 장지은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4. 자녀살해 후 자살과 사회정의 페미니즘 교육

발표 김예원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토론 장지은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생태전환교육의 복원과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 이유리의 「브로콜리 펀치」와 황정은의 「묘씨생」을 중심으로

강다연(부산대 국어교육학과)

목 차

- I. 들어가며
- II.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생태교육의 현황
- III.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의 허구성과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 IV.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의 실천
- V. 나가며

I. 들어가며

오늘날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문제의 시급성은 생태교육¹⁾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태교육은 질적·양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국내 생태교육의 주요 논리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생태전환교육’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목적을 둔다.²⁾ 나아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구현된 생태교육의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실제로 기후위기 속 삶의 취약성과 무력함을 감각한 일선 청소년들은 2018년 청소년기후행동을 조직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결석시위, 기후파업,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 진취적인 기후행동을 전개하며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했다.³⁾ 이에 2020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학교환경교육비상선언’으로 응답하며,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준비하는 교육의 변화와 공존의 지혜, 지구공동체의 생태시민으로서의 실천을 강조했다.⁴⁾ 2021년 교육부, 환경부, 시도교육청이 잇달아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지구공동체 생태시민으로의 성장”⁵⁾에 방점을 찍었다. 사회와 교육의 요구에

1) 국내의 생태교육은 압축고도성장을 달성했던 1960-1970년대 이후 생태위기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1980년대 제4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후 교육과정의 재개편 과정에서도 생태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2) 이 글에서 ‘생태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범주로,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생태전환교육’은 탈인간중심주의를 전면적으로 두고 자본주의적 성장 체제와 생활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최근의 교육 정책적 담론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생태교육의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3)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기후행동 소개」, 2025 우리 삶을 지킬 최저선의 요구-청소년기후행동, <https://youth4climateaction.org/>(검색일:2026.3.11)

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선언」, 환경부 보도자료, 2020.7.9.

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환경부, 「2021 환경공동선언문(안)」, 교육부 동정자료, 2021.9.13.

발맞춰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⁶⁾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역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제22조의2에 “기후변화환경교육”⁷⁾을 신설하면서, 생태전환교육이 공식적·제도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생태전환교육’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⁸⁾이다.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협력에 따라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새로운 의제는 단순한 사회적 현안을 넘어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기조의 변동으로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의 긍정적인 전망은 좌절되었다. 2022년 8월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용어는 전면 삭제되었고, 다시 ‘지속가능발전 교육’ 또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생태교육의 퇴행으로 인식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공개된 총론 시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⁹⁾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소통채널’을 개설하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던 취지가 무색하게, 생태전환교육 의제 복원을 요구하는 교육공동체의 외침은 묵인되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 연구진들은 ‘총론 시안 개발 공청회’, ‘2022 개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¹⁰⁾, 『2022 개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¹¹⁾ 등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나 미래사회 대응 능력 등의 표현으로 변경한 이유를 교육과정 과부하에서 찾았다. 또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간결한 표현과 압축적인 진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상위 개념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전환’이라는 수사는 과거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생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구조에 대한 급진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같은 표현은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담론이 내포한 구조적 모순을 은폐한다. 생태교육이 시의성과 미래 지향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기반한 생태교육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결국 생태전환교육의 삭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기후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 교육이 수행해야 할 생태적 각성과 체제적 전환의 함의를 약화시킨다.

한편, 오늘날 페미니즘은 공공연히 언급하기 민감한 일종의 낙인으로 취급되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이나 젠더 의제를 둘러싼 반감과 검열이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 혐오와 배제, 분열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공존과 화해, 비인간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에코페미니즘은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은 주변부로 밀려난 ‘지구타자(earthothers)’의 발화를 경청하고,¹²⁾ 경청·접촉·돌봄의 윤리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생태전환

6) 위의 글.

7)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2026.3.11)

8)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2021a, 14쪽.

9) 장현은, 「교육과정서 갑자기 사라진 ‘생태전환교육’…교원단체 반발」, 『한겨레신문』, 한겨레, 2022.9.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8714.html>.(검색일:2026.3.12)

10) 장상운 교육부차관(교육부), 「2022 개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 속 기자료」, 전자(e)브리핑, <https://ebrief.korea.kr/>(검색일:2026.3.5)

11) 황규호 외 여럿,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2022.

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윤리는 인간을 지구타자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관계 속에서 응답하고 책임져야 할 존재로 위치시킨다. 이때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에는 청소년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생태교육은 학습자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현실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¹³⁾

따라서 에코페미니즘에 기반한 생태전환교육의 복원은 기후위기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전환교육은 삶의 방식을 탈인간중심주의로 전환하고 ‘생태소양(ecological literacy)’과 ‘동시대성(contemporariness)’을 함양하는 데 분명한 목적을 두어야 한다. 생태학적 감수성과 생태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종말론적 비전을 전망하는 생태문학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는 있으나 교육효과의 강도와 지속성은 높지 않다. 반면 생태학적 상상력이 동원된 소설이 현실의 변화 가능성과 조화로운 삶의 태도를 제시한다면 학습자들로부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고등학교 『공통국어1』, 『공통국어2』,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생태문학 제재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생태교육의 현황

생태전환교육은 아직 정의와 범주가 합의된 개념이기보다 “변형적 의제를 가진 교육”¹⁴⁾이다. 하지만 ‘전환’의 수사를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중심주의의 탈피, 인간과 자연의 공존,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생태소양 함양, 행동양식 변화와 구체적 실천, 중횡단적 연대의 모색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하다.¹⁵⁾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용어가 교육정책의 차원에서 제안된 것은 2020년에 발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¹⁶⁾에서다. 안중복의 연구는 생태전환교육의 정책 정의를 토대로 생태전환교육의 목표를 “기후 위기 인식, 가치와 지향점, 실천 교육과 실천 행동, 시스템과 제도의 전환”¹⁷⁾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생태전환교육을 개인의 인식 및 태도 수정을 넘어 교육 내용과 방법, 학교 문화, 제도 수준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전환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 교

12) 그레타 가드, 김현미 외 여럿 옮김,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창비, 2024, 10-11쪽.

13) 청소년기후행동의 사례가 보여주듯, 선구적인 청소년들은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배제된 지구타자와 연결되기 위한 행동을 모색하고 실천했다.

14) 박수련, 「교육과정 내용분석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40.3, 한국교육과정학회, 2022, 5쪽.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2021a; 남미자 외 여럿,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경기도교육연구원, 2021; 안중복 외 여럿, 『생태전환교육 목표 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1; 박수련, 「교육과정 내용분석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40.3, 2022; 경상남도교육청, 「2024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 경상남도교육청,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5~’30) 발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17) 안중복 외 여럿, 『생태전환교육 목표 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1, 106-108쪽.

육 비전의 정립과 교육과정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1년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시안은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걸쳐 교육 목표 및 핵심 역량을 보완하고자 했다.¹⁸⁾ 이는 생태교육이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체계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태전환교육을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고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며, 생명존중, 지속 가능, 생태·환경 감수성 등의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고자 했다.¹⁹⁾

〈표-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생태교육 중심 신규 대비표²⁰⁾

내용			주요 내용	
			2015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
총론	공통사항	추구하는 인간상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의 핵심 가치 중심으로 인간상 재구조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교육목표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중점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시민성,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생태 감수성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여 개선
		(신설) 미래사회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내용 강화	-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생태전환교육의 도입은 생태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인간상과 교육목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표현은 인간상과 교육목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쓰였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은 명료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교육목표도 ‘바른 인성’과 같은 다소 모호한 인간중심의 서술에 그쳤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미래사회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내용 강화’라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생태전환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태문제를 교육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목표에 사용된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나 ‘생태 감수성’ 등의 구체적인 용어는 생태교육의 모호성을 줄이고, 생태소양²¹⁾을 핵심 소양으로 설정함으로써 생태위기를 단순한 시대 흐름의 반영이 아닌 교육

18)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2021a.

19) 위의 글, 14-16쪽.

20)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신규대비표」, 교육부, 2021b, 1쪽.

21) 관련 연구에서는 생태소양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삶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자연시스템(natural system)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로 정의한다. 안종복 외

적 책무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포용’의 가치는 탈인간중심주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은 기존의 인간중심적 사고구조를 탈피하여 지구타자들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하고, 지구타자와의 상호작용과 공존을 사회적 관계 속에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태 감수성의 확장이자 생태시민으로서의 책무와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생태전환교육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오래된 담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지속가능성 담론이 생태위기와 생태교육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인간중심주의와 발전주의에 기반한 낡은 패러다임이다. 이는 생태문제 해결에 대해 현상 유지 또는 유예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을 내포하며, 생태문제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거나 탈인간중심주의로의 사고 전환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안하고자 했던 생태전환교육은 생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녔지만, 생태교육을 제도적으로 구현·강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2022년 12월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²²⁾에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말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는 다시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존 담론으로 채워졌다. 이는 생태교육의 퇴보였다.

1.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구현된 생태교육과 문학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교육은 사회, 도덕, 과학 등 일부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는 교과 재구조화 및 내용 체계 개편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는 생태전환교육을 모든 교과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이 삭제되면서, 생태교육의 입지와 적용 범위는 발표된 시안보다 축소되었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생태교육이 반영된 영역은 주로 문학 영역이며, 그마저도 ‘공동체의 문제’나 ‘문학 소통’을 다루는 성취기준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예시 수준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다.

공통 교육과정의 초등학교급에서 생태교육과 관련된 언급²³⁾은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단 한 번 언급될 정도로 제한적이다.

지구가 처한 위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찾아보고 일상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태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융합적인 사고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사회과의 ‘지구촌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성취기준([6사12-02])과 연계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교과 통합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²⁴⁾

여럿, 11쪽.

22)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 2022a.

23) 관련 문학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6국05-01]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는다, [6국05-02] 비유적 표현의 효과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6국05-03] 소설이나 극을 읽고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한다, [6국05-04] 인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6국05-05] 자신의 경험을 시, 소설, 극, 수필 등 적절한 갈래로 표현한다, [6국05-06]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제2022-33호)』 [별책 5], 교육부, 2022b, 38쪽.

24) 위의 책, 40쪽.

초등학교급에서는 지구의 위기를 학습 맥락으로 삼아 생태소양을 증진하는 방향을 강조한다. 초등 교육에서 교과 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과학과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²⁵⁾ 2022 개정 초등 국어과에서 생태교육은 문학 영역에 국한되어 구현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탐색하는 문학 작품의 선정과 교과 통합적 학습활동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의 중학교급의 생태교육 관련 내용은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²⁶⁾ ‘생태환경’이 다양한 ‘공동체의 문제’들 중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독립적인 위상을 갖지 못한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용으로 인해 파괴되어 온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생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지도한다.²⁷⁾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서는 중학교 학습자들이 생태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²⁸⁾을 읽음으로써 생태위기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생태문제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 선정이 생태교육의 주된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과의 생태교육은 생태소양을 강조하는 의도와 달리 주로 문학 작품 선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의 생태소양 및 생태학적 감수성 함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특정 작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생태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2 개정 국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공통국어1, 공통국어2),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진로 선택(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융합 선택(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급에서도 생태교육은 문학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공통국어1’ 문학 영역의 [10공국1-05-01]은 문학 소통과 관련된 성취기준으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생태소양과 생태학적 감수성을 다루고 있다.

생태소양을 함양하는 데에 필요한 생명 존중 의식이나 생태 감수성을 담은 작품, 생태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주체적 태도를 기를 수 있게 지도한다.²⁹⁾

25) 사회과의 성취기준([6사12-02])은 국어과 성취기준과 달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기준에 명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제2022-33호) [별책 7]』, 교육부, 2022c, 38쪽.

26) 관련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9국05-09]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육부, 2022b, 54쪽;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중학교 학습자가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9국05-09] 이 성취기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며,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공동체의 현안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타자를 이해하는 능력은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적 연대를 위한 핵심적 요인이다. (중략) 또한 가정, 학교, 이웃 사회, 생태환경 등 다양한 공동체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담은 작품을 읽고,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과 실천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교육부, 2022b, 55쪽.

27) 위의 책, 56쪽.

28) 성취기준 [9국05-09]가 반영된 중학교 『국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연구자가 수록 작품을 확인할 수 없다.

29) 위의 책, 85쪽.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생태문제를 직접 다룬 문학 작품의 선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고등학교급에서는 생태적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을 통해 생태소양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생태문제를 전면화한 작품을 넘어서 학습자가 생태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해석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정 생태문학에 기댄 소극적인 생태교육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습자가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주체적으로 생태적 의미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일반 선택의 ‘문학’ 과목의 성취기준 [12문학01-11]³⁰⁾에서도 공동체의 문제와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성취기준 해설’ 역시 “공동체는 생태적 위기, 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의 문제 등 여러 난제에 직면”³¹⁾했음을 설명하면서, 학습자가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존의 해법을 모색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세계를 지향하는 생태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생태 관련 문제와 생명 존중의 문제를 다룬 작품”³²⁾을 제재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생태소양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에서 ‘생태전환’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³⁾ 예를 들어 ‘주제탐구독서’는 학습자가 “기후변화와 대응, 생태전환을 위한 실천과 참여 등 오늘날 전 인류의 공통 관심사인 생태전환”³⁴⁾을 다룬 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문학과 영상’에서도 “생태전환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함양”³⁵⁾하는 문학 작품과 영상물을 감상하고 소통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독서 토론과 글쓰기’와 ‘매체 의사소통’은 전 지구적 생태문제와 “생태전환 및 지속가능한 사회”³⁶⁾라는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생태교육은 성취기준 본문에 생태위기나 생태소양이 직접 명시되지 않은 채, 주로 문학 영역의 작품 선정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는 전 학년에 걸쳐 문학 작품 선정이 생태교육을 실현하는 유일한 과제로 간주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생태전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표현은 생태전환과 지속가능성 담론이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동안 모색된 생태전환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생태전환교육의 목표가 생태소양의 함양이었음을 떠올릴 때, 생태전환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이 생태교육의 주축으로 기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인간중심주의의 자장 속에서 형성·발전되어 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생태전환교

30) “[12문학01-11]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위의 책, 137쪽.

31) 위의 책, 138쪽.

32) 위의 책, 139쪽.

33)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기준 본문과 해설 어디에서도 ‘생태전환’이라는 용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생태소양의 함양은 포괄적으로 제시된다. 반면,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에서는 생태소양의 함양이 ‘생태전환’이라는 교육의제와 결부되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생태교육의 개념적 범위와 실천적 지향을 둘러싼 교육과정 내부의 합의가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4) 교육부, 앞의 책, 2022b, 139쪽.

35) 위의 책, 164쪽.

36) 위의 책, 199쪽.

육’이라는 교육 의제와 정책적 의미를 복원해야 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태전환교육을 재구성함으로써 생태적 사고로의 삶의 전환을 추동해야 한다.

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생태문학의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과의 생태교육은 주로 문학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생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떠한 작품을 선정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이는 생태교육에서 문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생태교육에서 문학의 효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생태학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문학생태학은 환경과 생태계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탐구하는 생태학의 문제의식을 문학적 방식으로 사유하는 학문으로,³⁷⁾ 생태 의식을 일깨우거나 생태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을 아우를 만큼 그 외연이 넓다.³⁸⁾

오늘날 불확실한 기후변화는 낯섬의 형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러한 낯섬은 인간이 외면해 온 비인간 존재를 새롭게 인지하게 한다.³⁹⁾ 이런 맥락에서 삶의 생태적 전환은 데카르트식 이원론을 극복하고 인간이 지구와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비인간 지구타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환경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감각과 사유 방식, 곧 문화와 상상력의 위기라는 점에서⁴⁰⁾ 이를 감각하고 이해하는 통로로서 생태학적 상상력이 요청된다. 이러한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소양을 함양하는 바탕이 된다.

생태소양은 지구에 감응하는 능력으로, 지구타자의 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비인간 지구타자들과 상상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브뤼노 라투르의 ‘정화(purification)’와 ‘번역(translation)’ 개념은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사유하는 데 유용하다. 근대의 정화 작업이 인간과 비인간의 영역을 분리했다면, 번역 작업은 자연과 문화(인간)가 얽힌 관계망을 드러낸다.⁴¹⁾ 번역 작업에는 상상력이 포함되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비인간 지구타자의 입장이 되어보거나 이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문학을 매개로 이러한 경험이 제공될 때, 학습자들은 생태소양과 생태학적 감수성을 함께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고등학교 『공통국어1』, 『공통국어2』와 『문학』 교과서의 생태문학 수록 현황을 조사⁴²⁾하여 학습자의 생태학적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제재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공통국어1』⁴³⁾의 생태문학 수록 현황은 시 3편, 소설 2편, 수필 5편으로, 정현종, 나희덕, 손택수, 이유리, 조예은, 이태준, 이규보, 박완서, 황선우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공통국어2』⁴⁴⁾

37) 김용민, 『문학생태학』,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10-11쪽.

38)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32쪽.

39) 아미타브 고시, 김홍욱 옮김, 『대혼란의 시대』, 에코리브르, 2021, 46-47쪽.

40) 위의 책, 19쪽.

41) Latour, B. *We Have Never Been Moder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45.

42) 이 글에서는 생태위기가 직접적으로 재현되거나 경고의 메시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생태학적 상상력과 감수성이 두드러지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생태적 사고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을 생태문학으로 포괄한다.

43)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강호영), 비상교육(박영민), 지학사, 창비교육, 천재교과서(김수학), 천재교과서(김동환), 해냄에듀에서 발행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공통국어1』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4)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강호영), 비상교육(박영민), 지학사, 창비교육, 천재교과서(김수학), 천재교과서(김동환), 해냄에듀에서 발행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공통국어2』 교과서를 분석

는 시 2편, 소설 1편, 수필 1편으로, 박재삼, 백석, 김애란, 윤대녕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문학』⁴⁵⁾의 경우 시 20편, 소설 5편, 수필 7편으로 가장 많은 생태문학 제재를 수록했고, 고재중, 김기택, 백석, 함민복, 박목월, 정희성, 나희덕, 문정희, 이문재, 김초엽, 루이스 세폴베다, 서유미, 김애란, 황정은, 이규보, 한홍구, 이태준, 김금희의 작품을 실었다.

2022 개정 『공통국어1』, 『공통국어2』,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생태문학은 에코페미니즘의 논리인 생명의 얽힘과 공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한다. 이들의 주제의식은 ① 자연과 생명의 가치 ② 생태위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③ 종횡단적인 돌봄과 공존의 윤리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 작품의 주제의식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두드러지는 생태적 사고를 토대로 작품을 분류하였다.

〈표-2〉 2022 개정 『공통국어1』·『공통국어2』·『문학』에 수록된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내세운 생태문학

주제의식	작품명	작가	갈래
자연과 생명의 가치	초록 바람의 전언	고재중	시
	멸치	김기택	시
	소	김기택	시
	뿌리에게	나희덕	시
	눈꽃	루이스 글릭	시
	울포의 기억	문정희	시
	산이 날 에워싸고	박목월	시
	산에 가면	박재삼	시
	나무의 꿈	손택수	시
	수목장원9-번집	장식남	시
	저 산이 날더러	정희성	시
	알스트로메리아	파블로 네루다	시
	사과를 먹으며	함민복	시
	올리브가 하는 일	김금희	수필
	파초	이태준	수필
	화단	이태준	수필
	보리	한홍구	수필
	수평 자세로 가마 누워 보는 세상	황선우	수필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는 작품들은 자연을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고, 자연의 고유한 생명력과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 나무, 흙, 동물 등 비인간 존재들이 인간과 분리된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의 안에서 인간과 얽혀 살아가는 동등한 주체로 제시된다.

김기택의 「멸치」와 「소」는 인간에 의해 억압된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면서도 그 속에 남아 있는 생명력을 복원하려는 시선을 보여준다. 인간중심주의의 논리 속에 배제되고 타자화되었던 자연을 호명하며 그 존엄성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함민복의 「사과를 먹으며」나 김금희의 「올리브가 하는 일」은 식물의 사유를 통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으며, 인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5)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창비교육, 천재교과서, 해냄에듀에서 발행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반영된 『문학』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자연의 일부임을 일깨우고 인간과 자연의 얽힘을 인식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이 강조하는 지구타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관계적 자아’로 이해하며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생명 존중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표-3〉 2022 개정 『공통국어1』·『공통국어2』·『문학』에 수록된 ‘생태위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내세운 생태문학

주제의식	작품명	작가	갈래
생태위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이문재	시
	깊은 흙	정현중	시
	지구의 근황	함민복	시
	세상 끝의 세상	루이스 세풀베다	소설
	스노볼 드라이브	조예은	소설

‘생태위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강조하는 작품들은 생태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정현중의 「깊은 흙」은 “깊은 자연 얹은 문명”⁴⁶⁾이라는 대립적 표현을 통해 자연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비해 인간 문명이 얼마나 얕판한지를 보여준다. 함민복의 「지구의 근황」은 “시멘트국에 불모로 잡혀온 자연국”⁴⁷⁾이라는 표현과 지구의 사지가 뻗뻗하게 굳어지는 모습을 통해 개발 논리에 잠식된 불모의 자연을 그려낸다. 특히 조예은의 「스노볼 드라이브」는 ‘녹지 않는 눈’이라는 이상기후 속에서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보여주며, 생태위기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자각하게 한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파괴된 지구 환경을 전면에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책임을 일깨우고 생태적 사고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표-4〉 2022 개정 『공통국어1』·『공통국어2』·『문학』에 수록된 ‘종횡단적인 돌봄과 공존의 윤리’를 내세운 생태문학

주제의식	작품명	작가	갈래
종횡단적인 돌봄과 공존의 윤리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시
	단단한 고요	김선우	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희덕	시
	수라	백석	시
	섬	북효근	시
	나무에 깃들어	정현중	시
	노찬성과 에반	김애란	소설
	원통 안의 소녀	김초엽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소설
	브로콜리 펀치	이유리	소설
	묘씨생	황정은	소설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나희덕	수필

46) 정현중, 『한 꽃송이』, 문학과 지성사, 1992, 75쪽.

47) 함민복, 『우울 씨의 일일』, 문학동네, 2020, 18쪽.

	반통의 물	나희덕	수필
	풀 비린내에 대하여	나희덕	수필
	한 그루 나무처럼	윤대녕	수필
	성난 풀잎	이문구	수필
	죽은 새를 위하여	박완서	수필
	슬건설	이규보	수필(설)
	이와 개에 대한 명상	이규보 (김하라 옮김)	수필(설)

‘중형단적인 돌봄과 공존의 윤리’를 강조하는 작품들은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의 목표와 맞아떨어진다. 이 작품들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을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관계망 속에서 다시 그려낸다. 나희덕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이문구의 「성난 풀잎」 등은 자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곧 경청의 윤리를 강조한다. 자연은 인간의 배경으로만 취급되지 않고, 돌봄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을 성찰로 이끄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때 인간은 자연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연의 말을 듣는 주체로 변모한다. 이는 지배와 소유의 논리가 아닌 상호 응답의 자세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통의 자세는 생태학적 상상력의 형태로 뚜렷하게 구현된다. 김초엽의 「원통 안의 소녀」, 이유리의 「브로콜리 펀치」, 황정은의 「묘씨생」 등은 이상기후나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이 만나는 경계의 공간을 그려내거나 동물이 화자가 되는 서사를 담아낸다. 그중 동물화자 소설인 「묘씨생」은 길고양이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소외된 존재가 놓인 상황과 그것이 느끼는 두려움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독서 경험은 언제나 화자의 위치에 있던 인간을 청자의 위치로 옮겨 놓음으로써 지구타자에 대한 경청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이처럼 돌봄과 공존, 경청의 윤리를 중심에 둔 작품들은 인간이 자연을 향해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한 생태학적 상상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사고를 자극하는 중요한 교육적 제재로 기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에 수록된 생태문학은 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산문 제재인 소설과 수필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나희덕의 수필 「풀 비린내에 대하여」는 미래엔과 지학사의 『공통국어1』과 천재교과서의 『문학』에 세 차례 수록되었다. 이 외에도 나희덕의 시 「뿌리에게」,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와 수필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이 수록되었다는 점은 그의 작품이 생태문학의 정전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⁸⁾ 천재교과서의 경우, 「풀 비린내에 대하여」를 2015 개정 『문학』과 2022 개정 『문학』에 모두 수록하였으며,⁴⁹⁾ 학습활동 역시 학습자의 윤리적 성찰과 생태적 의식을 환기하는 방향

48) 나희덕의 작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영된 교과서에도 여러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금성출판사 『국어』에 시 「귀뚜라미」, 미래엔과 비상교과서 『국어』에 수필 「반통의 물」, 지학사 『국어』에 수필 「내 유년의 울타리는 땀자나무였다」와 천재교과서 『문학』과 좋은책신사고 『독서』에 수필 「풀 비린내에 대하여」 등이 실렸다.

49) 2015 개정 『문학』에서는 ‘대단원 1. 문학과 삶’의 ‘소단원 1.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수록하며 작품의 윤리적 가치와 생태적 사유를 강조하였다. 2022 개정 『문학』에서는 ‘대단원 5. 문학의 효용’의 ‘소단원 2. 문학과 공동체’에 수록하며, 환경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이자 공동체의 문제로 간주했다. 하지만 개정 시기가 다른 두 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은 동일하다. ‘학습활동 1’은 작품의 주요 사건을 전후한 작가의 인식 변화를 이해하도록 요구하며, 두 교과서 모두 동일한 발문으로 제시된다. “‘풀 비린내’ 사건을 전후하여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자.” 정호웅 외 여럿, 『문학』, 천재교과서, 2019, 36쪽; “‘풀 비린내’ 사건을 전

을 유지하였다.

2022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생태소설에서는 신진 작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들 작품은 생태학적 상상력과 세계관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화된 생태위기 속에서 생태소양의 함양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제재 선정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오랫동안 다양한 교과서에 수록되며 생태소설의 정전으로서의 위상을 지녔던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 2022 개정 국어과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은 생태학적 감수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새롭게 수록된 생태소설들은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유의미한 움직임을 추동하는 잠재력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생태적 사고와 태도를 체험하게 하는 생태전환교육의 주요한 실천 공간이 될 수 있다.

한편,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생태교육이 주로 문학 영역에서 논의된 데 반해, 『공통국어1』과 『공통국어2』에서 생태 관련 제재가 안정적으로 수용된 영역은 문학이 아닌 화법, 작문, 독서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텍스트는 생태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설명문과 논설문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나 동물권 등의 쟁점을 다룬다. 그러나 생태위기가 환경오염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공존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정동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학의 역할은 앞으로의 생태전환교육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국어과 생태교육에서 생태소설의 수록 비중이 현격히 낮다는 점은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지점이다.

III.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의 허구성과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1.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의 맹점

국내 생태교육의 이론적 토대는 포스트휴머니즘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존재의 얽힘, 생태계 내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했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다.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이 유효했던 2000년대 초반, 유네스코가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실천 방법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유네스코가 정의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정의, 형평성, 관용, 자축성, 책임감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환경적 온전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⁵⁰⁾ 유럽, 북미,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 등 다양한 국가들이 협의하였으며,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지구는 조화로운 ‘홀로세(Holocene)’⁵¹⁾를 지나 혼돈의 ‘인류세(Anthropocene)’로 접어들었

후하여 자동차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자.” 정호웅 외 여럿, 『문학』, 천재교과서, 2024, 304쪽.

50) UNESCO. *UNESCO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5-2014)*. UNESCO, 2004, 20-23.

51) ‘홀로세’는 빙하기 이후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시기부터 1만년 전까지 이어진 조화롭고 안정된 지질학적 시기를 말하며, 1885년 볼로냐 국제지질학회에서 채택된 지질시대다. Crutzen, P.J. & Stoermer, E.F.,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41, 2000, 17.

다.⁵²⁾ 폴 크리첸과 유진 스토머는 인류세의 시작을 산업혁명이 발발한 18세기 후반으로 설정하면서, 인간의 1인당 소비 자원량의 폭발적인 증가, 도시화, 화석연료의 고갈, 이산화탄소, 스모그, 온실가스, 인간의 소비와 착취로 인한 생물 군집의 변화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⁵³⁾ 인간의 힘이 지구의 힘에 겨를 만큼 커지면서 자연에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었고, 그 결과 종말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논의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류세가 학계와 환경 운동가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파괴가 가시화됨에 따라 그것이 인간의 삶에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공포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개발 신화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이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드러내는 인류세 담론의 흐름에 따라 생태위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인간과 자연,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⁵⁴⁾

2000년대 이후 인류세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인간중심적 개발 논리를 내포하고 있던 지속가능성 담론은 점차 그 효능을 잃어갔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세계 환경의 날’이 지정되고 환경 위기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던 시기에 바바라 워드가 제안한 개념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브룬틀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세대가 그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⁵⁵⁾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은 개념의 모호성⁵⁶⁾과 개발주의적 성격, 그러한 개발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세계 패권 국가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실질적인 환경 정치적 대응책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거대 자본을 소유한 기업이나 국가들이 개발을 정당화하고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장치로 전유해 온 현실도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제1세계 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은 이미 오염된 환경에 대한 일시적인 처방에 그쳤고, 이에 제3세계는 생태 중심의 대안 모델을 재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제3세계가 겪고 있는 빈곤과 생태위기의 상관관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환경 운동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⁵⁷⁾ 제3세계는 제1세계에 자국의 자연을 내주었고, 제1세계는 자연의 개발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며 ‘따라잡기 신화’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제1세계는 약속했

52)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 시스템을 교란하고 혼란을 초래한 시기를 일컫는다. 현재 학술장에서 인류세를 공식적인 지질시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4년 5월 국제지질연합(IUGS) 산하 제4기 층서 소위원회는 인류세를 공식적인 지질시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53) ‘인류세’는 1980년대 초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가 제안한 지질연대로, 2000년 기상학자 폴 크리첸이 유진 스토머와 국제지권생물권프로그램(IGBP) 소식지에 우리의 시대를 인류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Crutzen, P.J. & Stoermer, E.F., The “Anthropocene”. 17-19.

54) 조지형·김용우 엮음, 『지구사의 도전: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서해문집, 2010, 348-386쪽.

55)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Brundtland, G.H.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neva, UN-Dokument A/42/427, 1987, 54.

56)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트리플 보텀 라인(Triple Bottom Line)’, 생태 문해력, 대지윤리, 분배정의 실현하는 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그레타 가드, 김현미 외 여럿 옮김, 앞의 책, 10-11쪽;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 때문에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여겨지고 있다. 2015년 유엔은 2030년까지의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한 바가 있다.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25, 14-28.

57) Ahmed, S.F., *An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Path Taken by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Jamaica a Case Study*.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2009, 86-97.

던 윤택한 삶을 제공하지 않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던 이들은 터전을 잃은 채 제1세계에 더욱 의존하면서 자생력을 잃어갔다. 지속가능성은 역설적이게도 은닉된 착취구조를 인식하게 하고, 자본주의가 생태위기의 발단임을 직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발전주의와 궤를 같이하는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지속가능성의 한계는 제1세계 주도의 무분별한 개발과 발전주의, 기술지상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류세 담론의 형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시장 주도의 의사 결정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제3세계 국가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했을 뿐,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교육은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을 통제하면서 이를 '지속가능성'으로 정당화해 온 담론의 허위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생태위기를 인간중심주의와 발전주의의 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연의 착취를 인간의 권리로 여겼던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에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의 생태교육이 실질적인 변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생태전환교육의 복원이 요청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들이 주도성을 갖고 생태전환교육을 꾸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생태전환교육의 토대,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은 1974년 프랑수아즈 도본느가 『페미니즘인가 파멸인가』에서 “우리 사회에 직접적 위기를 가하는 인구 과잉과 지구자원의 파괴 원인은 남성중심적 체제”임을 지적하면서 발아했다.⁵⁸⁾ 1960-70년대 생태적 위기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인지한 환경운동이 일어났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반핵평화운동과 서구에 의한 제3세계 착취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들은 자연과 여성의 억압된 현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런 억압의 근원이 가부장제에 있으며 여성을 자연과 한데 묶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던 서구 이원론과 가부장제,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여성과 자연을 착취하는 토대가 가부장제라는 전제 아래 자연 에코페미니즘, 영적 에코페미니즘, 채식주의 에코페미니즘,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등 다양한 담론이 활발하게 생산되어 왔다.⁵⁹⁾ 특히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고 대립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화해와 연대의 모양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와 실천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주의나 여타 페미니즘 논의에서 에코페미니즘의 개념적 불명확성이 지적되며 대중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부 페미니즘 운동이 기존 사회구조 아래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수혜자가 되기를 지향했다면, 에코페미니즘은 생명과 자연을 희생시켜 만든 발전의 결과물을 배분하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 이네스트라 킹은 이를 “rotten pie(썩은 파이)”⁶⁰⁾를 나누는 것으로 비유하며, 기존의 사회구조에 편승하기를 거부했

58) 그레타 가드, 김현미 외 여럿 옮김, 앞의 책, 8-17쪽.

59) 이들은 핵심적인 개념을 공유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는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갖는 이론이다. 박언진,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적 쟁점」, 환경철학 37, 한국환경철학학회, 2024, 134쪽.

60) Warren, K.J.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182.

다. 개발주의를 거부하는 에코페미니즘은 인류세의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생태적 전환”⁶¹⁾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하고자 했던 생태전환교육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전환교육의 토대로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을 제안한다. 에코페미니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담론으로 치부되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자연과 문명의 이분법을 해체하며 어느 한쪽도 타자화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 조화로운 세계를 상상한다는 점에서, 혐오와 배제가 일상화된 오늘날 에코페미니즘은 오히려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인간중심주의에서 출발하는 경청, 접촉, 돌봄, 연결, 사랑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태전환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의 생태적 전환은 근대의 과학이 만들어낸 분리된 일상을 비(非)분리된 연결 상태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발상이다. 반다나 시바가 설명하듯, 생태적 전환은 스스로를 지구 자원의 정복자나 소유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인간을 가장 작은 미생물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종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 가족의 한 성원으로 이해하며, 다른 생물종이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⁶²⁾ 이러한 인식은 지구의 모든 생물종을 돌봄과 책임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탈인간중심주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인간이 일방적으로 침범해 온 자연의 권리와 영역을 새로운 공존의 공간으로 재사유할 것을 요청한다.

페미니즘에서 경청의 대상은 여성에서 출발하여 백인 여성에서 유색인종 여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로 확장되어 왔다.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은 인간을 넘어 비인간 지구타자까지 확장하며 모든 지구타자의 발화를 경청한다. 지구타자는 인간종을 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술한 지구타자들의 발화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실제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외된 지구타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세계 곳곳에서 울리고 있었으나 인간이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뿐이다. 자연과 동물화자의 이야기나 뒤틀린 지구의 소리를 담은 이야기를 통한 지구타자와의 접촉은 학습자의 생태학적 상상력과 사고를 촉진할 수 있게 한다. 접촉은 만남의 출발이자 지구타자의 이해와 연대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에코페미니즘은 지구상에 교차하는 모든 존재를 호출함으로써 배제되고 착취되었던 여러 생물종과 젠더, 인종, 계급 등 다층적인 억압을 성찰하게 한다.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은 지구타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관계적 자아’로 보고 연대할 것을 강조한다. 인간은 자본주의, 환원주의, 가부장제의 논리에 기반해 지구를 생명 공동체로 여기지 않으며 “자연 속에 홀로”⁶³⁾ 존재해 왔다. 발 플럼우드(Plumwood)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연관되었다는 전제 아래 ‘관계적 자아’를 상상한다. “(관계적) 자아 개념은 행위자적인 자연과 역동적으로 상호 연결된 것”⁶⁴⁾으로, 지구타자들을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시도이자 변혁이다. 우리가 지구타자를 관계적 자아로 상상할 때 인간과 자연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형단적 돌봄이 실현되고 비로소 진정한

61)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비, 2020, 25쪽.

62) 위의 책.

63) 루스 이리가레·마이클 마더, 이명호·김지은 옮김, 『식물의 사유』, 알렘, 2020, 139쪽.

64) 그레타 가드, 김현미 외 여럿 옮김, 앞의 책, 89쪽.

연대가 가능해진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를 상처를 치유하며 세계를 새로 짜는 “web(망)”이라는 은유로 설명한다.⁶⁵⁾

아울러,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은 혐오와 폭력을 거부하며 어떤 관계에서든 혐오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모든 타자에 대한 적대와 배제를 청산하고자 한다.⁶⁶⁾ 이렇듯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은 소외된 모든 존재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생태위기라는 지구의 반응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폭력이 소거된 세계를 지향하고 경청의 윤리를 통해 지구타자의 생동성과 주체성을 감각할 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IV.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셜교육의 실천

끊임없는 기술의 발달과 진보에 의존해 온 프로메테우스적 삶의 양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생태학적 감수성과 상상력, 생태적 도덕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요청된다. 이때 에코페미니즘은 학습자가 지구상에서 소외되어 온 모든 존재와 마주하고, 이들과의 동등한 관계를 맺고 대화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생태소셜은 학습자를 가상의 세계로 초대하여 생태문제에 참여하게 하고, 자연과의 접촉과 관계 맺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어과 생태전환교육의 방법론으로서 에코페미니즘적 소셜교육을 제안하고, 그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의 ‘생태소양(ecological literacy)’⁶⁷⁾을 함양할 수 있다. 데이비드 오어는 생태적으로 더 나은 세계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성찰하고 과장된 인간중심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구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파괴에서 참여로, 자연과 단절된 태도를 경외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⁶⁸⁾ 자연에 대한 경외를 상실한 인간은 지금의 우리가 그러하듯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무감해진다. 따라서 생태문화를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하고 그려보는 경험은 학습자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게 하고, 생태위기에 대한 통찰력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인간과 자연, 비인간 존재와의 얽힘을 감각하고 지구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생태적 책임의식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동시대성(contemporariness)’을 함양할 수 있다. 조르조 아감벤에 따르면 동시대성은,⁶⁹⁾ 자신의 시대와 맺는 독특한 관계이자 “이점과 시대착오를 통해 맺는 시대와

65) Plant, J., ed. *Healing the Wounds: The Promise of Ecofeminism*. London, Green Print, 1989; Diamond, I., & Orenstein, G.F., eds.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90.

66)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옮김, 앞의 책, 114쪽.

67) 데이비드 오어는 생태소양을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의 감각”으로 정의한다. 그는 생태소양이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증세뿐만 아니라 그 근원까지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생태소양의 작용이 “시민권의 재활성화”로 이어지고, 시민권의 개념을 인간과 생물을 모두 아우르는 “전지구적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데이비드 오어, 김기대·이효진·이성희 옮김, 『생태소양』, 교육과학사, 2013, 138-139쪽.

68) Orr, D.W. *The Nature of Design: Ecology, Culture, and Human Int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4.

69) 조르조 아감벤의 동시대성과 동시대인에 대한 논의는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옮김, 『장치란 무엇

의 특수한 관계”⁷⁰⁾이다. 동시대성을 경험한 사람은 시대의 빛에만 현혹되지 않고 이면의 ‘어둠’과 ‘암흑’을 발견한다. 즉, 빛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식별하고 그것을 자기 앞으로 호명하는 사람이 바로 동시대인이다. 따라서 동시대성을 기르는 일은 지구의 다양한 위기와 어둠을 직시하며, 그 속에 은폐된 폭력과 모순, 배제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소양을 기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문학 교육이 ‘독자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현실의 모순과 어둠을 포착하는 일은 동시대성의 함양과 직결된다.⁷¹⁾ 그리고 동시대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생태페다고지의 문제제기식 교육을 관련지을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에코페미니즘적 소설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종횡단적 윤리, 자연 화자의 목소리, 비인간 존재의 삶에 대한 몰입을 통해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IV장에서는 이유리의 『브로콜리 편치』와 황정은의 『묘씨생』을 중심으로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작품을 통해 국어과의 생태전환교육이 어떤 교육적 실천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생태교육의 관점을 반영한 학습활동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브로콜리 편치』: 상호 돌봄과 종횡단적 사랑 읽기

『브로콜리 편치』⁷²⁾는 생태학적 상상력이 동원된 소설로, 창비교육의 『공통국어1』⁷³⁾ ‘1. 문학 소통과 개성적 표현’에 수록되었다. 복싱 선수 ‘원준’의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환상적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로, 에코페미니즘의 가치인 경청, 지구타자와의 교감, 상호 돌봄, 종횡단적 사랑이 잘 드러난다.

『브로콜리 편치』에서 ‘식물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으로, 미움과 괴로움 같은 “나쁜 것”을 품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변신이다. 원준의 식물화는 복싱 선수라는 삶 속에서 축적된 혐오와 폭력성이 신체에 가시화된 사건이다. 상대를 쓰러뜨려야 살아남는 링 위에서 원준은 “미움을 억지로 만”드는 전략으로 폭력에 무감해졌다. 언젠가부터 원준은 상대 선수를 미워하는 방법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때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이렇듯 혐오와 폭력성이 원준의 일상에 침투하여 그를 잠식했다. 결국 식물화는 생존을 위한 절규이자 몸 부림이라 할 수 있다.

글러브로 무장한 오른손은 혐오와 폭력성이 응축되어 폭발하는 장소였으나, 브로콜리로 변하면서 그 힘은 상실된다. 타인을 아프게 했던 강력한 신체는 무력화되고, 자연의 무해함을 몸으로 체현하며 자신의 폭력성에 제동이 걸리는 순간을 경험한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폭력이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의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를 통해 사회적 산물로서의 폭력은 멈출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수 있다. 동시에 혐오와 폭력

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난장, 2010; 조르조 아감벤, 김영훈 옮김, 『벌거벗음』, 인간사랑, 2014을 참조할 것.

70) 위의 책, 2014, 24쪽.

71) 홍인영, 「동시대인을 기르는 문학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2010년대 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8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5, 397쪽.

72) IV장에서 『브로콜리 편치』를 인용할 때 이하에서는 쪽수 표기를 생략한다. 이유리, 『브로콜리 편치: 이유리 소설집』, 문학과지성사, 2021.

73) 최원식 외 여럿, 『공통국어1』, 창비교육, 2024.

은 쉽게 무감해지고 습관화되며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주체를 말소시키는 무능한 힘에 불과하다는 점을 성찰하게 된다.

원준의 연인인 ‘나’는 링 위의 원준이 뿔어내는 “살기”와 “악의”를 목도한 뒤 그를 두려워하며 피하지만, 식물화를 계기로 소원했던 관계를 해소한다. 그러나 원준이 처음부터 브로콜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브로콜리 주먹으로는 링 위에 설 수 없었기에 그것은 원준의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식물화 초기에 원준이 우울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브로콜리를 수건으로 들들 감아 완전히 감추고 나서야 겨우 병원에 갈 만큼 자신의 변화를 창피해하며 감추려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브로콜리를 통해 원준은 모두의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원준과 그의 브로콜리에게 무수한 말을 건네며 그와 얹혔다. ‘나’ 역시 브로콜리를 매개로 원준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할 용기를 얻는다. ‘나’는 움츠러든 브로콜리를 어루만지며 그것이 원준의 내면에 응고된 미움과 분노를 뭉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지 생각한다.

이후 원준의 팬인 ‘박광석 할아버지’와 요양 보호사인 ‘나’가 돌보는 ‘안필순 할머니’의 초대로 성사된 숲에서의 ‘만남’은 원준의 변신이 풀리는 전환점이 된다. 원준이 숲에서 크게 노래하며 후련함을 느끼자 브로콜리에는 꽃봉오리가 맺히며 변신은 풀리는 단계로 접어든다.

“첫번째 꽃을 따라 나머지 봉오리들도 경쟁하듯” 피어나는 개화를 통해 원준은 폭력적이고 잔혹한 경쟁이 아닌, 생명력이 물씬한 경쟁을 경험한다. 이후 브로콜리를 “수건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있는 원준의 모습은 그것을 감추려 하던 지난날과 분명히 대조된다. 그렇게 원준은 복싱을 그만두고 링 밖의 세계로 나올 수 있었다.

브로콜리는 ‘접촉’의 계기이자 깊은 교감, 연대의 가능성을 뜻한다. 숲은 이들이 긴밀하게 얹히는 공간이며, 그 속에서 ‘관계적 자아’를 형성해 간다. 이는 “오직 연계하라”⁷⁴⁾는 에코페미니즘의 제안과 공명한다. 식물화는 식물 세계로의 초대이자 “생존과 생성(becoming)”⁷⁵⁾이며, 브로콜리와 공존을 통해 원준은 폭력성을 거세하고 화해와 연대를 깨닫는다. 따라서 식물화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돌봄의 윤리를 드러내는 모티프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브로콜리를 매개로 사람들이 원준에게 말을 건네며 얹히는 과정은 타인을 보살피는 작은 실천이 위기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타자를 향한 작은 돌봄이 갈등과 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원준의 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날, 안필순 할머니는 회색앵무 말자의 부고를 전한다. 말자는 인간의 말을 단순히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물들과 직접 소통하며 관계 맺은 친구로 그려진다. 말자의 장례식은 이러한 관계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말자는 먼저 간 집주인의 개와 함께 주목나무 아래에 묻혀 자연으로 돌아간다. 말자가 누운 자리의 흙을 계속해서 쓰다듬는 안필순 할머니의 행동은 자연으로 돌아간 말자에게 닿고자 하는 접촉의 몸짓이자 깊은 애도의 표현이다. 또한 손톱에 낀 흙을 “변갈아 문질러” 씻어주고, ‘나’가 할머니에게 손을 내맡기는 장면은 돌봄의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이처럼 말자는 지구타자와 감응하는 중횡단적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지구타자와의 감응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하며, 이들과 맺는 실천적 관계는 혐오로 뒤엉킨 사회의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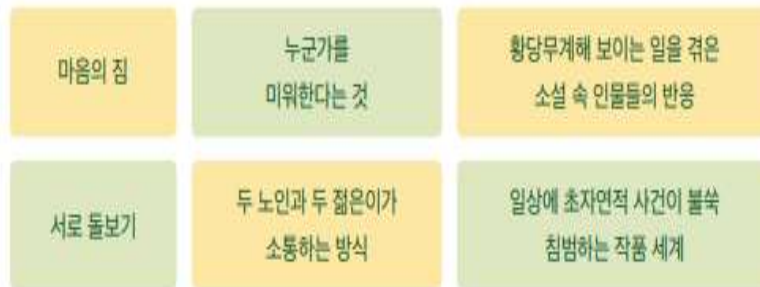
74)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옮김, 앞의 책, 6-55쪽.

75) 루스 이리가레·마이클 마더, 이명호·김지은 옮김, 앞의 책, 139쪽.

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교과서의 학습활동 역시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의 가치를 구체화한다.

2 다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짧게 써 보자.



[그림-1] 창비교육 『공통국어1』 12쪽, 학습활동 4

제시된 6개의 항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짧은 비평문을 쓰는 활동은 작품의 핵심 가치를 삶의 차원에서 성찰하게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돌보기”와 “소통하는 방식”은 작품에서 의미 있게 다루는 관계 맺기의 양상으로, 에코페미니즘이 강조하는 상호 돌봄, 종횡단적 사랑, 경청과 소통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마음의 집”,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폭력과 혐오 감정의 성질을 성찰하게 하며, “황당무계해 보이는 일”과 “초자연적 사건”은 생태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작품의 환상적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브로콜리 펀치』는 ‘식물화’라는 변신을 매개로 벌어지는 사건과 작중 인물 간의 다양한 소통과 사랑을 통해, 학습자가 폭력과 혐오, 돌봄과 연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사유하며 생태문제를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학적 감수성을 형성하도록 이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은 작품의 가치와 정서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학습자의 개인적 성찰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인간과 자연의 얽힘이나 관계를 분명하게 탐색하도록 이끄는 후속 질문과 실천이 보완된다면 생태소양 함양의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브로콜리 펀치』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게 하고 지구타자와의 관계를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의 중요한 제재로 기능할 수 있다.

2. 「묘씨생」: 소외된 지구타자의 고통 읽기

「묘씨생」⁷⁶⁾은 창비교육의 『문학』⁷⁷⁾ 5. 문학과 소통’에 수록되어 있다. 「묘씨생」은 길고양이를 화자로 내세워 비인간 지구타자의 시각으로 익숙한 세계를 낯선 것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순히 동물의 입장을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왔던 존재들의 혹독한 삶과 고통, 그들을 둘러싼 폭력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지구에서 “나쁜 일”만 겪은 고양이 ‘뭉’은 “이 몸을 더럽히는 세계가 완파”되기를 소망하

76) IV장에서 「묘씨생」을 인용할 때 이하에서는 쪽수 표기를 생략한다. 황정은, 『과씨의 입문』, 창비, 2012.

77) 최원식 외 여럿, 『문학』, 창비교육, 2025.

며, 자신은 결코 “인간의 우방”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몸의 일생은 기구하다. 평생 먹고사는 문제를 두고 인간과 불리한 경쟁을 치르며 인간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얼어 죽기 직전의 몸을 거둔 ‘곡씨 노인’은 몸이 불신했던 인간들과는 다른 존재였다. 곡씨의 무릎 위에서 체온을 나누는 접촉을 통해 둘은 서로의 위태로움을 알아보며 엮히게 된다. 곡씨 또한 인간의 우방이라기 어려운 존재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와 좀처럼 엮이려 하지 않았고, 그를 이름 없이 그저 ‘곡씨’라고 불렀다. 이는 그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온전히 호명되지 못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노랫말을 적은 종이를 건네고, 버려진 종이도 다시 모으며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몸과 곡씨가 살아가는 도시는 소수의 인간을 위해 조직된 위계적인 공간이다. 곡씨는 인간이지만 배제되었고, 몸은 비인간 존재라는 이유로 더욱 바깥으로 밀려난다. 이처럼 도시는 인간/비인간, 중심부/주변부를 구분하며 불리한 존재를 밀어내고 배제한다. 몸이 만나는 길고양이들의 “초조하고 신경질”적인 태도와 불완전한 몸은, 이들의 불안정한 생존이 예외적인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기질과 적의를 “과소평가”한 채 “조그만 생물과의 공생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지구에서 몸이 인간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위계는 곡씨의 삶에서도 반복된다. “변화가”는 환하고 편리한 공간이지만, 곡씨와 같은 인간은 잠시 머무를 자리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버린 음식을 먹는 최소한의 생존 행위마저 “불쾌”한 것으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상인이 곡씨를 “유심히 지켜보는” 장면은 응시가 접촉이 아니라 배제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이처럼 “불리한 개체는 밀려”나는 일은 고양이에게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그렇게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만난 둘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간다. 곡씨가 자신의 삶의 내력을 이야기하며 몸에게 ‘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몸 또한 곡씨를 “묘씨생보다 못한 일생”으로 바라보는 장면은 이름 없는 두 존재가 서로의 보잘것없는 삶을 연민하며 동질감을 형성하는 대목이다.

가혹하고 척박한 지구에서 둘만이 가까스로 공존했지만, 곡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이후부터 몸의 삶은 더욱 가장자리로 내몰린다. 지구에 “떠도는 생물”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묘씨생’의 존재는 지구에 너무 많은 형태의 우연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은 언제나 특정 존재들에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으로만 이해되기 어렵다.

나아가 「묘씨생」은 도시가 생명을 화폐화하며 관리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곡씨의 작은 돌봄이 몸에게 닿지 않자, 몸은 예전에 마주쳤던 험악한 길고양이의 형상을 닮아간다. 몸이 “부근의 이미지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만으로 제거의 표적이 된 것은, 생명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폭력적인 자본의 논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몸을 향한 폭력은 개인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적 관리의 차원으로도 행사된다. 작중의 TNR 사업(중성화 사업) 역시 생명의 실질적인 보호나 돌봄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포획한 동물들의 몸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공식적으로 불임의 존재로 처리하는 폭력으로 나타난다. 몸의 배를 가른 이들의 “이것들이 나 있소 나 없소 고발을 할 거냐”라는 말은 동물들이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논리에 잠식된 지구는 공존이 불가능한 세계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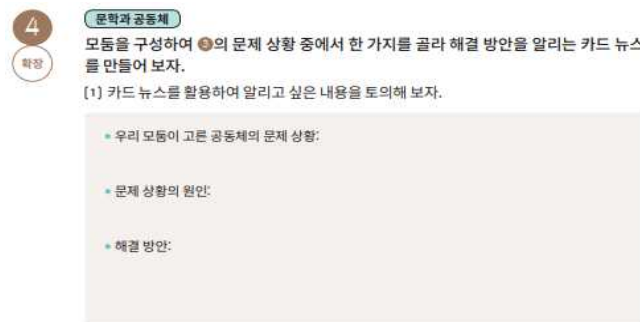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묘씨생」은 소외된 지구타자를 단지 연민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감각의 질서를 질문하게 하는 에코페미니즘 소

설이다.

『묘씨생』이 수록된 단원은 문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생과 공존의식”⁷⁸⁾을 형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위기,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⁷⁹⁾과 같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사회가 지향할 가치를 모색하도록 이끈다.

“풍요로워지는 물질에 반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⁸⁰⁾이 심화된다는 지적은 발전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의 모순을 드러낸다. 이는 오늘날 지구의 비대칭적인 풍요와 불평등한 현실을 학습자가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끈다. 『묘씨생』은 학습자가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⁸¹⁾를 성찰하게 하는 제재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도시의 풍요와 빛에 가려진 소외된 지구타자의 고통을 짚진하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어둠을 직시하는 동시대성을 함양하게 한다.

교과서는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제를 “동물 학대, 생명 존중 의식 부족, 사회적 약자 차별과 혐오, 약자 폭력, 가족 해체”⁸²⁾로 분류하고, 카드 뉴스 제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카드 뉴스에 들어갈 문구와 시각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해 보자.

[그림-2] 창비교육 『문학』 323쪽, 학습활동 4

이러한 분류는 작품의 핵심 쟁점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니지만, 문제를 항목별로 제시하는 방식은 각 문제가 발생하는 맥락과 구조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동물 학대, 약자 혐오, 폭력, 가족 해체는 서로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특정 존재를 배제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감정과 규범 그리고 불평등한 분배 구조가 뒤엉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결망을 탐색하기보다 문제를 유형화하는 데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가 문제의 원인을 복합적인 사회 구조에서 찾기보다 이미 정의된 문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카드 뉴스 제작은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카드 뉴스는 매체의 특성상 메시지를 짧고

78) 위의 책, 309쪽.

79) 위의 책.

80) 최원식 외 여럿, 『문학 교사용 교과서』, 창비교육, 2025, 315쪽.

81) 위의 책.

82) 위의 책, 321쪽.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논쟁적으로 탐구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과 맥락, 책임의 분배, 상충하는 관점들을 이해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경우, 학습자는 작품 속 갈등을 도덕적 메시지나 캠페인 문구 수준으로 축약하게 된다. 즉, 이러한 활동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의 차원에서는 볼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왜 반복해서 발생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한다. 쉽게 말해 문제를 가시화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문제를 구조적으로 독해하고 쟁점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또한 ‘날개’와 학습활동은 주로 작품 속에서 대립 구도를 보이는 인물들을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건의 전개와 갈등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문제를 인물 간의 대립이나 개별 행위의 차원으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판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왜 특정 존재가 반복적으로 폭력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그러한 폭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를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읽기는 인물의 태도나 성격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기 쉽다. 그러나 생태전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비인간, 강자/약자와 같은 위계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읽어 내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활동은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태도나 선택에서 찾도록 유도할 뿐, 폭력과 배제의 구조적 성격을 드러내는 문제제기식 읽기로까지는 충분히 확장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묘씨생」은 시대의 어둠을 포착하는 동시대성을 함양하는 생태페다고지의 문제제기식 교육의 제재로 사용될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현행 교과서의 주된 학습활동이 문제 상황을 가시화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데 머물고 있다면, 후속 활동에서는 이를 생태페다고지에 기반한 문제제기식 읽기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생태페다고지는 브라질의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에 기반한 비판적 교육으로, 그 본질을 문제 제기(problem-posing)에 둔다.⁸³⁾ 이는 생태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개별적 사건이나 도덕적 일탈로 환원하지 않고, 누가 피해를 감수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 어떤 제도와 규범이 그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는 교육적 실천이다.⁸⁴⁾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페다고지는 자본주의와 발전주의 담론 속에서 지속가능성의 이름으로 은폐되어 온 착취 구조를 가시화하게 하는 생태전환교육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길고양이 학대·살해 사건과 같은 지구타자의 위기를 검토해 보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를 혐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지, 누가 어떤 조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 과정에서 고양이의 생명과 감각은 어떻게 지워지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길고양이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사회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이 가시화될수록 오히려 제거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역설적 구조가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읽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일상 속 지구타자의 위기 사례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혐오와 배제가 작동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얽힘을 자각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게 한다.

83) Misiaszek, G.W. & Misiaszek, L.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copedagogy at the Intersections*. 아시아교육연구 17,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2016, 11-37쪽.

84) 위의 글, 15-16쪽.

이러한 실천적 읽기는 생태전환교육이 주목하는 ‘위기’의 독해와도 맞닿아 있다. 생태전환교육 담론에서 “근대 문명과 근대 교육이 처한 위기, 인류가 더는 지속 가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 자본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생태·사회적 위기”⁸⁵⁾와 같은 여러 층위의 위기가 반복적으로 호출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지구적 위기를 자연과학적 재난의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의 시스템과 문화 속 위기”⁸⁶⁾로 파악할 때, 생태전환교육의 비판적 성격은 더욱 선명해진다. 따라서 생태전환교육이 학습자에게 길러 주어야 할 역량은 지구에 감응하는 생태소양에 그치지 않으며, 위기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독해하는 생태페다고지 리터러시까지 포함한다.

생태페다고지의 리터러시는 환경 폭력이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지구를 퇴화시키는 현상, 과정, 구조를 읽어내는 일로, 인간의 삶을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재정의하고 환경정의와 탈성장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⁸⁷⁾

누가 고통을 감수하고 누가 이익을 취하는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 역시 “이해 타산적인 계산법”⁸⁸⁾에서 도출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묘씨생』은 학습자로 하여금 비인간 존재를 둘러싼 혐오와 배제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어둠 속에 가려진 지구타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생태소양과 동시대성을 함양하도록 이끄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지구의 위기를 자신의 삶과 불평등, 정치적 맥락과 연결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위기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태전환교육은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젠더, 지역, 생물종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학습자가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 가능한 돌봄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후속 글쓰기나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을 둘러싼 위태로운 삶들을 감지하고, 그러한 존재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가시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도덕적 당위를 되풀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어떤 생명이 보이고 숨겨지는지, 어떤 제도가 특정 존재를 배제하는지를 자각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전환교육은 감수성과 공감을 넘어 혐오와 폭력의 구조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브로콜리 펀치』와 『묘씨생』은 국어과 생태전환교육의 방법론으로서 에코페미니즘적 소설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제재라 할 수 있다. 두 작품은 상호 돌봄과 공존의 감각, 그리고 혐오와 배제의 구조를 함께 사유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지구적 위기를 자신의 삶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찰하도록 이끈다.

국어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은 생태학적 감수성과 공감을 넘어 혐오와 폭력의 구조를 성찰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관계 맺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비인간 존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불연속적인 세계는 다시 연결될 것이다. 생태문학, 특히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에 기반한 소설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85) 강화정, 「생태전환교육과 인류세 그리고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44, 한국역사교육학회, 2022, 116.

86) 위의 글, 117쪽.

87) Misiaszek, G.W., *ECOPEDAGOGY*. London, Bloomsbury critical education, 2022, 44-94. 강화정, 앞의 글, 116쪽에서 재인용.

88) 데이비드 오어, 김기대·이효진·이성희 옮김, 앞의 책, 33쪽.

생태사회로 나아가는 가교가 될 수 있다.

V. 나가며

(생략)

참고문헌

- 강화정(2022). 생태전환교육과 인류세 그리고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44, 한국역사교육학회, 105-142.
- 경상남도교육청(2024). 2024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
- 교육부(2021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 교육부(2021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신구대비표, 교육부.
-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
- 교육부(2022b). 국어과 교육과정(제2022-33호) [별책 5], 교육부.
- 교육부(2022c). 사회과 교육과정(제2022-33호) [별책 7], 교육부.
- 그레타 가드, 김현미 외 여럿 옮김(2024).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창비.
- 김용민(2014). 문학생태학.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김옥동(1998).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 남미자 외 여럿(2021). 생태문명으로서의 전환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경기도교육연구원.
- 데이비드 오어, 김기대·이효진·이성희 옮김(2013). 생태소양. 교육과학사.
- 루스 이리가레·마이클 마더, 이명호·김지은 옮김(2020). 식물의 사유. 알렘.
- 문교부(1981). 제4차 교육과정, 문교부.
-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옮김(2020). 에코페미니즘. 창비.
- 박수련(2022). 교육과정 내용분석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40.3, 한국교육과정학회, 1-25.
- 박언진(2024).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적 쟁점, 환경철학 37, 한국환경철학회, 133-155.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25).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5~'30) 발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 아미타브 고시, 김홍욱 옮김(2021). 대혼란의 시대. 에코리브르.
- 안종복 외 여럿(2021). 생태전환교육 목표 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이유리(2021). 브로콜리 펀치: 이유리 소설집. 문학과지성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선언, 환경부 보도자료, 2020.7.9.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환경부, 2021 환경공동선언문(안), 교육부 동정자료, 2021.9.13.
- 정현중(1992). 한 꽃송이. 문학과 지성사.
- 정호웅 외 여럿(2019). 문학. 천재교과서.
- 정호웅 외 여럿(2024). 문학. 천재교과서.
-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옮김(2010).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난장.
- 조르조 아감벤, 김영훈 옮김(2014). 벌거벗음. 인간사랑.
- 조지형·김용우 엮음(2010). 지구사의 도전: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서해문집.
- 최원식 외 여럿(2025). 공통국어1. 창비교육.
- 최원식 외 여럿(2025). 문학. 창비교육.
- 최원식 외 여럿(2025). 문학 교사용 교과서. 창비교육.
- 함민복(2020). 우울 씨의 일일. 문학 동네.

- 홍인영(2025). 동시대인을 기르는 문학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2010년대 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88, 한국문학교육학회, 387-427.
- 황규호 외 여럿(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 황정은(2012). 파씨의 입문. 창비.
- Ahmed, S.F.(2009). *An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Path Taken by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Jamaica a Case Study*.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 Brundtland, G.H.(1987).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neva, UN-Dokument A/42/427.
- Latour, B.(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Harvard University Press.
- Crutzen, P.J., & Stoermer, E.F.(2000),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41, 17-18.
- Orr, D.W.(2002). *The Nature of Design: Ecology, Culture, and Human Int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Diamond, I., & Orenstein, G.F., eds.(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Misiaszek, G.W., & Misiaszek, L.I.(2016).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copedagogy at the Intersections. 아시아교육연구 17,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11-37.
- Misiaszek, G.W.(2022). *ECOPEDAGOGY*. London, Bloomsbury critical education.
- UNESCO(2004). *UNESCO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5-2014)*. UNESCO.
- UN(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 Plant, J., ed.(1989). *Healing the Wounds: The Promise of Ecofeminism*. London, Green Print.
- Warren, K.J. (1997).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생태전환교육의 복원과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소설교육: 이유리의 「브로콜리 펀치」와 황정은의 「묘씨생」을 중심으로 토론문

임정빈(경상국립대 사회학과)

목 차

1. 이 연구의 강점
 2. 이 연구의 논쟁 지점
 3. 논문의 구성
-

1. 이 연구의 강점

국어교육학과에서 그런지 연구자는 문장력이 뛰어나고 학술적 형식의 글쓰기에 매우 능숙하다. 문학 작품 해설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자료 조사도 철저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역량을 신뢰하게 한다. 연구자로서 논문 형식의 글쓰기를 이만큼 잘할 수 있다면 논문 소재만 잘 찾을 경우 얼마든지 좋은 연구들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나머지 이 연구의 의의와 관련한 부분은 논쟁 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이 연구의 논쟁 지점

이 연구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담론 같은 대안적으로 여겨졌던 관점을 포함하여 자본주의, 가부장제, 인간중심주의 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문제작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토론문 역시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비취 논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1) 에코페미니즘인가, 생태주의인가?

이 연구는 에코페미니즘을 주된 이론적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요 연구 대상인 작품들과 ‘생태전환교육의 복원’이라는 문제의식을 보면 이 연구가 입각한 입장이 정말 에코페미니즘인지, 생태주의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생태주의라고 설명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페미니즘’이 외삽된 것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설령 외삽된 것이라고 해도 글쓴이가 워낙 글솜씨가 좋아서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굳이 연결점을 찾자보면 ‘반폭력’과 관련한 지점이 될 것 같은데, ‘반폭력’을 말하려면 생태주의가 아닌 에코페미니즘이어야 할까? 에코페미니즘을 주요 화두로 삼고자 한다면 설명이 보장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편, 오늘날 페미니즘은 공공연히 언급하기 민감한 일종의 낙인으로 취급되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이나 젠더 의제를 둘러싼 반감과 검열이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2)라는 서술이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뜬금없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실제 연구 대상을 다룰 때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기도 하다.

가부장제 개념도 본격적으로 다뤄지진 않지만 지나가듯이 나오는데, 가부장제는 성차별과 동의어가 아니다. 가부장제의 장은 연장자의 장자와 같고, 장자상속 및 나이주의와도 연관된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서구의 페미니즘 사상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어권의 Patriarchy를 가부장제로 번역해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유교 문화권의 가부장적 문화와 서구의 Patriarchy는 상이하다. 또한 역사상 모든 가부장제 사회가 반(反)생태적이었다는 설명이 성립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연구자는 “에코페미니즘은 이런 억압의 근원이 가부장제에 있으며 여성을 자연과 한데 묶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던 서구 이원론과 가부장제,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여성과 자연을 착취하는 토대가 가부장제라는 전제”(13)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서구의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지역 전통 사회의 목가적인 가부장적 농촌 공동체가 과연 없었을까? 그런 사례 하나만 제시되어도 억압의 근원이 가부장제에 있다는 ‘에코페미니즘적 전제’는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그런 얘기까진 없었지만, 가부장성 정도가 더 강하나 덜 생태 파괴적인 사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간략히 과언하고 넘어가기보다, 에코페미니즘을 말하려면 보다 정치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2) 청소년은 미래세대인가?

청소년을 미래세대로 호명하는 것은 청소년 인권 운동에서 아주 싫어하는 문화 중 하나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 각주 13번의 “청소년기후행동의 사례가 보여주듯, 선구적인 청소년들은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배제된 지구타자들과 연결되기 위한 행동을 모색하고 실천했다.”(1)는 내용도 자칫 ‘기특한 청소년’만 주체가 되어 ‘자각’하고 행동한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다. 이걸 지엽적인 면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연구자가 첨예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운동적 맥락을 고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드리는 바이다.

3)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다루는 방식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논증이 다소 늦게 수행된다는 느낌이 들어 약간은 더 미리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탈성장이라는 말은 인용문을 통해 단 한 번 나타나지만 지속가능발전과 자본주의적 성장 체제에 대한 비판이 곧 탈성장 담론으로 이어지는지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사이토 고헤이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는 탈성장 담론으로 나아가지만, 다른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지속가능발전 담론도 비판하지만 탈성장 담론도 비판한다. 연구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필자 또한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지속가능발전과 탈성장 사이의 이론적 문제는 더 정치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생태주의 및 인간중심주의와 관련된 가치론적 문제

“자연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비해 인간 문명이 얼마나 알팍한지”(9) 같은 가치 판단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탈인간중심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인간 문명이 얼마나 알팍한지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연구자가 실제로 알팍하다고 생각하는지, 글을 쓰다 보니 나온 표현인지 같은 것은 필자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알팍하다는 가치 판단은 연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가치론적 언술일 뿐이다. 그리고 논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에도 좋은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탈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연구자의 관점에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 판단적 언술이 과연 이 논문에 ‘필요’한 수준의 문장인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주의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논문에 인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탈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한다면 인권 개념도 폐기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필자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페미니즘이 인권의 가치로도 옹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 개념은 탈인간중심주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물권은 이 논문에서 단 한 번 언급되긴 했지만 이런 식의 권리 담론은 인권 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동반 성장한 측면도 크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인간 문명은 ‘알팍’하다고 정리될 만한 것인가. 또한 생태주의나 에코페미니즘의 역시 광의의 의미에서의 인간 문명의 산물이 아닌가. 비인간 동물은 생태주의나 에코페미니즘 같은 ‘사상’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5) 자연에 대한 낭만적 관점과 인류세 문제

연구자는 “‘홀로세’는 빙하기 이후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시기부터 1만년 전까지 이어진 조화롭고 안정된 지질학적 시기를 말하며,”(12), “지구는 조화로운 ‘홀로세(Holocene)’를 지나 혼돈의 ‘인류세(Anthropocene)’로 접어들었다.”(12)고 서술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지구의 모든 생물종을 돌봄과 책임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탈인간중심주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인간이 일방적으로 침범해 온 자연의 권리와 영역을 새로운 공존의 공간으로 재사유할 것을 요청한다.”(14)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관점은 생태에 대한 다소 낭만적 시각과, 그 반동으로 인한 ‘인간’에 대한 과장된 부정적 평가를 수반하는 듯하다. 우선 연구자가 자연/인간을 대립적으로 보는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서술이나 “이때 인간은 자연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연의 말을 듣는 주체로 변모한다. 이는 지배와 소유의 논리가 아닌 상호 응답의 자세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10)에서는 마치 대립적으로 보는 듯하고, “이원론을 극복하고 인간이 지구와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비인간 지구타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8)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듯하다. 필자의 독해 부족 탓일 수도 있지만, 독자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을 보강하면 좋겠다.

아무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서술로 돌아가면, 연구자는 자연=긍정적, 인

간=부정적이라는 단순한 도식에 갇힌 서술을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지구의 모든 생물종을 돌봄과 책임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탈인간중심주의”(14)라는 서술을 보면, 탈인간중심주의는 곧 지구의 모든 생물종을 돌봄과 책임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게 된다. 그런데 인간이 없는 자연 상태를 상정해보면, 그런 생태계가 과연 돌봄과 책임의 관계 속에 있는지는 의문시될 수 있다. 예컨대 먹이사슬을 단순히 돌봄과 책임의 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런 돌봄과 책임의 관계는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가꾸는 상태를 상정한 것이 아닌가? 연구자는 ““(관계적) 자아 개념은 행위자적인 자연과 역동적으로 상호 연결된 것”으로, 지구타자들을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시도이자 변혁이다.”(14)라고 서술하는데, 이런 서술은 인간이 지구타자들을 ‘인간 공동체’에 편입하여 동물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가꾸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즉 연구자는 자연을 지나치게 낭만화하지만, 그때 자연은 사실 인간이 정성과 노력을 들여 가꾸어나가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긍정적, 인간=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구도는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나아가 연구자가 조화로웠다고 지칭하는 홀로세 시기에는 분명 인류도 존재하였다. 인류세는 농업혁명 시기, 혹은 산업혁명을 중시하는 자본세, 계급 발생을 중점으로 보는 계급세 등의 담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류세에 대한 논의도 인류가 어떤 문명 시기에 접어들었는가를 중심으로 보다 첨예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6) 복싱 선수는 폭력적인 사람인가?

필자는 「브로콜리 펀치」 작품을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와 별개로 연구자가 복싱 선수를 그저 폭력성을 띠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물론 나는 복싱 선수라는 직업 또한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과도한 스포츠 경쟁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한다. 그러나 해당 스포츠나 격투기를 그저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우려를 표한다. 필자 또한 격투기를 즐기지만 격투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격투기는 폭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오히려 대인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사교성과 예의를 배울 수도 있다. 물론 시합은 경쟁하는 장소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해당 문학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논문에서 복싱 선수를 그저 폭력적인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면 이 서술은 보다 숙고하는 것을 권유드린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관점이고, 설명을 더 정교하게 해서 연구자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터이니 말이다.

7) 제1세계와 제3세계

마지막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제1세계나 제3세계 같은 단어들은 사회과학계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위계 설정적인 개념들이다. 그렇다고 이 ‘착취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개념을 사용할지도 쉽지 않지만 대체되는 용어들이 없지도 않고,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터이니 고려해볼 것을 제안드린다. 또한 1세계-2세계-3세계는 원래 냉전 시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1세계, 소위 자유세계)-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2세계)-나머지 비동맹국들(3세계) 이 체계를 가리키기

위해 고안된 용어들이다. 다른 표현 방식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 체계를 가리키고자 성립된 용어들이라는 게 정설이며, 따라서 구미나 ‘선진국’을 1세계와 혼동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오류이다. 한국도 냉전 초기부터 미국의 ‘동맹국’이었으므로 당연히 처음부터 1세계였다(물론 북한은 2세계다). 즉 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3세계로 분류하는 논의들도, 그런 논의들이 아무리 많아도 엄밀히 따지면 전부 오류인 것이다. 그럼에도 따옴표친 ‘제3세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소 관행적이나, 이 논문이 매우 정치하게 ‘위계’를 반대하고 있기에 참언하였다.

3. 논문의 구성

부제를 봤을 때 문학 작품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라고 제시되지만, 구성과 분량상 문학 작품 분석이 너무 늦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문학 작품 분석을 더 일찍 시작하고, 중간에 논의를 섞거나 뒤로 배치하여 작품 분석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변경하면 어떨지 제안드린다.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의 확장: 대구지역 독서모임 A를 중심으로¹⁾

김민정(계명대 여성학과)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 III. 연구결과
 - IV. 결론
-

I. 서론

1. 연구 배경

201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여성운동단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출현하였다. 메갈리아 및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페미니즘 운동의 양상 또한 변화하였다. 손희정(2015)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영화에서 기존 시리즈의 연속성을 버리고 몇 가지 기본 설정만 유지한 채 완전히 새롭게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리부트(reboot)’개념을 차용하여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페미니즘 문화운동과 2015년 이후 발생한 운동 사이의 단절과 연속성을 동시에 인식하기 위한 개념으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관계적 실천과 공간 구성으로 확장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역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운동의 경로와 발전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김혜경, 2022). 기존 연구들은 온라인 공간을 주요한 거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운동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연구나 자료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페미니즘 담론이 수용·변형·재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단위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특성상 물리적 ‘지역’의 개념이 크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지역의 청년 여성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공

1)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미완성인 원고입니다. 외부인용을 삼가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간을 새롭게 구축하였다(최나현, 2022). 이는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대면적 만남과 공동의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며, 지역 여성/청년들이 왜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김태영·육주원, 2022). 이 과정은 개인의 인식 변화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페미니즘적 언어와 감각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실천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전주, 부산, 울산, 대구, 진주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사건 이후 형성된 페미니즘 그룹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본 연구자가 연구 공간으로 선택한 대구 지역에 대해서도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의 여성 청년 페미니스트들의 삶을 들여다 본 연구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즘과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김태영·육주원, 2022), 대구 지역에서 형성된 페미니즘 독서모임, 페미니즘 그룹,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의 형식을 통해 페미니즘이 학습되고 실천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보수적인 지역성으로 설명되는 대구에서 여성/청년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고,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며, 이를 일상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그에 따른 인식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대구 지역에서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공간과 모임이 형성되었다. 대학 내 페미니즘 동아리,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사건 이후 생겨난 페미니즘 액션 그룹, 독서모임 등은 대구여성운동단체의 기존 회원 모임과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생성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며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간들이 대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고, 페미니즘을 함께 학습하며, 페미니즘적 실천과 인식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양한 페미니즘 실천 방식 가운데 기존 여성운동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과 모임 중에서도 ‘독서모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독서모임이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페미니즘 독서모임은 단순한 독서 활동을 넘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상 속에서 페미니즘적 실천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한다.

허윤(2018)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로 페미니즘 독서모임을 지적하며, 페미니스트들의 적극적인 독서 행위를 강조한 바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독서모임에서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수동적 독서를 넘어, 책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 행위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독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취미를 넘어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위적 실천(performance)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다뤄진 ‘나’를 표현하는 방식, 수평적인 취향 공동체로서의 ‘독서모임’연구는 이러한 독서 행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행위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모임들로 발현된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독서모임에 대해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잘 다뤄지지 않았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 독서모임을 통해 구성원들은 페미니즘적 언어를 익히고, 자신의 생애 경험을 재 해석하며, 상호 간에 임파워링(empowering)되는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이러한 경험은 페미니즘적 일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과정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대구 지역의 페미니즘 독서모임이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페미니즘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페미니즘 독서모임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역 사회 내에서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페미니즘 운동과 실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온라인을 주요 거점으로 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오프라인 독서모임이 어떤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페미니즘적 실천과 일상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 생태계의 일환으로 제도 밖 여성주의 독서모임이 갖는 확장성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구 지역에서 형성된 페미니즘 독서모임을 사례로 하여, 지역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일사례연구(single case study)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현상을 그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복잡한 사회적 실천과 관계적 경험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인, 2021). 특히 단일사례연구는 특정 사례가 갖는 고유성과 맥락성을 중심으로 현상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며, ‘분석적 일반화’를 통해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인, 2021). 또한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현상과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자의 경험과 의미 구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접근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구여성주의독서모임 A’를 단일 사례로 선정하여, 독서모임을 통해 형성되는 페미니즘 정체성과 일상적 실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독서모임을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닌,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구성되는 관계적 실천의 장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료 수집은 문헌 조사와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조사를 통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여성운동 변화와 독서모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심층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독서모임 참여 경험, 페미니즘 학습 과정, 정체성 변화, 일상적 실천 경험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1인당 1회 실시되었으며, 약 60~9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고, 이후 전사 과정을 거쳐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의 발화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승인번호:40525-202502-HR-106-02).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연구 목적, 자료 활용 방식, 익명성 보장 및 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모든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는 익명 처리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가 불편함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하거나 응답을 거부할 수 있

음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2. 연구 대상 참여자

본 연구는 2015년 4월부터 2026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독립적인 오프라인 페미니즘 독서모임인 ‘대구여성주의독서모임 A’를 사례로 하여 대구 지역 내 페미니즘 실천의 한 형태로서 ‘독서모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모임은 2015년 4월 시작 단계에서는 청년정치단체의 회원 소모임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회원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성주의 독서모임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는 단체 소속도, 회원제도 아닌 독립된 모임으로 운영되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운영되었던 독서모임은 2020년 상반기부터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저녁으로 정기 모임이 주 2회 운영으로 변경되었다. 참여 구성원들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나, 적게는 3~4명, 많게는 8~10명의 인원이 정기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SNS 그룹방에는 이주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12명의 구성원이 참여 하고 있다. 또한, 이 독서모임의 특성은 성별 및 기타 정체성에 관계없이 페미니즘을 함께 공부하고, 페미니즘 일상을 나누고자 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적인 모임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매월 두 차례의 정기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이를 바탕으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생애 경험을 재해석하며, 사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일상 속 페미니즘 실천을 경험하고 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연령	성별	직업	참여기간	현재 참여
1	34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대학원생	21년 6월~23년 7월	X
2	29	남성	직장인	22년 4월~25년 12월	X
3	36	여성	콘텐츠 마케터	19년 2월~25년 3월	X
4	31	여성	학원 강사	21년 6월~현재	O
5	40	여성	폭력피해 지원 기관	18년 11월~현재	O
6	33	여성	자영업	17년 8월~21년 1월	X
7	29	여성	초등 교사	18년 8월~21년 8월	X
8	32	여성	취업준비생	18년 2월~현재	O
9	28	여성	직장인	22년 10월~25년 3월	X
10	33	여성	초등 교사	15년 4월~17년 2월/ 21년 5월~25년 12월	X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대구여성주의독서모임 A'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구성원으로 현재 참여 여부는 상관없으며,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10인은 모임에 참석할 때는 각각 20~30대 연령대였으며, 현재는 20~40대이다. 또한 성별 정체성은 모두 여성이지 않았고, 남성 및 논바이너리 정체성이 포함되었다. 지정된 법적 성별을 넘어 자신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으로 기입하여, 기존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성별 정체성을 국한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의 직업은 교사, 자영업, 학생, 취업 준

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정체성과 위치성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였다. 참여 기간 역시 2015년 시작부터 참여한 이가 있거나 2020년 이후 참여한 이가 있는 등 다양하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약 8년까지 참여 기간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서로 다른 정체성들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독서모임을 통해 어떻게 페미니즘적 일상을 실천해왔고, 페미니즘을 공부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은 1회 진행되었으며, 약 60~90분 정도 소요 되었고, 현재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대면과 온라인 방식 모두가 병행되었다.

III. 연구결과

1. ‘나’에게는 ‘우리’의 페미니즘 모임이 필요해 : 독서모임에 참여한 계기

독서모임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모임에 합류하게 된 경로와 계기는 2015년 4월, 처음 만들 어졌을 때부터 함께 시작했던 초기 멤버인 <연구참여자 10>을 제외하고는 친구 소개, 어플 등 SNS, 학교 등 각종 게시판, 강연회 등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

“투쟁 현장을 다니면서 뭔가 좀 여성 혐오적인 면모들을 마주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 같 고요. 우리 그럼 <페미니즘 도전>이라도 읽어 볼래 한 게 소모임으로 시작했던 거고.”(<연구참여 자 10>)

‘대구여성주의독서모임 A(이하 A)’는 2015년 4월, 청년정치단체 소속으로 지역의 투쟁 현 장들에 연대활동을 하던 여성 청년 활동가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투쟁 현장 속에서 청년 활동가, 특히 여성 활동가들의 외모나 성역할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좋은 소리라는 이유, 농담 등으로 여전히 많이 존재했던 시기였던 때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페미 니즘 리부트’라 일컬어진 페미니즘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었던 시기로 문제의식이 발생하였 고, 이는 곧 회원 소모임인 여성주의 독서모임으로 구성되었다.

‘A’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 중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10명은 모두 겹치는 시기에 활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임을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이 독서모임에 참여한 계기 역시 10개의 이야기가 각각의 개별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만나지는 결이 있기도 하다.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 이들은 온라인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페미니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참여 계기는 개별적으로는 서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페미니즘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타자와의 만남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결을 공유한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같은 대학교 친구가 게시물을 책모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페미니즘 책모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인터넷에서 미러링 혹은 페미니즘에 불이 일어나던 시기가 있었습시다. 그 이후 굉장히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8>)

“퀴어 축제를 처음 참가했어요. 제게 어떤 퀴어 사이에 이어짐 같은 게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 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주최 측에서 알려주었고, 퀴어 페미니스트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선택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사람들이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

게 제일 컸던 것 같네요.”(<연구참여자 9>)

“처음 오게 된 계기는 집회²⁾이었고 그거를 트위터에서 봤어요. 집회 후 당시에 조금 무서워서 같이 참여했던 이랑 얘기를 계속 하다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하다가 이 독서모임을 있다고 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일단 트위터의 모든 이슈가 페미니즘 얘기였고 저의 일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도 있고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었던 때라서 그래서 페미니즘 이슈에 관련된 오프라인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하는 거나 온라인으로만 말고 실제로 사람들을 보고 싶다.”(<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시기 ‘A’를 알게 되었고, 모임에 참석하였지만 모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페미니즘’이나 ‘퀴어’에 대해 대면하여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가 있었다.

“대학원을 입학한 계기가 일상에서 페미니즘 의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할 안전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가도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모임을 가자.”(<연구참여자 1>)

페미니즘 의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연구참여자 1>의 경우 대학원조차 제약이 작동하는 공간이라 여겨 학교 밖의 페미니즘 모임을 찾게 되었다. 이외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독서모임을 참여하는 데 비슷한 이유들이 작동하였다. 어플을 통해 온 <연구참여자 2>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할 일이 없기도” 했고,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온 <연구참여자 3>은 커뮤니티에서만 아니라 “조금 더 면대 면으로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었어.”라고 하였다. 이는 트위터를 통해 페미니즘 의제를 주로 접하던 <연구참여자 4>의 “온라인으로만 말고 실제로 사람들을 보고 싶다”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경험을 나누고 페미니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을 ‘나’만이 아니라 복수형의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독서모임에 오게 되었다.

이러한 진술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이미 일정 수준의 페미니즘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인식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계기를 통해 모임에 참여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의 차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유하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독서모임 참여는 단순한 학습 참여가 아니라, ‘나’의 경험을 ‘우리’의 언어로 확장하고자 하는 관계적 실천의 시작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안전’ 공간으로서의 페미니즘 독서모임

1) 대구에서 여성/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대구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나

2) 2021년 5월 17일에 진행된 “혐오에 맞서는 작은 행동 2021” 집회, (출처: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페이지)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대구에서 나고 자랐거나, 어린 시절부터 대구에서 살아와 ‘비교분’이 잘 없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1>은 “비교할 데가 없어서. 대구 경북의 감각이 저한테 없고 공기 같은 거”라서 이런 질문이 의외로 어렵다고 했다.

“이게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야 할 텐데, 비교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구하면서 최저임금을 안 주는 걸로 많이 언급되잖아요. (...중략) 대구라서 그런지 의문이긴 한데, 저희 가정이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차별 받은 게 분명히 있을 건데 너무 당연해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사 지낼 때도 음식은 다 여성들이 만들고 먹을 때 남자네 여자네 따로 먹었는데 도요”(<연구참여자 4>)

“대구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살면서 보수적이다, 생각은 했지만. 대학생 때, 선거에 나오고 싶었는데 회장은 남자가 하고 넘보지도 못하고 부회장 선거에 나갔어요. 이후 저랑 좀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더 기회가 왔을 때도 똑같이 고민했어요. 회장은 남자 거다, 에 대해서 친구들도 모두 그냥 그런 느낌.”(<연구참여자10>)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계속 살아온 도시라서, 비교할 사례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원가족이 그렇지 않아서 등 대구에서 실제 삶에서 보수적인 지점을 때면 느끼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 모두 대구 ‘안팎’으로 존재하는 대구의 보수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대구여서 더 특별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보수적인 공간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구에서 보수성은 너무 많이 느끼지만 남초 회사들을 다녀본 이후에 그냥 되게 뭐랄까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해야 하나. 그들만의 리그”(<연구참여자 6>)

“대구, 경북은 늘 한 정당만 찍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답답함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긴 하죠. 일상을 살아갈 땐 모르다가 선거철면 되면 저 사람도 윤석열 찍었겠지 그러면 이 사람을 온전히 본다고보다는 필터가 쓰고 보는 거예요.”(<연구참여자 1>)

남자들이 대부분인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 6>은 남성들의 관계나 문화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카르텔을 느끼면서 보수가 심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1>은 정치적 측면으로 대구의 보수성을 설명하며 인지하고 있었다. 교환 학생 경험으로 대구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며 서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5>의 경우 대구 지역이 보수적이었음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하였다.

“대구 지역은 보수적이었습니다. 대학교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에 00여대에 교환 학생으로 있었어요. 확실히 대학 분위기나 개설돼 있는 교과목도 다른데, 그때 당시에 00여대에서는 페미니즘 관련해서 읽거나 여성 서사를 다루고 있었어요. 동아리 자체에서도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뭔가 좀 열려 있는 느낌이었고. 대구에서는 이런 주제에 대해 잘 몰랐고, 관련된 게 있더라도 좀 더 경직된 분위기였거든요.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달라. 페미니즘이라고 막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라는 느낌. 대구에서는 보기 힘들다 이런 느낌.”(<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대구 지역의 보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과 비슷하게 대구에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성으로/페미니스트로 겪는 경험을 살면서 모두 경험해보았고, 대구에서 여성으로/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건 대구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성으로서 겪은 것은 성추행, 성희롱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기억나는 성추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중략...)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것도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는 교제 폭력으로 너무 괴롭고 내가 겪은 게 무엇이지? 정의 내릴 수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페미니즘 책을 읽으면서 강간으로 해석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죠.”(<연구참여자 8>)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이인데,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했을 때 오해할까 봐.”(<연구참여자 4>)

“나는 정말로 대구 여성이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아닐 수가 있지?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대구에서 페미니스트로 나를 명명하는 게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던 거 같아. 항상 무서웠어. 들킬까봐 나는 내가 시위를 나갔을 때도 마스크랑 선글라스 다 끼고 나갔거든. 그리고 심지어 가방도 아빠 가방 들고 갔어. 혹시나. 그걸로 알려질까 봐 찍혀서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서웠고. 우리 집 문제도 가부장제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 집이 딸딸 딸 아들이고, 엄마의 무재로 언니들이 학업을 못 다녔잖아. 언니들이 우리 돌봄 노동을 해야 하니까. <82년생 김지영> 그것처럼 우리 언니가 딱 그거.”(<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대구 여성이 모두 페미니스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에서의 페미니스트를 향한 시선으로 일상이 자유롭지 않아 늘 무서웠고, “동료를 찾고 싶어”서 독서모임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페미니스트라는 발언은 실제로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 것도 과할 정도로 조심하고 있기도 하고요. 페미니즘도 저는 뭐랄까요? 소수성을 띠다고 생각해요. 쿼어 정체성처럼요.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외국인이라는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쿼어, 페미니스트라는 소수자 정체성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외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회는 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업종도 보수적인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9>)

“페미니즘이 나를 설명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언어를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들이 대구라는 공간이나 공간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서울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긴 좀 다양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언어들이 교정 받아야 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연구참여자 5>)

대구와 한국을 떠나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연구참여자 9>는 ‘외국인’이라는 소수자성만으로도 버거운 데다 보수적인 나라에서 ‘여성’ 특히 ‘쿼어’,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구참여자 5>는 페미니즘으로 하여금 행복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았지만, 그것이 대구와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8>은 “대구에서 여성으로 심지어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건 내 손해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은 페미니즘을 단순한 이론이나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실천적 과제로 만든다. 동시에 이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 즉 발화와 관계가 가능해지는 ‘안전한 공간’에 대한 강한 요구를 형성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대구에서 여성/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경험은 단순히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발화의 제한과 정체성의 은폐, 그리고 관계적 고립의 경험을 통해 ‘안전한 페미니즘 공간’의 필요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우리’의 ‘안전’한 페미니즘 공간

<연구참여자 10>은 대구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를 생각하면 갑갑하고 두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성으로 대구에서 사는 거,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이 일종의 어떤 동력이기도” 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여성이란 어떤 정체성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그는 “A”모임을 하면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였으며, “안전한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모임에서 중요한 지점은 위계적이지 않은 거.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다는 감각. 내 말이 틀릴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구성원들에게 위협이나 무시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독서모임에서는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꼈기에 좋았다”고 했다. 다른 연구참여자의 인터뷰에서도 독서모임은 “안전”을 만드는 요소로서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 모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퀴어로서든 페미니스트로서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는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도 된다는 그런 편안함이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

“거리낌 없이 공유할 수 있었던 공간이 된 거는 그 공간에서 주는 안전함과 편안함 때문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내는 일상이랑 너무 다른 낙원 같은 곳이었어.”(<연구참여자 3>)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삶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 자체가 그 공간을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해도 완벽히 이해받거나 공감 받는 건 아니라도, 최소한 안전한 것 같다는 느낌이 컸기 때문에 모임에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랑 그런 안전한 공간을 같이 만드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7>)

“제일 중요한 거 소속감을 강하게 느꼈어요. 일단 페미니즘이나 퀴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 모임이 계속 열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졌습니다. 상처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보듬어주는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연구참여자 9>)

“내 몸에 대한 긍정적 생각. 여기 이 부분이 모나도 긍정적으로 그냥 나는 난데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이후에 나를 되게 자존감을 높여 만들어줬던 것 같다는 게 큰 의미였어요.”(<연구참여자 6>)

기존에 이 독서모임 외에 주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대구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었고, 그런 곳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즘 모임이라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었으나, 무엇보다 그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안전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형성된 안전감각은 소속감이라는 안정감과도 연결되었고, 나 자신의 긍정으로도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랜캠 모임은 지정 성별 남성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남성성에 부과되는 가치들을 항상 좀 경계했어요. 그런데 나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막 억압으로 다가오니깐 힘들었고 반면에 모A모임은 그런 것도 다 공유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 의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나오는 무의식과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은 해도 상처가 되게 후벼 파지 않았거든요. 그런 관용적 태도가 좋았고, 그럼에도 논쟁적인 지점이 있죠. 그 다름을 자유롭게 표현 못하는 데가 훨씬 많잖아. 그럼에도 부록하고 조심스럽지만 말할 수 있어. 말해도 나를 나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공통의 감각, 약속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 (...중략) 이 모임만은 아니지만 페미니즘 모임을 하면서 나 자신을 좀 더 선명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을 해석하는 언어들을 독서모임에서 알려주

있어요. (...중략) 설령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흘러들지 않는다는 느낌. 생각해 놓고 있다가 나의 고민과 맞춰보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이런 지점이 되게 좋았어요. 안전하다.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공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1>)

래디컬 페미니즘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1>은 “A”와 비교하였을 때,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것은 같지만, “굉장히 결이 달랐다”며, 독서모임을 통해 “내가 찾던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세상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흑백 세상에 있다가 컬러가 되는 지점인 느낌을” “A”독서모임에서 받았다고 했다. 기존 여성운동단체나 대학원에서 ‘트랜스젠더’ 의제로 참여하거나 마음 나누기 어려웠던 그는 모임을 참여하면서 “트랜스를 이해하는, 배제하지 않는 페미니즘 모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안전은 보호 조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전은 어떤 위험을 함께 인지하고 누구에게 응답하며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고 보았던 김민정·장지은(2025)은 ‘응답적 안전’이란 개념으로 시국대회에서의 시민들이 상호의존과 돌봄의 관계 속에서 구성한 안전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여성주의독서모임 A’에 참여한 구성원들이었던 연구참여자들 역시 ‘응답적 안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안전’은 진공상태에 저절로 주어지거나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물론 이끄미나 초기 구성원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작동한다. 독서모임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이야기했던 ‘안전’이라는 것은 서로의 존재에 응답하며 함께 살아남는 수행적 행위인 것이다(김민정·장지은, 2025).

그러한 안전감각의 체화와 믿음은 이 모임의 운영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대구여성주의독서모임 A’의 참가 대상은 제한이 없다. 기존의 여성운동단체처럼 회원조직이 아니니 회원여부는 당연히 상관없고, 그 외에도 특정성별 혹은 특정 나이 등 참가에 있어 특정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페미니즘적 일상을 나누고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모임으로 운영된 모임에 대해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처음에는 고민지점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모임에 참여하면서 안전을 직접 체화하고, 스스로 그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이 모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떤 모임은 목소리나 신분증을 인증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모임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게 좋았는데, 걱정하는 게 뭔지도 알겠지만 그건 사전에 다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검열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모여서 뭐가 안전하다고 믿는 작은 광장인거죠. 작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발언을 하고 귀담아 듣고 이야기를 조율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공동체이지 않을까. 이 모임은 펜스가 없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감각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거리를 좁혔다가 넓혔다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어요.”(<연구참여자 7>)

“오히려 이렇게 열린 모임이 좀 드물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제하는 게 더 쉽거든요. 배제하고 폐쇄하는 게 더 쉬운데 우리는 어려운 선택지를 골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열린 모임으로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8>)

“흔히 페미니즘 모임하면 지정성별 여성으로만 구성하기 마련이거든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저기는 벨 훅스가 말한 모두의 페미니즘, 그걸 실현하는 곳이구나! 그런 모임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죠.”(<연구참여자 1>)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정 성별 여성뿐 아니라 더 많은 성별이 스며들면 좋은 거잖아요. 여성, 남성,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 들어야지만 다양성도 되고.”(<연구참여자 5>)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페미니즘 관련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 모임은 오프라인 모임뿐 아니라 SNS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기반 모임들도 활성화 되었다. 모든 모임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페미니즘 모임이 참가 대상을 지정성별 여성으로 제한하였고, 참여에 있어서도 인증 방식을 도입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특정 조건을 갖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린 모임이라는 것은 자칫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떠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모든 곳에서 ‘위험’이란 것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누가 되었든 모두 무결하지 않으며, “A”모임 역시 무결하다는 전제를 갖지 않고 노력하기 위함이었다.

“페미니즘 책모임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열린 모임으로 하면 누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끄미가 포용적인 사람이고, 교차성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문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열린 모임으로 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거든요.”(<연구참여자 10>)

“누구한테나 열려 있으니까 저도 들어온 것이지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트랜스 혐오 같은 것으로요. 그런 지점의 어떤 피곤함도 있고요. 저는 이 모임이 아무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저는 그 속에서 페미니즘은 정말 여러 사람들을 아울러주고 포용하는 학문이라고 많이 느꼈어요.”(<연구참여자 9>)

“처음에는 몰랐지. 처음에 참여하고 끝나고 물었나? 이 모임은 여성만 있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우리 그러고 성매매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남성이랑 이런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 좀 불편해 했었지.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 그 뒤부터는 남성에게도 새 멤버다, 했던 것 같아. 구성원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나면서 남성 페미니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 생각도 처음 하게 됐지. 나는 위선일 거라 생각했어. 나중에 같이 만나면서 좀 달라졌던 것 같아. 우리는 동료야 필요해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연구참여자 3>)

“양가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 지낼 수 있었던 거 같기도 하지만. 처음 뵈는 분들이 모임에 나올 때마다 속으로 항상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저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남자로 볼까? 아니면 그냥 다. 어쨌든 페미니즘이나 퀴어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일 테니까. 그냥 알아서 트랜스 남성으로 보실까 이런 불안도 있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 뿐만은 아니잖아요. 모임을 거쳐 간 남성이. 그래서 남자들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어야지.”(<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10>의 말처럼 “아예 열린 모임으로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생각이 들만큼 한국 사회에 여성/페미니즘 의제에 향한 과한 비난들과 폭력들이 존재했기에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처음부터 걱정이 전혀 없거나 의식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단일하고 일방적인 정체성으로 정돈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로 국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모임에 참여하며 다양한 책을 함께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구참여자들 모두 ‘열린 모임’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3.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로서의 여성주의 독서모임

독서모임이기에 당연히 책 읽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에 단적으로 일어난 큰 변화는 정기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행위이다. <연구참여자 3>은 혼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으며, “책을 읽으니깐 확실히 좀 똑똑해졌어요. 진짜 발제도 쓰고 하니깐 학업 성적도” 좋아졌다고 했다. 특히 “여성 의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고, 공부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하였다. “A” 모임은 모임을 시작한 2015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진행하였고, 첫 모임 때부터 발제를 도입하여 페미니즘을 ‘공부’하였다.

“책을 정기적으로 읽었다. 그건 진짜 큰 도움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놓으면 안 돼. 그게 저희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연구참여자 10>)

“제일 많이 책을 읽었던 시기고, 그리고 어려운 책이든 여성주의 책이든 많이 읽었고 내 삶의 그런 고집들을 좀 유연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어. 왜냐하면 서로 토론을 하는 기획도 있었고, 따라가기 급급했지만, 모임에 참여하기로 한 건 후회 없지. 지금 살면서도 근간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되게 자부심처럼.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배워서 좋았고. 진짜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연구참여자 6>)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일단 페미니즘 책을 완독하는 거가 있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좀 편독이 심해서 소설책을 주로 읽고 좀 사회과학 서적 같은 거를 읽는 힘이 부족한데 그런데 페미니즘에는 관심이 많고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으면 페미니즘이라는 사회과학 저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랑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그 모임의 발제를 하는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임을 가야 되니까. 책을 완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스터디 하듯이 하는 게 저한테 어떤 동기 부여가 되는 지점이었고.” (<연구참여자 7>)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연구참여자 중에서 이 모임 외에도 계속해서 페미니즘 책읽기를 하고 있는 이도 있고, 잘 읽지 못하는 이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 독서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삶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서 등을 읽을 때는 꼬박꼬박 발제를 하였던 경험은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언어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모임에서 읽은 다양한 책을 통해 “페미니즘이라는 게 단지 페미니즘이 아니라 쿼어 페미니즘으로서 뭔가 더 교차하고 더 뒤섞이고 더 확장되는 것을 저한테 경험하게 해줬고 그 확장되는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좀 뻗어가는 가지처럼 단단하면서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다고 했다.

1) 혼자가 아닌, ‘함께’ 읽는다는 것

<연구참여자 10>은 “책을 통해서 페미니스트 동료들을 만나는 거”라고 했다. 물론 책은 혼자서도 읽을 수 있고 혼자 읽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책을 쓴 저자와의 시간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읽기’를 통해 각자의 생각도 알게 되고, 서로를 공감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확장해나갔고 새로운 공부를 통해 삶의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받았다.

“책읽기는 저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확인하는 거 자체가 페미니즘적 일상을 살아간다는 감각이 들고, 그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면 더 풍부한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책을 같이 읽으면 관계로서도 서로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 책을 함께 읽는다는 행위는 평생 놓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일단 좀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싶었던 마음이 큰 사람이어서 학술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서로 답해주고 그런 게 제일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10>)

“에이즈 교육 제일 기억에 남고. 그거는 우리 강사 초빙해서 들었던 교육이었잖아. 나는 그전엔 몰랐던 말이야. 나도 모르는 편견도 되게 많았고 진짜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 그리고 우리 엘라이 교육도 들었잖아. 그것도 좋았고. 젠더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거 그게 바뀌고 교차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 형성이 달라진 거. 가치관이 바뀌니까 결국 내 선택들이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내 환경이 바뀌게 되고. 나는 진짜 다 바뀐 것 같거든.” (<연구참여자 3>)

“똑같은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험이나 드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함께 읽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읽고 책 덮는 걸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경험을 나누고 생각을 얘기하고 하면서 각자가 가지는 그런 세계를 살짝 엿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2>)

“책을 잘 안 읽긴 해도 조금이라도 읽고 가는 게 저한테는 진짜 소중했거든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고 싶고 특히 내가 계속 관심 있는 주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4>)

독서 모임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고, 구성원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때때로 다양한 교육이나 강연을 통해 삶의 가치가 변화하였고,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연구참여자 3>은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책 얘기만 아니라 자기 경험 얘기. 남들에게 이해받고 공감해주고 이러니까 약간 심리적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함께 읽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똑같은 내용을 읽어서 얘기를 나누더라도, 함께 읽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읽기는 서로의 다른 말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을 헤아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매번 모임에서 함께 읽기가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구나 라고 헤아릴 때 그때 함께 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기는 되게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연구참여자 9>)

또한, 함께 읽는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 9>의 말처럼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어떤 책인지, 이야기 주제가 무엇인지,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공간은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이거나 이해를 나누게 될지 확답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모임은 그때그때 참여하는 이들의 의지가 발현되는 것이고, 그 의지라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맞닿아져 ‘함께 읽기’의 의미가 더해진다.

“함께 읽는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읽어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건 이제 좀 더 촘촘하게 어 예 언어를 찾아가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좀 지식적으로 촘촘히 쌓이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언어를 찾는 데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연구참여자 8>)

“책을 읽으면 어렵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끝까지 못 읽어도 논리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다음 스텝을 얘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같고. 언어를 찾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독서모임에서 어떤 공부를 처음에 했을 때 공부가 많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나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생긴 느낌 그리고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느낌, 시각이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5>)

혼자가 아닌 ‘함께’ 읽는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언어’를 찾고, 갖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독서모임의 시작을 함께 했던 <연구참여자 10>이 연대로서 찾아왔던 투쟁 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페미니즘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 서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 것처럼 이들은 페미니즘 그리고 독서모임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9>는 페미니즘을 통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책을 읽으며 더 가까워졌다고 했다. “다정하게 여러 삶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학문”으로서 페미니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가 닿았다.

“일상적인 페미니즘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책을 통해서 약간 충전되는 느낌이 있죠. 일을 하면서도 페미니즘으로 이 사람이 자기 회복이나 이런 걸 잘 했으면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라고 해야 하나? 창고 같은 느낌이야. 책이나 페미니즘 책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림 한 구절씩 꺼내가지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기 위한. 책이 뭔가 파고든 한 사람의 생각을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하나의 나무처럼 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면 책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옆에서 이제 그걸 보고 또 다른 가지들을 피워가고 그걸 이제 같이 이렇게 뭔가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 의미로 피톤치드가 나오기도 하는 거지. 혼자 뻗어도 좋은데 조금 약간 그러면은 피톤치드가 부족해.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하고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를 얻었고. 물론 반대적인 생각은 엄청 클 수 있지만 그림 그거 뭐 다른 침엽수인가 뭐 활엽수죠.” (<연구참여자 5>)

“똑같은 글을 읽어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게 재미있는 것 같고. 학교가 아니지만, 학교처럼 공부하는 장소라고 이야기 했듯이 같이 공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한다는 거는 같이 확장되는 거니까. 혼자서는 몸을 아무리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펴도 한계가 있는데, 같이 손을 잡고 몸을 펼치면 더 커지잖아요. 그런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읽으면서 그 텍스트로 같이 수렴했다가 같이 발화함으로써 같이 발산되는 수렴과 발산을 함께 하는 게 뭔가 꽃이 왜 아침에 오피로했다가 새벽에 오피로했다가 아침에 펼쳐졌다가 하면서 자기의 생태계를 구성하잖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읽기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제도권 학교 공간은 아니지만, 학교처럼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장소이기도 했던 독서모임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같이 확장해나가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충전될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5>와 <연구참여자 7>은 나무와 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독서모임이 다양한 가지들을 피워가고, “읽기의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2) 지역 교육 생태계의 확장된 의미로서의 페미니즘 독서모임

본 연구는 지역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독서모임이 지역 교육 생태계에서 어떻게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로서의 확장성을 갖는지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제도권 교육도, 기존의 여성운동 단체의 회원 모임도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독서모임이 갖는 교육 생태

계로서의 의미는 새로운 공간/형태의 새로운 교육 생태계로서의 확장성을 통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역 교육 생태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생태계로서 그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망에 기초하여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적 학습과정을 거치고, 배움의 결과는 공진화로 나타나게 된다.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성과 지향적인 교육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다(김용련, 2019).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체계를 의미하는 지역 교육 생태계는 학습 공간의 확장을 이야기하며 기존의 공교육 체계와는 차별화 되어 있다. 학교의 정규 과정이 아닌 지역 교육 생태계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역시 고질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여성주의 독서모임을 지역 교육 생태계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지역 교육 생태계의 일반적 정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지점이 크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역 교육 생태계 속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독서모임을 그대로 이식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구축망으로도 고민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가능성은 이미 ‘대구여성주의독서모임 A’를 참여하였던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 페미니즘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 답답함으로 모임을 찾아간 것도 있죠. 모임에서 페미니즘 의제를 얘기하면서 대학원에서 페미니즘 의제로 논문을 썼죠. 논문의 어떤 결이 달라진 거죠. 사실 란캠 위주였는데, 페미니즘의 결도 다양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만큼 평등을 지향하는 모임을 아직까지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면 아직도 좀 헤매고 있지 않았을까.” (<연구참여자 1>)

“가끔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그때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는 법을 계속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걸 해줄 수 있게 만든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저는 만족하고 그리고 지금은 대구를 떠났지만 대구에서 놓고 가면 아쉬울 것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사실 거의 유일하게 “A”밖에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2>)

“나는 내 정체성을 만들어준 공간인 것 같아.” (<연구참여자 3>)

기존의 교육 체제가 아닌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관계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방향은 일방적인 교육 주입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참여와 실천을 전제로 한다(김용련, 2019). “읽기 생태계”로서의 ‘대구여성주의독서모임 A’를 하나의 학습 생태계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페미니즘 독서모임에서는 스스로 배우고 성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찰하며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참여자 2>는 독서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을 입 밖으로 내는 법을 배웠고, <연구참여자 3>은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대학원 과정을 거친 후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 1>은 독서 모임에서의 경험 이후 준비하던 석사 학위 논문의 결이 다양해지고 변화했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삶의 맥락에서 어떤 불안이 되게 큰 사람이고 어떤 정상성에 거부하면서도 불안

감이 크기 때문에 정상성에 속해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런 좀 혼란스러움이 큰 사람이었는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안전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불안정하게 흔들리면서 살아도 괜찮겠다는 안정감을 찾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이 어떤 소속감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 소속감이 제가 페미니즘을 단지 그냥 혼자 아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같이 좀 더 돈독하게 알아가는 페미니즘으로 발전하게 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7>)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로서의 확장은 그 공간이 공부를 하고, 페미니즘 지식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의미를 지니지 않아야 한다. <연구참여자 5>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대구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불안지수가 낮아진다”고, 안심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모임이 “휴식처”이고 “휴양처이고 내 삶의 너털너털 했을 때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오면 힐링이 되기 때문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7> 역시 삶에 “안정감”과 안전함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5>와 <연구참여자 7>의 이야기처럼 삶의 ‘불안’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삶’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에서의 여성주의 독서모임이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로서의 확정성을 갖는 중요한 의미로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별점으로 하면 별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탁월한 선택이었고 이 대한민국의 대구라는 곳에서 이제 발붙이고 살아가기에 큰 도움이 된 공간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8>)

“저는 22년에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외로웠던 순간에 나의 여러 관심사나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소속감을 가졌어요. 그 공간 안에서 제가 잠깐 속해 있었던 1년간 속해 있었던 직장보다도 훨씬 소속감을 느꼈어요.” (<연구참여자 9>)

독서모임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은 현재의 참여 여부를 떠나 독서모임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모두 잘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8>은 여전히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할 사람이 늘 필요”하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장과 함께 나눌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에서 안전하다고만 느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성주의를 함께 말하고, 듣고, 공부하는 여성주의 독서모임은 지역의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로서의 어떤 의미를 지닐지 함께 고민해 나가고 싶다. 지역 사회에서 성평등한 ‘오늘’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페미니즘의 역할을 고민하는 장으로서.

IV. 결론

본 연구는 대구 지역의 ‘여성주의 독서모임 A’를 사례로 하여, 지역에서 형성된 페미니즘 학습공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과 실천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독서모임을 단순한 학습 공동체가 아니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구성되는 관계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안전’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모임은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을 학습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발화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실천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페미니스트로서의 자각과 실천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독서모임은 기존의 제도권 교육이나 조직화된 운동 공간과는 달

리,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대안적 학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또한 독서모임은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이 모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기존 공론장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었던 목소리를 드러내는 대항적 공론장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대구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이러한 공간은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새로운 연결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지역 기반 페미니즘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소규모 학습 공동체와 일상적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페미니즘은 특정한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적 공간 속에서 학습되고 실천되며 확장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유형의 페미니즘 공동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계적 안전과 페미니즘 실천의 형성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및 기타

- 권수현, 노운하(2025),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진주 여성운동: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46호, 49-92쪽.
- 김민정, 장지은(2025), “응답적 안전의 정치학 : 2024-2025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41권 제4호, 71-100쪽.
- 김용련(2019), “지역교육생태계 구축과 교육행정의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019년도 연차학술대회』, 97-114쪽.
- 김태영, 육주원(2022), “일상화된 혐오와 생존의 페미니즘: 지역여성청년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안과밖』, 52호, 157-190쪽.
- 김혜경(2022), “‘페미니즘 리부트’와 지역 여성운동: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8권 1호, 179-211쪽.
- 도나 J. 해러웨이(Donna Haraway) (2022), 『종과 종이 만날 때 - 복수종들의 정치』, 최유미 옮김, 갈무리.
- 로버트 K. 인(Robert K. Yin)(2021),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송민채, 신현섭, 조수현, 서이안 옮김, 한경사.
- 벨 훅스(bell hooks)(2008),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 윤은진 옮김, 모티브 북.
- 손희정(2015),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서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후”, 『문화과학』, 제83호, 14-47쪽.
- 최나현(2022), “지역”~청년”~여성의 여성주의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 ‘충전소’를 만들고, ‘기피시설’로 여겨지다”, 『여성학연구』, 제32권 1호, 73-108쪽.
- 허윤(2018),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019권 제2호9통권 제38호), 123-151쪽.
- Fraser, Nancy.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26, 56 - 80.

기타자료

대구여성주의 독서모임 공방 페이스북 페이지 자료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의 확장: 대구지역 독서모임 A를 중심으로 토론문

임정빈(경상국립대 사회학과)

목 차

1. 연구의 의의: 비수도권 페미니즘 운동의 장소성 복원
 2. 연구의 설득력
-

1. 연구의 의의: 비수도권 페미니즘 운동의 장소성 복원

이 연구는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온라인과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되었던 페미니즘 담론을 ‘대구’라는 구체적인 지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보수성이 강한 지역적 배경 안에서 독립적인 독서모임이 어떻게 ‘대항적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각성을 넘어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의 일환으로 기능하는지를 단일사례연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정교하게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과 관련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재미있고 힘이 있는 연구이다. 목소리를 담아내는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이토록 잘 표출한 연구는 드물다.

2. 연구의 설득력

이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지점을 보완하여 이 연구가 가지는 설득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1) 교육 연구가 맞는가?

이 글은 IRB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으로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교육’ 연구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물론 교육을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면 이 연구도 충분히 교육 생태계 연구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공감이 덜 가는 원인이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독해 부족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릇 참신한 연구란 세심하게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이 연구는 제도권 교육에서 ‘안전’과 ‘소통 공간’을 찾지 못한 페미니스트들이 대안적으로 독서모임을 통해 해방 공간을 이루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성차별적·가부장적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상 이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가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특히 ‘교

육 생태계'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어떻게 제도권 교육에 침투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제도권 교육에서 해소될 수 없으므로 제도권 외의 독서모임이 구성되었다는 발견을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적어도 독서모임들의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대안 교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논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이 단순히 '여성주의 생태계'의 미시적인 또 다른 공간을 발견한 것인지, 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제시하겠다는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이는 단일사례연구의 한계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인터뷰와 관련한 연구 내용도 대부분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차별과 대안적 공간이라는 측면에 중점이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 미루어 짐작해보자면 이번 포럼의 주제가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한 논의를 추가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든다. 현재 시점에서 필자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교육을 중점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한 논의를 보강하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이 연구는 결론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지역 기반 페미니즘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소규모 학습 공동체와 일상적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페미니즘은 특정한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적 공간 속에서 학습되고 실천되며 확장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글을 쓰다 보니 제시된 결론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강한 입장이라면 연구자는 왜 독서모임에 더 매진하지 않고 대학원 여성학과를 다니면서 여성학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는가? 이런 지점이 바로 설명을 보충하면서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왜 이 사례인가?

지역이 대구인 것은 대구의 보수성이라는 특색을 생각했을 때 납득이 가지만 왜 이 모임인지는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읽다 보면 이 모임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중요한 모임이라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글의 흐름대로 본다면 대부분 인터뷰 진행을 통해 획득되는 정보이다. 왜 연구 탐색 과정에서 이 사례가 채택되었는지는 서두에 잘 설명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구여성주의독서모임 A’를 단일 사례로 선정하여, 독서모임을 통해 형성되는 페미니즘 정체성과 일상적 실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라는 글에서는 그 직접적 이유가 드러나있지 않다.

그리고 정말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추측이 되는데, 연구자가 참여하거나 관련이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것 같다. 우선 연구자는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계명대학교와 이 독서모임 모두 대구에 있다. 또한 일부 인터뷰들에서는 인터뷰이들이 연구자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개인적인 관련이 큰 게 사실이고 글을 통해 그것이 추론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관계를 밝혀서 독자들이 과하게 넘겨짚는 걸 방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혹은 어떻게 관련이 없는지, 이 모임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독자들이 과한 상상을 할 경우 독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서모임을 익명 ‘A’로 처리했는데, 참고문헌에 보면 “대구여성주의 독서모임 공방 페이스북 페이지 자료”라는 이름이 나와 있다. 이걸 보면 누구라도 ‘공방’이 ‘A’라고 생각할 것 같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방=A라고

생각할 게 당연하다. 익명 처리를 할 것이라면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페미니스트들 중 성소수자 등 소수자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임 이름과 연구학적 정보를 통해 인물이 특정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포럼이라서 그냥 표기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말씀드린다.

3) 왜 페미니즘이어야 하는가의 문제

사실 페미니스트들에게는 페미니즘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해당 세계관이 쉽사리 공유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왜 페미니즘이 중요한지를 다루지 않고 페미니즘은 중요하다는 전제를 깔 채 바로 대구 지역의 ‘여성주의 교육 생태계’ 논의로 들어간다. 정당화없이 시작하지만 그래도 이를 옹호하자면 페미니스트 입장론, 약자이기에 가질 수 있는 위치성과 시야 등의 이론들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독자가 수행해야 할 몫이 되지, 이 연구가 일러주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이 글이 페미니스트가 읽을 것을 상정하고 쓴 글이라면 논외가 될 수도 있지만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에게도 진입장벽이 있는 셈이다. 그건 이 글이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독서모임 A에 참여한 페미니스트는 ‘검열’이라고 느끼지만, 대구에 사는 보수적 시민은 ‘순치’라고 여긴다면 서로 평행선을 달려야 하는가, 설득력을 확보해야 하는가? 물론 평행선이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당화 또한 없이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결국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우리 편’만 읽는 제한적인 글이 될 수 있다. 비록 이 연구가 ‘열린 독서모임’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말이다.

비슷한 문제로 왜 래디컬 페미니스트 모임보다 이 독서모임이 긍정적인지도 명확한 논증 없이 상정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트랜스젠더나 트랜스젠더 의제로 대화하고 싶은 페미니스트는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즘 모임이 불편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연구도 그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 그런데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당연히 트랜스젠더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란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차 알고 있는 ‘불편해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또 다른 근거와 논증이 있어야 왜 래디컬 페미니스트 모임보다 이 독서모임이 긍정적인지 ‘설명’이 된다. 분량상의 문제든지 혹은 그걸 설명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든지간에 해당 ‘설명’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뷰를 통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어떤 언술이 추가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은 왜 독서모임 A를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될 수도 있다. 설령 그것이 ‘불편해한다’ 이상 이 아닐지라도 이 연구의 위치성을 서두에서 더 확고히 보여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대안적 문해 교육으로서 페미니스트 문학 읽기의 가능성 -‘교양’ 교육을 매개로-

박준훈(동아대 젠더·어팩트연구소)

목 차

1.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필요성
2. 페미니스트 지식생산은 어떻게 ‘문학적’ 지식이 되는가.
3. 『프랑켄슈타인』과 재생산 미래주의, 그리고 ‘지방소멸’
4. 마치며

1.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필요성

서울 외 지역의 대학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 페미니즘 교육이 어떤 현장에서 가능한 것인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수많은 논의에서 서울 외 지역 대학은 상대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의 불모지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 대학에서 페미니즘 수업을 진행하려는 시도들은 지역 대학의 현실, 지역의 좁은 관계망,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등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시도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최근에는 지역 대학이 페미니즘 교육환경으로서 “페미유학을 가야 한다”는 농담까지 제기되며, 일종의 디스토피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¹⁾

주의할 점은 이러한 논의들이 반드시 서울 외 지역 대학에만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청년세대의 주안점이 “생존주의”라는 김홍중의 분석은 특정 지역의 대학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서울 외 지역 대학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처럼 언급되고 있다.²⁾ 또한 서울 외 지역의 좁은 관계망은 서울 외 지역 공동체와 관련해선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해석되지만³⁾, 페미니즘 교육과 실천이 서울 외 지역 대학들에서는 난망하다는 주장에선 오직 감

1) 김하영, 「지역 대학의 디스토피아와 페미니즘의 쓸모」, 강이수 외, 『페미니즘, 안녕들 하십니까』, 창비, 2025. 김하영은 지역과 공간의 격차를 넘어서 온라인 상의 페미니즘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다시 서울과의 “감각의 격차”, ‘경험치의 차이’로 내부로 환원하고 있다. 설령 이러한 차이를 전제하더라도, 온라인에서 활발히 퍼진 페미니즘 운동은 서울 지역과 서울 외 지역 학생들 사이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수요에서까지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김홍중은 “생존주의”를 청년 세대의 특성이라 지적하고 있지만(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 (2015), 179-212.), 후속연구에서 이를 “제국주의, 냉전, 그리고 신경계의 흐름”의 영향에 따른 “지정학적(geo-political) 혹은 지경학적(geo-economic)” 문제로서 제시했음을 밝히고 있다.(김홍중, 「생존주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죽음의 문제」, 『사회사상과 문화』 20(4), (2017), 237-273.)

3) 예를 들어, 오영안은 “지역주민들이 상호 협력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당 지역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역 민주주의 공동체 발전의 이상향으로 꼽고 있다. (오영안, 「지역공동체에서의 주민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 참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시의 기반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물론 서울 외 지역 대학의 학생들에게 이는 감시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서울 지역 대학 내부에서는 이러한 감시나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지의 문이 남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의 좁은 관계망은 페미니스트 개인에게 감시가 용이한 환경으로서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이는 백래쉬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환경이 될 수 있다.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일상적 대학 공간에서 교수자와 자주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이 학습자들에게 결코 나쁜 학습 환경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학생과 교수자가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은 페미니즘을 교육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일까. 또는 페미니스트를 감시하려는 의도가 없는 학생들이 페미니스트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는 공간들은 과연 페미니즘을 재생산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일까. 앞서 제시한 것처럼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부모와 자주 마주하는 것이 아이에게 회복탄력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⁵⁾, 백래쉬의 우려를 극복하고 발화하는 교수자와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환경은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학습자들에게 유사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⁶⁾ 오히려 관계망 또는 공간적 여건이 협소하다는 환경은 페미니스트와 더 자주 마주칠 수 있고 페미니스트들이 더 많이 가시화되는 환경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외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동의할 만하다. 그러나 이브 세지윅이 “편집증적 읽기”와 “회복적 읽기”의 관계를 논하며 지적한 것처럼, “회복적 읽기”는 문화적으로 적대적인 환경에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끌어모으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⁷⁾ 퀴어의 전복적 해석 역량에 관한 세지윅의 주장은 서울 외 지역이 문화적 불모지이거나, 가부장적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페미니즘 교육에 부적절한 것으로만 간주해선 안 된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7. 157쪽.); 유사하게 권해인 역시 지역학습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형성과정 속에서 작용하는 동인은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 학습과 활동”이라며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권해인, 「지역학습공동체 형성과정과 동인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23. 105쪽.)

- 4) 김하영이 제시하고 있는 예테보리의 사례가 이러한 전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즉, 예테보리의 양성평등청이 “스웨덴 내 전 국립대학 및 일부 사립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 과정 및 업무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는 감시기구로 기능한 것처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여부에 따라 서울 외 지역 대학 역시 백래쉬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스웨덴 예테보리 양성평등청의 업무에 관해서는 곽서희, 「2018년 1월 설립된 스웨덴 양성평등청의 주요 업무 소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https://www.kwdi.re.kr/research/fttrandView.do?p=8&idx=123101> (최종검색일 2026년 4월 3일)을 참고.)
- 5) 가정폭력을 포함해 아동기 경험이나 집단학살에 관한 부모의 트라우마에 아이가 노출되었을 때, 트라우마가 전달되는 동시에 회복탄력성이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에 관해서는 Jill Salberg & Sue Grand, *Transgenerational Trauma: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ledge, (2024)을 참고.
- 6) 대학 강의실에서 반차별 교육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제시한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 창비, (2019).)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막론하고 여러 교수자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페미니즘 교육의 어려움을 특정 지역의 상황과 연결 짓는 논의에 다소 의혹을 남긴다.
- 7) Eve Kosofsky Sedgwick, “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or, You’re So Paranoid, You Probably Think This Essay Is About You”, *Touching Feeling—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편집증적 읽기”가 “회복적 읽기”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한 논의로는 줄고, 「한국문학의 ‘편집증적 읽기’와 변화하는 문학 창작 - 윤이형의 『설랑』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9, (2019). 31-53을 참고.

있다.

당장 이른 바 ‘페미니즘 리부트’가 온라인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외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 듯하다. 이때 온라인을 매개로 한 페미니즘 담론은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대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서울 외 지역은 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해화역 시위나 광화문 응원봉 집회와 같은 집단적 운동의 기회가 서울 지역에 비해 부족할 따름이다.

물론 서울 외 지역의 대학에서 여성학과, 젠더 관련 교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은 제한적이며, 비정규직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온라인 환경 속 페미니즘 교육 수요를 고려한다면, 여성학과 및 젠더 관련 교과의 독립적 운영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막론하고 시행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교수의 양적 증가와 대학 내 여성 보직 교수의 증가, 여성 교수의 발언권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변화로 보인다. 성교육, 젠더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같은 제도화된 페미니즘 의제들 역시 페미니즘 교과목의 개설에서부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강의 현장으로까지 다방면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맥락에서 이 글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막론하고 페미니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적 매개로 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이러한 수업 실천의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물론 서울 외 지역 대학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실천할 독립된 분과나, 교양 교과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 다양한 분과학문에 대해 비판적 해석을 제기해온만큼, 이러한 문제의식은 교양교육 일반에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⁸⁾이나 ‘딥페이크’ 사태⁹⁾는 여성학 또는 페미니즘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페미니즘에 기반한 지식이 전파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¹⁰⁾ 즉 ‘페미니즘’을 전면화하지 않은 교양 강의실에서조차 페미니즘에 기반한 지식 생산은 수업의 구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학’을 전면화하지 않으면서도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 반영될 수 있는 교양수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랑켄슈타인』 초판본 번역판¹¹⁾을 읽는 고전읽기 교과목의 교과 내용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에

8) 샌드라 하딩과 도나 해러웨이 같은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은 이미 1980년대에, 가장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술과학적 지식에서조차 특정한 객관성이 강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애령에 따르면 샌드라 하딩과 도나 해러웨이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샌드라 하딩의 경우 페미니스트 입장론feminist standpoint theory을 통해, 기존 과학의 객관성을 대체할 수단으로서 지식의 편향성을 성찰하는 강한 객관성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도나 해러웨이는 기술과학의 객관성 은유 자체를 전복하고자 시도하며, 모든 지식이 특정한 위치에서 생산된 ‘상황적 지식들situated knowledge’일 뿐임을 강조한다.(김애령, 「테크노사이언스의 시대,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유산: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의 생태론적 의미」,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14(1), (2021), 7-29.)

9) 교육부는 2025년 12월에 발행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AI대전환 및 AI인재 양성을 주요 항목으로 꼽고, AI리터러시와 AI윤리에 관해서는 반복해서 언급하고 이를 지역 대학과 접목할 필요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I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무색하게 ‘딥페이크’를 비롯해 페미니즘과 관련된 AI의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교육부, 「업무보고」, 2025.12.12.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487> 최종검색일: 2026년 4월 3일.)

10) 김민정은 서울 외 지역에서 여성학 강의가 ‘융·복합’ 교양으로 분류된 것을 다소 자조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는 대학측의 일방적인 ‘여성학’ 강의의 분류에 대한 항의일 뿐, 융·복합 교양으로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김민정, 「학생 ‘니즈’라는 문제 설정: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페미니즘, 강이수 외, 앞의 책.)

11) 메리 셸리 저, 오수원 역, 『프랑켄슈타인』, (2021), 현대지성,

입각한 연구가 생산해온 지식들이,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 어떤 형태로 기입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2. 페미니스트 지식생산은 어떻게 ‘문학적’ 지식이 되는가.

앞 장에서 교양교육이 페미니즘 지식 생산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면, 이 장에서는 그 매개가 되는 텍스트로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초판본을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이하에서 설명할 소설의 장르, 괴물이라는 소재, 역사적 맥락, 수용의 과정, 작가의 위치성이라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문학적 배경지식의 형태를 취한다. 강의현장에서 이러한 지식들은 반영론, 효용론, 시대별 독자들의 반응, 작가론 등 ‘문학적’ 차원에서 배경지식으로서 전달되었지만, 그 내용들은 페미니즘 지식생산에 기반해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SF소설의 초창기 형태로 평가되며, 영미문학사에서는 ‘고딕’ 소설에 해당한다. 이미 다수의 문학 연구자들은 SF 장르가 소수자와 결부될 때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질서를 재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금-여기에서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규범, 위계, 질서를 낫설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고 설명한 바 있다.¹²⁾ 문학적 차원에서 ‘장르’에 해당하는 이 축은, 대중적 장르로서 SF가 미래와 과학기술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소개와 연결된다. 예컨대 마블 유니버스의 상업 영화에서부터, 게임,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텍스트들이 이러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면서, SF장르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보장되고 SF장르의 대중적 인기를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대항적 특성이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소설 속 괴물creature은 대다수의 고딕소설에서 등장하는 ‘괴물monster’ 형상에 해당한다. 이때 ‘괴물monster’ 형상이 갖는 이질적이고 기괴한 특성은 비체abject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¹³⁾, 고딕소설 장르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결합됨에 따라 소설에 관한 문학적 배경지식으로서 수업의 내용을 구성한다. 예컨대 초기 고딕소설들은 시민혁명 직후, 귀족에 대한 괴물화와 우범화를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비인간화된 소수자를 통해 괴물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규범의 교란을 시도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설명은 하나의 텍스트를 둘러싼 문학사적 배경지식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은 소수자의 관점에서 규범에 대항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져왔으며 오늘날의 고전으로서 정립되었다는 설명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괴물’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소수자를 괴물화해온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짐으로써 익숙한 괴물 형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어진다.¹⁴⁾

또한 초창기 고딕소설은 시민혁명(1789~1799)을 전후하여 등장하면서 봉건귀족과 신진 도시 부르주아 세력 간 대립을 반영한 장르로 평가된다. 초창기 고딕소설 속 괴물들은 주로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71487829&start=pbook>

12) 김윤정, 「여성 SF 소설의 테크노피아와 소수자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75, (2021), 7-46; 박은희, 「테크노사이언스의 젠더 감수성」, 『인문과학』 80, (2021), 257-292.

13) SF 속 괴물과 같은 여성의 신체에 관해서는 김윤정, 앞의 논문; 오해인, 「한국SF소설에 나타난 포스트 바디 상상력-정세랑 「리틀 베이비블루 필」, 김초엽 「로라」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9, 2023, 71-104을 참고.

14) 고딕 소설 속 괴물과 비체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천서윤, 「상징계를 가로지르는 비체(들)의 여성 숭고적 글쓰기-강화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2), 2022, 89-112을 참고. 이외에도 ‘카르밀라’나 ‘드라쿨라’ 같은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고딕 소설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손영희, 「르 파누의 『카밀라』에서 레즈비언 뱀파이어와 어머니의 귀환」, 『19세기 영어권 문학』 25(1), 2021, 65-94을 참고.

귀족과 유사하게 묘사되며, 귀족의 영토와 대저택은 범죄의 배경이 되거나 초월적 존재가 사는 곳으로 묘사된다.¹⁵⁾ 『프랑켄슈타인』 또한 이러한 초창기 고딕소설의 경향 속에서 등장하였으며, 비인간으로 여겨지는 괴조물을 통해 투표와 교육에서 배제된 여성의 지위를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⁶⁾ 이 소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시민혁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혁명은 근대적 제도로써 능력주의와 민주주의를 제시했지만, 이는 조앤 스콧이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지적한 것처럼 ‘자유, 평등, 우애fraternité’라는 시민혁명의 이념에서 ‘우애fraternité’는 ‘형제애’로서 남성들 간의 동성사회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시민혁명 이후 ‘시민’은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때 여성과 소수자는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된 채 투표권, 교육권, 사유재산권 등의 권리가 박탈 당하였다. 시민권으로부터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는 근거는 시기별로 내용을 달리하며 변주되지만, 차별적 제도는 20세기까지도 지속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작품이 생산된 시대에 관한 역사적 배경지식으로서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진 여성투표권 운동과 여성교육권 운동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작가인 메리 셸리에 관한 지식은 문학적 측면에 해당한다. 이미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메리 셸리의 어머니라는 사실, 메리 셸리 자신도 제도화된 교육에 접근하지 못한 여성으로서 『프랑켄슈타인』을 창작하였다는 사실은 소설 속 생명체의 위치성과 결부되어 설명된 바 있다. 또한 메리 셸리 자신이 반복적인 유산과 영아 사망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의 창조에 관한 소설로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제시되었다.¹⁷⁾ 이러한 작가론적 측면의 배경지식은 작가의 생물학적 차이가 생명창조에 관한 소설의 내용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교육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사회적 차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 문학제도 내에서 여성작가의 위치성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동시에 교육제도의 배타적 구성과 생물학적 차이와 무관하게, 근대적 계몽주의의 수혜자가 오랜 기간 남성으로 구성되면서 ‘고전’ 범주 역시 남성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비판적 인식을 확장하도록 유도한다. 창조된 생명체가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과 유사한 존재가 없었다는 소설의 내용은 이러한 작가론적 설명과 함께 제시됨으로써 비판적 의미를 습득하게 된다.

끝으로 이 소설에 대한 수용과 재평가의 과정은 시대별 독자 반응으로서 문학 텍스트에 관한 효용론적 배경지식을 구성하지만, 그 내용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학생들의 임파워링과 비판문해를 가능하게 한다. 『프랑켄슈타인』을 영화화하려는 다수의 시도가 보여주듯이, 이 소설은 오랜 기간 대중적 인기를 끌며 여러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캐릭터를 각인시켰다. 그러나 이 소설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시기별로 달라진다. 『프랑켄슈타인』 초판본은 익명으로 출판되어 서문의 저자인 남편 퍼시 비시 셸리의 작품으로 오해되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기명으로 개정판이 출판된 이후 오랜 기간 ‘대중적’인 텍스트로 읽

15) 이때 괴물은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통하여 형상화된다. 김순원, 「위반의 욕망과 쿼어 뱀파이어」, 『18세기영문학』 12(2), 2015, 1-49; 차희정, (2012). 「근대 고딕소설의 괴물 사냥꾼과 폭력의 이미지 - 『프랑켄슈타인』과 『드라큘라』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21, 25(4), 145-166을 참고.

16) 박하정,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남성성의 재현과 남성 간의 유대」, 『근대영미소설』 23(3), 2016, 5-27; 박하정, 「"여성을 만들어 주시오":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조물의 정체성 열망과 남성성 선택」, 『18세기영문학』 11(2), 2014, 119-146.

17) 조한선,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출산 모티프」, 『현대영어영문학』, 56(2), (2012), 123-142.

히게 된다.¹⁸⁾ 이 소설에 대해 학문적 주목이 다시 가능해진 시기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을 배경으로 S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와 겹쳐진다. 이러한 수용의 역사는 한 편에서는 여성 작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후 본격적으로 ‘대중적’ 소설로 평가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다른 한 편에서는 특정한 소설에 대한 문학적 평가가 고정된 가치 기준으로서 미학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유동적 가치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두번째 의혹은 한국사회에서 오랜기간 SF가 ‘공상과학’이라는 멸칭으로 분류되었다는 점과 결부되면서, 오늘날 학생들에게 익숙한 여러 미디어의 텍스트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에 대한 의혹으로 확장된다.

이상의 설명들을 다섯 가지 축에 따라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장르	소재	시대상	작가	독자반응
표면적 지식	SF와 고딕소설	‘괴물’에 관한 문 학사적 지식	역사적 배경지식	작가론적 배경지식	시대별 독자반응
실제 수업 내용	현재의 질서를 낫설게하기 신분제 질서에 대한 저항	여성, 이방인, 퀴 어, 비백인 인종의 은유로서 ‘괴물’	백인-남성을 중심 으로 구성된 시민 권과 박탈당한 권 리들	초창기 여성 교육 론자로서 메리올 스턴크래프트	시대에 따라 달라 지는 ‘문학적’ 평 가와 가치기준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각의 수업 내용들은 표면적으로는 문학 텍스트를 다루는 고전읽기 교과목에서 흔히 다루어질 수 있는 배경지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문학적’ 배경지식에 관한 수업의 내용이 페미니즘 연구의 성과들과 결합하여 제시될 때,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지식은 소수자의 역사적 지위에서부터 근대 사회의 배타적 구조, ‘문학적’ 가치 평가의 비일관성, 여성의 삶과 글쓰기에 관한 지식으로 재배치된다. 『프랑켄슈타인』에 관한 이와 같은 배경지식들은 페미니스트 지식 생산이 교양 일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3. 『프랑켄슈타인』과 재생산 미래주의, 그리고 ‘지방소멸’

앞 장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축이 수업의 ‘문학적 배경지식’에 해당한다면, 여기서는 이른바 ‘지방소멸’ 논의와 『프랑켄슈타인』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리 에델만의 ‘재생산 미래주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리 에델만은 『No Future』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아이를 상징하고, 생물학적 재생산에 근거해 미래를 예측·설명하는 방식을 ‘재생산 미래주의’로 정의한다. 에델만은 미래에 관한 이러한 접근법이 생물학적 재생산 능력이 없는 존재로서 퀴어에 대한 배제의 근거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에델만은 구체적인 예시로서 현실 정치의 상징적 수사로서 ‘아이의 미래’를 앞세우는 방식에서부터,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본능으로서 ‘생식’이 갖는 당위성, 종교적 세계관 등을 두루 제시하면서 재생산 미래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퀴어에 대한 배제를 작동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⁹⁾

18) 고원, 「프랑켄슈타인과 19세기 영국 여성문학 —‘모호한 정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영국 연구』 12, (2004). 217-234.

19) Edelman, Lee, *No Future*, Duke University Press, 2004.

이 글에서는 생물학적 재생산이 불가능한 퀴어에 대한 논의로서 제시된 리 에텔만의 ‘미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역의 교육 현장으로까지 확장하여 적용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로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제시되는 서울 외 지역 대학의 학생들, 이들을 포함해 이른바 ‘지방소멸’ 지표의 근거가 되는 임신 적령기 여성과도 함께 연관지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수업 텍스트인 『프랑켄슈타인』 속 피조물의 재생산이 중단되는 상황과²⁰⁾, 피조물의 처지를 퀴어 당사자의 시선에서 해석한 수잔 스트라이커의 에세이²¹⁾를 경유하여 수업 구성에 반영될 수 있다.

재생산 미래주의에 대한 에텔만의 비판은 퀴어 정치의 측면에서 진행되지만, 특정한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이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 먼저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가 여성 피조물의 창조를 포기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프랑켄슈타인』에서 인공 생명체를 창조한 빅터는, 여러 고생 끝에 “여성 생명체를 만들어달라”며 찾아온 피조물의 요구를 거절한다.²²⁾ 고생 끝에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빅터의 결정은 소설 속 최대의 갈등으로 제시되는데, 빅터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근거는 피조물들이 미래에 새로운 생명체를 출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제시된다. 즉 빅터는 생물학적 재생산에 대한 우려에 따라 여성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피조물은 인간과 같은 성 정체성, 남성성을 획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생물학적 재생산의 가능성은 차단된다. 이성이 되어줄 피조물이 제거됨에 따라 처음 창조된 피조물은 생물학적으로 ‘미래 없는 존재’의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재생산에 기반해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이 퀴어를 미래 없는 존재로 간주하게 만든다는 에텔만의 지적은,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차단당한 『프랑켄슈타인』 속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미래’에 관한 에텔만의 문제의식은 퀴어와 생물학적 재생산의 구도를 넘어 미래 자체를 상상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생물학적 여성의 경우, 가임기를 지나 환경에 이르면 생물학적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생물학적 남성의 경우 2차 성징 이후 평생이 가임기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노화,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²³⁾ 이러한 사례는 재생산 미래주의에 따른 배제가 형태를 달리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주체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을 미래가 없는 곳으로 간주하는 ‘지방소멸’담론의 경우는 어떨까. 권명아가 지적한 것처럼 ‘지방소멸’ 담론의 주된 근거가 되는 소멸 위험 지수 지표는 실은 ‘가임기’ 여성 인구 비율, 또는 임신 적령기 여성 인구 비율을 지표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미래를 재단하고 있

20) 노대원은 『프랑켄슈타인』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SF 속 여성과 재생산의 관계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위기 담론과 결부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노대원, 「아기 낳는 로봇 - 저출생 위기와 페미니즘 SF의 재생산 미래주의 비판」, 『어문연구』 118, (2023), 149-175.)

21) Susan Stryker, Stryker, S. “My Words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 Performing Transgender Rage”.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 (1994), 237-254.

22) 박하정은 「“여성을 만들어 주시오”: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피조물의 정체성 열망과 남성성 선택」에서 피조물이 여성 피조물을 요구하기 전까지, 젠더가 미결정 상태였다고 해석한다. 또한 박하정은 오늘날 미디어 속 캐릭터로서 ‘프랑켄슈타인’이 남성형으로 쉽게 상상되는 이유는, 여성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함으로써 남성으로서 성 정체성을 선택한 원작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파악한다. 박하정, 앞의 논문.

23) 제인 갤럽은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에서 중년기 남성 파트너가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 사정이 불가능해질 위기를 회고하며 자신이 겪은 불안감, 초조함 등을 다룬 바 있다.(제인 갤럽 저, 김미연 역,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현실문화, (2023).)

다.²⁴⁾ 이러한 사실은 재생산 미래주의가 실은 '미래에 소멸할 곳' 또는 '미래가 없는 곳'으로서 서울 외 지역을 상상하는 담론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 에텔만의 재생산 미래주의에 대한 비판은, '지방소멸' 담론이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다. 퀴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을 '미래 없음'으로 상상하는 방식이 지역 간의 위계를 고착화하는 방식에서도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켄슈타인』에 관한 수업 구성에서 피조물의 재생산 능력과 성 정체성이 박탈당하는 상황과 귀족의 영지를 우범화해온 초창기 고딕 소설의 특성은, 특정 지역의 미래나 특성을 인식하는 방식이 실은 담론과 권력의 산물임을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재생산 미래주의에 대한 리 에텔만의 지적은, '미래에 사라질 곳'으로서 서울 외 지역 대학을 상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도 확장하여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²⁵⁾는 정희성의 시구는,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지시하는 상징적인 관용구처럼 쓰여 왔다. 이미 시구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은 능력주의와 함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들과, 서울 외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라는 위계를 구축한다. 즉 생물학적 재생산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에 참여할 권리조차 이미 차별적으로 분배되고 할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생물학적 재생산으로서 미래에 대한 권리를 빅터에 의해 박탈된 『프랑켄슈타인』 속 피조물의 상황을 통해서, 나아가 시민혁명을 거친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로써 투표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박탈당해야 했던 여성과 소수자의 지위라는 『프랑켄슈타인』의 배경지식을 통해서 수업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재생산 미래주의에 대한 리 에텔만의 비판은 '미래'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사실은 여러 범주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고전, 이 소설에 관한 문학적 배경지식들은 교양 수업 내용을 구성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

4. 마치며

서울을 포함해 지역별로 대학이 마주한 상황과 페미니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페미니즘 강의에 대한 수요는 비단 여성학 또는 페미니즘을 진면화하는 강의로서만 충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페미니즘에 입각한 지식 생산이 반드시 여성학 강의 구성만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히려 페미니즘과 소수자에 관한 지식은 교양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질문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프랑켄슈타인』을 텍스트로 삼은 고전 읽기 강의의 '문학적' 수업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리 에텔만의 No Future를 중심으로 '미래'와 '지방소멸' 담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을 모색해보았다. 이러한 수업 내용 구성은 읽기가 가진 특성과 결합하여 페미니스트 페다고지²⁶⁾가 실현될 수 있는 교양수업

24) 권명아, 「힐링 여행의 아포칼립스와 정착민 식민주의의 정동들」, 『대중서사연구』 30(2), (2024), 11-68.

25) 정희성, 「여기 타오르는 빛의 聖殿이」,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창비, (1978), 92쪽.

26) 정민승은 페미니스트이자 교육학자인 벨 훅스의 「관여적 교육론」을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자율적

현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교양수업은 페미니즘 지식 생산을 여성학 강의 내부로 한정하지 않고, 광범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 글은 한 편의 텍스트와 한 개의 교과목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교양교육 현장에서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다르게 접목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 역사를 주로 다루는 교양 교육의 현장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행위성을 가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글의 접근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학을 중심으로 한 교양 교육 현장 역시 이 글의 논의를 접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페미니스트 지식 생산이 지속적으로 채워가야 할 영역이라 하겠다. 동시에 이미 다소의 성과를 누적해온 페미니즘이, 교양 강의실에서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필자의 위치성과 그에 따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대학에서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3학기의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기 당 진행한 고전읽기 수업도 한 분반으로 양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이 글에서 실제 수업의 진행 과정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 외 지역 대학(원) 출신이면서 청년 세대 시간 강사라는 사실은 권위적이지 않고 유사한 환경에서 수학한 교수님으로 비교적 친숙하게 여겨진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안전한 강의실을 구성할 수 있고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는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라는 특성은 설령 수업내용에서 퀴어나 페미니즘에 관한 의제를 다루더라도, 이의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가시화되지 않는 권위를 제공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양교육에 페미니즘이 접목될 필요성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위치성은 보다 긴밀히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힘을 부과할 수 있는 정동 관계의 교수자, 맥락·사회·지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평등 중심의 교육, 도전과 표현의 안전이 보장된 교실을 교육 현장에 요구되는 모습으로 꿈고 있다.(정민승, 「평생학습의 지향성으로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 벨 훅스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6(1), (2020), 79-101.) 유사하게 배유경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핵심으로 수평적 관계, 비판 의식, 생각과 행위 결합을 꼽은 바 있다.(배유경,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탐구. 페미니즘연구 18(1), (2018). 345-376.) 엄혜진 또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지식의 근간과 삶의 방식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엄혜진, (2018). 페미니즘 교육은 (불)가능한가?. 한국여성학, 34(3), 6쪽.) 김민정 역시 이상적인 페미니즘 대학 강의를 꿈꾸며, “다양한 입장에 선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마주하고, 충돌과 협상의 지점하는 체득하는 그 자체가 곧 페미니즘 교육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김민정, 앞의 글, 앞의 책.)

참고문헌

- 메리 셸리 저, 오수원 역, 『프랑켄슈타인』, (2021), 현대지성,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71487829&star>
- 강이수 외, 『페미니즘, 안녕들 하십니까』, 창비, 2025.
- 고원, 「프랑켄슈타인과 19세기 영국 여성문학 —‘모호한 정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12, (2004). 217-234.
- 곽서희, 「2018년 1월 설립된 스웨덴 양성평등청의 주요 업무 소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https://www.kwdi.re.kr/research/fttrandView.do?p=8&idx=123101> (최종검색일 2026년 4월 3일)
- 곽은희, 「테크노사이언스의 젠더 감수성」, 『인문과학』 80, (2021), 257-292.
- 권명아, 「힐링 여행의 아포칼립스와 정착민 식민주의의 정동들」, 『대중서사연구』 30(2), (2024), 11-68.
- 권해인. 「지역학습공동체 형성과정과 동인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23.
- 김순원, 「위반의 욕망과 퀴어 뱀파이어」, 『18세기영문학』 12(2), 2015, 1-49
- 김애령. 「테크노사이언스의 시대,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유산: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의 생태론적 의미」.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14(1), (2021), 7-29.
- 김윤정, 「여성 SF 소설의 테크노피아와 소수자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75, (2021), 7-46.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 (2015), 179-212.
- 김홍중. 「생존주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죽음의 문제」. 『사회사상과 문화』 20(4), (2017), 237-273.
- 노대원, 「아기 낳는 로봇 - 저출산 위기와 페미니즘 SF의 재생산 미래주의 비판」, 『어문연구』 118, (2023), 149-175.
- 박준훈, 「한국문학의 ‘편집증적 읽기’와 변화하는 문학 창작 - 윤이형의 『설량』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9, (2019). 31-53.
- 박하정,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남성성의 재현과 남성 간의 유대」, 『근대영미소설』 23(3), 2016, 5-27.
- 박하정, 「"여성을 만들어 주시오":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피조물의 정체성 열망과 남성성 선택」, 『18세기영문학』 11(2), 2014, 119-146.
- 배유경.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탐구. 페미니즘연구 18(1), (2018). 345-376.
- 손영희, 「르 파누의 『카밀라』에서 레즈비언 뱀파이어와 어머니의 귀환」, 『19세기 영어권 문학』 25(1), 2021, 65-94
- 엄혜진. (2018). 페미니즘 교육은 (불)가능한가?. 한국여성학, 34(3), 1-37.
- 오영안. 「지역공동체에서의 주민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 참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7.
- 오해인, 「한국SF소설에 나타난 포스트 바디 상상력-정세랑 「리틀 베이비블루 필」, 김초엽 「로라」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9, 2023, 71-104.

- 정민승, 「평생학습의 지향성으로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 벨 훅스를 중심으로」, 『평생 교육학연구』 26(1), (2020), 79-101.
- 정희성, 「여기 타오르는 빛의 聖殿이」,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창비, (1978), 90-92.
- 제인 갤럽 저, 김미연 역,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현실문화, (2023).
- 조한선,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출산 모티프」, 『현대영어영문학』, 56(2), (2012), 123-142.
- 차희정. (2012). 「근대 고딕소설의 괴물 사냥꾼과 폭력의 이미지 - 『프랑켄슈타인』과 『드라큘라』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25(4), 145-166
- 천서운, 「상징계를 가로지르는 비체(들)의 여성숭고적 글쓰기-강화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2), 2022, 89-112.
- Eve Kosofsky Sedgwick, "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or, You're So Paranoid, You Probably Think This Essay Is About You", Touching Feeling -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 Jill Salberg & Sue Grand, Transgenerational Trauma: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ledge, (2024).
- Lee Edelman, No Future, Duke University Press, (2004).
- Susan Stryker, Stryker, S. "My Words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 Performing Transgender Rage".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 (1994), 237-254.
- 교육부, 「업무보고」, 2025.12.12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487>
최종검색일: 2026년 4월 3일.

대안적 문해 교육으로서 페미니스트 문학 읽기의 가능성 - '교양' 교육을 매개로 - 토론문

장지은(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본 발표문은 교양교육을 매개로 페미니즘 지식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존 여성학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학적 배경지식과 페미니즘 이론을 결합하는 방식은 교육 실천의 측면에서 창의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또한 페미니즘 교육을 여성학 교과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교양교육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켄슈타인』을 사례로 삼아 장르, 괴물, 역사적 맥락, 작가, 독자 반응이라는 다층적 축을 통해 페미니즘 지식을 '문학적 배경지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페미니즘 지식이 단순히 특정 주제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틀 자체를 전환하는 인식론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더불어 리 에텔만의 재생산 미래주의를 '지방소멸' 담론과 연결시키는 시도 역시 중요한 이론적 확장으로 읽힌다. 이는 쿠퍼 이론을 지역 문제와 접목시키는 시도로서, '누가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교육의 맥락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훌륭한 글을 써주셔서 감사하며,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대학은 페미니즘 교육의 불모지인가”라는 문제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발표문은 기존 담론을 비판하면서 지역의 좁은 관계망이 감시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즘의 가시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지만 공간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 없이 제시되면서 경험적 직관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지역을 단순한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관계, 역사성 등이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둘째, 발표자의 글에서는 교양교육을 페미니즘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로 설정하고 있으나, 교양 교육은 동시에 국가 정책, 대학 제도, 지식 위계가 작동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결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양교육이 페미니즘을 확산시키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탈정치화 공간으로 작동하거나 지식의 위계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와 연결하여, 페미니즘을 전면화하지 않는 교육 방식은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도적 제약 속에서의 타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질문하고자 한다. 또한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문학 텍스트 중심의 접근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특히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논의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론적 연결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다. 재생산 미래주의와 지방소멸 담론을 연결하는 시도는 매우 재미가 있다. 그러나 두 개념 사이를 매개하는 이론적 고리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생명 권력이나 통치성과 같은 개념을 경

유를 해보면 좋을 거 같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지역 대학원 출신, 청년 세대 시간강사라는 위치성, 생물학적 지정 성별 남성으로서의 가시화되지 않는 권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성이 실제 수업 장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의 관계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하여 발표자의 남은 이야기가 있는 거 같다. 시간이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자녀 살해 후 자살과 페미니즘 사회정의 교육

김예원(경상국립대 사회학과)

목 차

- I.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II. 가족 살해 후 자살의 동향과 연구 방법
- III. 젠더화된 해석 체계와 돌봄 부정의
- IV.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유형적 특징: 계층화·가족화·젠더화된 자살
- V. 토론 및 함의

I.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 수는 전년 대비 1,072명 증가한 13,978명으로 집계됨으로써,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 10.7명의 두 배가 넘는 24.8명에 육박한다(국가데이터처, 2024). 이러한 상황은 자살이 한국사회에서 일상적 재난에 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가족이 함께 사망하는 이른바 ‘가족 살해 후 자살’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2026년 1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2020년 12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 2023년 23명, 2024년 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70명의 아동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26. 1. 4.).

한국사회의 가족 살해 후 자살은 대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의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부부 자살이나 친밀한 관계 내 동반 자살이 중심인 서구 사회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정승민, 2004), 가족을 단일한 운명공동체로 인식하는 가족주의 관념과 가족 의존적인 사회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김명희, 2012; 2025; 이현정, 2012). 따라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한국사회 자살의 역사성과 보편성을 아울러 보여주는 중요한 자살 유형이다. 많은 선행연구는 이같은 가족 살해 후 자살이 단독 자살과 달리 사회경제적 주변 집단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8년 ‘증평 모녀 사망 사건’, 2022년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모두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발생한 자살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이는 가족 살해 후 자살이 특정 인구집단의 주변화와 소외를 반영하는 계층화된 자살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일러준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에 이

1) 살해 후 자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자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살인과 자살이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발생하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는 양측면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즉, 상호 합의에 따른 집단자살과 일방적 살해 후 자살이 동기와 과정에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족 살해 후 자살’에는 ‘부모 살해 후 자살’, ‘자녀 살해 후 자살’, ‘배우자/애인 살해 후 자살’ 등의 유형이 있으며, ‘간병 살인 후 자살’ 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권세원·정재승·홍혜인·이순주·허영혜·박재빈·Aderinwale·오승윤, 2024: 3-4).

르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 남성의 평균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여성에게 의한’ 자살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에서 뚜렷한 젠더적 특징도 내보인다(「TJB」, 2025.9.14.). 하지만 지금까지 주류 자살학의 접근은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개입하는 젠더화된 사회구조와 돌봄 부정의의 차원을 분석에서 배제해 왔다.²⁾

이같은 담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연구는 돌봄 정의의 관점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 특히 이 연구는 돌봄이 일상생활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시장 논리에 맡겨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들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현실에 주목한다. 일례로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었다”는(「중앙일보」, 2020.2.13.) 한 자살자의 유서는 기존 돌봄 제도에 대한 불신과 가족 책임의 부담을 드러낸다. 이에 이 연구는 지배와 억압에 초점을 맞춘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영(Young, 2017)의 사회정의 패러다임을 도입해 가족을 매개로 행사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억압의 교차성을 아우르는 분석의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누적된 돌봄 위기와 구조적 부정의에 기인한 것임을 드러내 보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단순한 분석적 함의를 넘어 사회적 인식과 실천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교육학의 접근과도 맞닿아 있다.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사회적 억압이 제도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을 강조한다. 특히 성차별적 억압을 강화해 온 기존의 주류 커리큘럼을 재구성하며, 학교 교육뿐 아니라 성인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적 실천을 통해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empowerment)하고, 사회적 억압과 착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차갑부, 2023: 406-407, 412).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돌봄 위기와 젠더화된 사회경제적 위험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경로로 이해될 수 있으며, 돌봄과 젠더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이어지는 II장에서는 가족 살해 후 자살의 추이와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밝힌다. III장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다룬 선행연구에 내재한 젠더화된 해석체계와 인식적 부정의의 차원을 드러내고, 대안적인 분석적 관점을 모색한다. IV장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다룬 언론 보도기사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야기하는 다층적 원인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V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후속 연구과제를 밝힌다.

II. 가족 살해 후 자살의 동향과 연구 방법

1. 가족 살해 후 자살의 추이와 현황

〈표 1〉 국내 자살자 수(1990~2024)

단위: 명

	남	여	계
1990년대	35,796	15,566	51,362
2000년대	72,219	35,829	108,048

2) 주류 자살학의 기본 가정과 한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명희(2025: 52-58)를 참고하라.

2010년대	97,929	42,503	140,432
2020년대	47,657	20,646	68,303
합계	253,601	114,544	368,145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사망원인통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높고, 두 성별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 그 사건 빈도의 증가와 광범위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전무하다(서찬석, 2006). 특히 살인과 자살이 얽혀있는 살해 후 자살의 특성상 이들의 자살 동기와 사망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권세원·정재승·홍혜인·이순주·허영혜·박재빈·Aderinwale·오승윤, 2024: 3). 하지만 이것이 자살에 대한 탐구가 불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다루는 언론 기사를 토대로 연도별 빈도와 추이, 작동방식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990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³⁾ 연구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부모의 사례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한 사례로 설정하였다.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기사를 추출하기 위한 검색 주제는 ‘동반자살’, ‘자녀 살해 후 자살’, ‘살해 후 자살’, ‘일가족 동반자살’이었다. 358건의 자살 사건 중 연도별 발생 건수를 가해자의 유형을 중심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발생 건 수(1990~2025)

단위: 건

	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부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계
1990년대	68	55	14	137
2000년대	28	40	10	78
2010년대	56	26	16	98
2020년대	23	14	8	45
계	175	135	48	358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표 2>를 통해 한국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2.3배 높은 일반 자살률과 달리(국가데이터처, 2024) 모에 의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⁴⁾ 이는 최근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모)이 남성(부)에 비해 자살을 감행할 때 자녀를 동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같은 현상을 기존 연구들은 모자관계의 과도한 밀착성이나(정승민, 2004; 이미숙, 2007), 어머니의 정신질환의 결과(김명숙·장창곡, 2022: 147)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가족 살해 후 자살에 개입하는 사회-구조적 맥락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나아가 곧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해석은 정신병리학에 기초

3) 수집 대상은 <빅카인즈>에서 집계 가능한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이다.

4) 1990년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배 높고 2010년대는 2.15배, 2020년대는 2.1배 높다. 2000년대만 남성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여성에 비해 1.42배 높게 나타났다.

한 주류 자살학의 젠더 편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젠더와 사회계층, 아동 인권, 돌봄 구조 등 다층위적 맥락을 고려하는 비판적 해석학의 개입을 요청한다.

다층위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행위로서의 일반 자살과 구분되는 살해 후 자살의 복잡성 때문이다. 즉, 살해 후 자살은 타인에 대한 살해 행위가 선행하는 관계적 사건으로서 행위자는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타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 이 판단은 경제적 주변화와 가족 내 권력관계, 돌봄 책임, 자살을 정당화하는 믿음 체계나 보호 및 책임의 언어/담론 등과 긴밀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살해 후 자살은 타살과 자살이 결합된 특수한 폭력의 형태이자 복합적인 사회적 사실로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다룬 기존 연구 및 언론 기사, 유서 등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다양한 추론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지칭하며(Weber, 1990: 9), 질적 내용분석은 코딩을 통해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김영천·정상원, 2017: 322). 특히 비판적 실재론 관점의 질적 내용분석은 텍스트에 내재한 의미의 심층 탐구와 함께 그 의미를 야기한 사회관계와 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어 개인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답하고자 한다(Leung and Chung, 2019: 828). 즉, 실재론적 내용분석의 유연성은 명시적 의미뿐 아니라 상황적 맥락의 잠재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서 담보되며, 그 핵심은 “텍스트의 안, 사이, 전반,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찾고 탐구하는 것이다(Sandelowski, 2010: 78; Leung and Chung, 2019: 836). 이러한 방법은 ‘자살’이라는 사건의 특성, 더욱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자살자나 유가족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텍스트를 제작한 생산자의 편견이 부과되었음을 아울러 고려하면서 제한된 텍스트에 기반해 그 텍스트의 안과 밖을 심층적으로 독해하는 비판적 해석학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첫 번째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보도한 언론 기사, 유서 등 확보할 수 있는 간접 자료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질적 자료에서 의미요소를 식별하고 공통된 유의미한 범주에 개념적 코드(code)를 다단계로 부여하는 질적 코딩을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분석한 범주는 성(sex), 가해자-희생자 유형, 가해자-희생자 연령, 자살 동기와 원인, 상황과 맥락 등이며, 사건 보도에 개입하는 주관적 편향(bias)과 사회적 담론을 통제하기 위해 보도의 프레임을 아울러 분석하였다.⁵⁾ 셋째, 이를 토대로 개별 사건을 야기한 여러 인과 기제와 맥락적 조건, 그 작동방식과 양상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사건에 대한 서술에서 그것을 발생시킨 조건들에 대한 서술로 나아가는 역행추론(retroduction)의 일환으로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발생과 재생산 조건을 탐문하는 해석의 절차가 될 수 있다(김명희, 2022: 229).

5) 예컨대 기사 제목에서는 우울증 등 개인의 심리적 원인이 주요하게 제시되는 반면, 본문을 검토한 결과 생활고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원인인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동일 사건에 대한 복수의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원인 프레임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담론 효과를 필터링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분석 방법은 담론 분석을 활용한 질적 내용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내용분석의 원리는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기사만이 아니라 선행연구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살 사건을 주도한 주체의 성별화된 코드에 따라 다른 인과분석을 적용하는 젠더화된 해석체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면서 선행연구의 동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I. 젠더화된 해석 체계와 돌봄 부정의

1.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관한 선행연구

이 연구는 돌봄의 가족화/젠더화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발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자녀 살해 후 자살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오랜 시간 ‘가족동반자살’로 통칭되면서, 가족 내 아동의 권리 침해와 죽음의 비자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 돌봄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살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가족관계 내부의 돌봄 구조와 책임의 배분 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크게 심리학, 의학, 아동·사회복지, 사회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심리학적 접근은 자살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적 판단과 문화적 가치체계의 영향을 강조한다. 이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에서 모-자녀 관계의 비중이 특히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동반자살 전반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함을 밝힌다(김명숙·장창곡, 2022). 한국사회에서 가족 살해 후 자살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족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연결한 연구도 존재한다(김효창, 2010). 하지만 이들 연구는 여성에게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집중되는 현상과 젠더화된 돌봄 역할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며, 자살 원인을 특정 문화권의 문제로 지나치게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 국내 살해 후 자살의 현황과 특성을 폭넓게 망라한 한 연구는 자녀 살해 후 자살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고 가해자의 다수가 전업주부라는 점을 밝혀내어 젠더화된 돌봄 역할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최진화·박기환, 2022). 하지만 이 연구는 예방 논의에서 정신건강 차원으로 문제를 환원함으로써 사회구조적 분석의 일관성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다.

의학적 접근은 가족 살해 후 자살을 주로 정신병리 및 공중보건의 문제로 이해한다. 이들은 다양한 정신질환과 자살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자살을 정신 장애 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연관해 설명한다(제영묘, 2004). 이에 따라 의학적 접근은 가족 살해 후 자살을 예방 가능한 공중보건 문제로 취급한다. 예컨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비율 증가에 주목한 김정진(2006)의 연구는 그 주된 동기가 생활고 등 사회경제적 요인임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살 예방에 대한 해결책을 정신건강 중심으로 귀결함으로써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구조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동반자살’이라는 명명이 가진 제한성을 지적하고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지닌 ‘아동학대’의 측면과 인권 관점을 환기시킨 아동·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이세원(2023)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를 아동학대 예방의 관점에서 접

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지혜(2024)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언론 기사 분석을 통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 특성과 발생 맥락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 가정 불화 등이 복합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낸다. 특히 Yoon, Yu, and Lee(2022)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사회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형태의 ‘가정폭력’임을 지적한다. 최아라(2022)는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아동의 생존권을 근거로 ‘동반자살’ 대신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사회문제로 조명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 등의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한 사례의 경우 분석의 초점이 어머니 개인의 정신증과 우울에 집중되어 자살의 원인을 개인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우울 치료 프로그램 제시에 머무는 한계를 보인다.

사회학적 접근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힘이 작용한 결과로 자살을 다룬 뒤르케임(Durkheim, 2008)의 관점을 계승한다. 정승민(2004)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자녀 피살’이라는 인권 문제가 결합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아노미적 자살과 이기적 자살이 혼합된 형태로 해석한다. 서찬석(2006)은 뒤르케임의 자살 유형을 적용하여 부-자녀 유형을 아노미적 자살, 모-자녀 유형을 가족 수준의 이기적 자살, 부모-자녀 유형을 숙명론적 자살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부-자녀 유형을 경제위기와 연관된 아노미적 자살로, 모-자녀 유형을 가족 수준에서의 이기적 자살로 해석한다. 그러나 생활고에 처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사망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모-자녀 유형에서 경제적 요인을 배제하기는 어렵다.⁶⁾ 이는 동일하게 규제(regulation)의 영향을 받는 모 주도 자살의 해석에 젠더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⁷⁾ 가족 살해 후 자살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이도암(1965)에 이어 한국전쟁 직후 심각한 생활난과 급속한 도시화가 1950~60년대 급증한 ‘가족동반자살’의 주요 배경이 되었음을 탐색한 정승화(2011)의 사회사적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한국의 국가-가족관계가 부과한 성별 역할 구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이현정(2012)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가족 살해 후 자살 유형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해 각 국가의 가족-사회관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기와 가족주의의 결합 양상이 다른 유형의 가족 살해 후 자살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와 분리된 한국사회의 (핵)가족 구조가 돌봄 부담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가족 살해 후 자살의 배경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심리학적 관점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원인을 가족 내부의 행위자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가족을 전적으로 사(私)적 영역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정치적 과정과 돌봄의 젠더화 메커니즘이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의학·아동/사회복지학의 논의도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만, 자살 예방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답습한다. 이로써 이들은 자살에 대한 생의학적 프레임과 자살 예방에 대한 개인주의적 프레임으로부터(Button and Marsh, 2020:

- 6) 예컨대 ‘증평 모녀 사망 사건’, 생활고로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번개탄을 마신 ‘익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노컷뉴스」, 2014.3.5.) 등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모-자녀 유형에서 경제적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 7) 여성에게 사회 통합과 사회 규제는 종종 보호 요인이 아니라 자살 위험 요인이다(Sara and Rezaeian, 2020: 109-110). 따라서 과도한 규제의 사회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여러 혼합 유형의 숙명론적 자살에 대한 젠더 관점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회정의 관점을 개척한 뒤르케임의 비판적 자살학(김명희, 2025)을 젠더링(gendering)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가족과 젠더관계가 개입하는 자살 사례 연구로 김명희(2025)의 5장을 참고하라.

9)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학적 관점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두지만, 사회경제적 요인과 중첩된 한국의 부정의한 돌봄구조에 대한 성찰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살에 대한 젠더 관점과 사회정의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자녀살해 후 자살에 개입하는 여러 층위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2. 자살에 대한 사회정의 접근

1) 자살과 젠더: 인식적 부정의를 넘어서

역사적으로 자살은 젠더화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남성의 자살은 공적 영역에서의 상실이나 저항으로 이해된 반면, 여성의 자살은 사적 영역에서의 감정적 반응이나 개인적 병리로 간주되어 왔다(Jaworski, 2014: 26). 이러한 해석은 신체-정신, 사회-개인, 능동-수동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생의학적 지식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와 관련하여 18세기에 출현한 자연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차이를 생물학적 기반으로 환원하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관점은 신체에 대한 ‘과학적’ 설명 속에 일련의 문화적·정치적 가정을 내재화하며 여성의 신체를 감정적이고 취약한 것으로 표상해왔다(네들턴, 1997: 144-146). 나아가 근대 과학의 규범화하는 시선은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주체로서 남성을 상정하고 여성을 지식의 객체로 위치시켜 위계화했다(영, 2017: 280). 이러한 남성중심적 시선은 신체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의학 지식과 결합하여 남성의 자살을 공적이고 객관적인 현상으로, 여성의 자살을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으로 해석하는데 일조했다(Jaworski, 2014: 26).

이러한 해석 틀은 남성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경제적 위기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이를 정신질환이나 개인적 취약성의 문제로 설명하는 경향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둘러싼 젠더화된 해석은 자살과 젠더의 복합적 관계를 가시화하기보다, 오히려 비(非)가시화하는 인식적 부정의⁸⁾를 야기한다. 이는 돌봄 정의나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심층적 차원에 대한 분석을 차단하는 해석학적 부정의로 작용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하는 증언적 부정의로 이어진다.

이같은 인식적 부정의는 사회 현상을 개인 행위에 입각해 설명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정신병리학에 기반한 주류 자살학의 가정과 만나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바, 최근 영미권 학계에서 자살에 대한 사회정의 패러다임이 제안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영 등의 학자에게서 영감을 얻은 사회정의 접근은 사회구조적인 과정이 고유한 문화적·경제적·정책적 배경 조건을 형성하여 자살 위험 요인을 생성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정서적 억압과 불평등이 자살에의 취약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Button and Marsh, 2020; 김명희, 2025: 154). 사회정의 접근은 빈곤, 에스니시티, 젠더와 섹슈얼리티, 농촌 거주, 퇴역 군인, 제한된 건강 접근성 등

8) 인식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는 페미니스트 철학자 프리커(Fricker, 2025)가 제안한 개념으로, 인식적 삶에서 작동하는 윤리적 부정의를 뜻한다. 프리커는 인식적 부정의를 증언적 부정의와 해석학적 부정의로 구분한다. 전자는 편견으로 인해 화자의 증언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후자는 집단적 해석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할 개념 자체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프리커, 2025: 281).

여러 위험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개인적 선택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자살의 주관적, 대인관계적, 외적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자살로 인한 죽음들을 충분하고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으면서, 자살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을 형성하는 사회-구조적 과정들의 구성적 역할에 관심을 기울인다(Button and Marsh, 2020: 1-2).

2) 구조적 부정의와 가족화된 돌봄: 억압과 위협의 교차성

이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누적된 돌봄 위기와 구조적 부정의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 영은 구조적 부정의(structural injustice)를 사회구조적 과정 속에서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이 자기 역량을 개발하거나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는 조직적 위협 아래 놓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바라본다(영, 2018: 109). 특히 영이 제안한 억압(oppression) 개념은 명시적인 제도와 암묵적인 규범에 내재한 돌봄을 둘러싼 위계와 권력관계를 분석적으로 이해할 개념들을 제공한다.

예컨대 영은 구조화된 억압을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이라는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다. 첫째, 착취(exploitation)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산물이 특정 집단에 의해 전유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의미한다. 돌봄 영역에서 착취는 돌봄 노동이 여성의 본성이나 도덕적 책임으로 간주되며 저평가되는 방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수행할수록 노동시장과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반면,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집단은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강화한다. 이 점에서(김희강, 2022: 244-245), 돌봄의 착취는 사회 재생산이 특정 집단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구조적 부정의의 핵심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주변화(marginalization)는 특정 집단이 사회적 참여와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물질적 빈곤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봄은 생산적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돌봄에 종사하거나 돌봄에 의존하는 이들은 정상적 노동 능력을 기준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다. 그 결과 이들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참여, 선택의 자유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된다(김희강, 2022: 248). 게다가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 부담의 편중은 주로 돌봄노동을 구매할 형편이 없는 소수자와 저소득 가족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돌봄노동은 임금의 손실, 스트레스, 사라진 교육기회 및 직업기회의 관점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아이크너, 2025: 56).

셋째, 무력함(powerlessness)은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사항에 수동적으로 순응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희강, 2022: 241). 이를테면 돌봄제공자는 대부분 취약한 의존인의 필요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나 이해를 주장하기 어렵다. 넷째,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는 지배 집단의 경험과 가치가 보편적 기준으로 일반화되며 다른 집단의 삶이 결핍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폄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컨대 모성에 이데올로기(김희강, 2022: 253)는 돌봄을 여성의 본성으로 자연화하고 돌봄 실패를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돌봄 수행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죄책감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폭력(violence)이 구조적 억압의 한 형태인 것은 폭력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폭력 행위를 용인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기인한다(영, 2017: 146-148). 예컨대 가족을 사회와 분리된 사(私)적 영역으로 간주해 온 사회적 규범은 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을 제한하고 이를 은폐함

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폭력을 야기해왔다. 이렇듯 억압은 다양한 차원에서 교차하면서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부정의를 행사한다.

돌봄과 관련된 부정의는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온 한국의 국가-가족관계에서 누적되고 강화되었다.⁹⁾ 선성장 후복지를 내세운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모델과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복지의 공백을 낳았고, 돌봄과 위험 대응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해왔다(이소진, 2023: 42).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가족은 구조적 억압과 돌봄의 위기가 항구적으로 교차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자리한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이 확대되며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생계 불안과 근로빈곤은 계층과 성별을 가로질러 확산되었으며,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대는 크게 약화되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사회안전망의 취약성, 주거 자본주의와 부동산 계급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붕괴와 돌봄 기능의 약화는 가족 단위로 위험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김영란, 2014: 152-153).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편입은 가족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여성에게 제공된 일자리는 가족은 물론 개인적 삶의 재생산도 용이하지 않을 만큼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구조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는 여성들을 2교대 심지어는 3-4교대 근무로 몰아갔다(김혜영, 2016: 25). 이로 인해 여성들은 유급 노동과 무급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돌봄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족이 부담하던 돌봄과 생계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이전하는 정도, 즉 탈가족화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정도는 위험이 가족 내부에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¹⁰⁾

요컨대 권위주의 시기는 물론 자유주의적 국가-가족관계에서 돌봄은 공적 권리나 사회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기보다 가족이 감내해야 할 사적 책무로 구성되어 왔다.¹¹⁾ 그 결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저소득 가구, 여성 가구주, 돌봄 자원이 취약한 가족에 집중되면서 가족 빈곤과 위기의 조건을 강화했다(김영란, 2014: 158). 나아가 고용을 매개로 한 안정적 삶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후 주택과 토지는 위험 회피의 수단으로 부상했으나 부동산의 상품화·투기화는 오히려 과도한 부채와 주거 불안을 야기하며 가족의 위험을 증폭시켰다(김용창,

9) 가족-국가 관계를 다루는 이론은 가족과 국가라는 두 실체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족의 사생활이라는 신념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삶의 일부 영역, 특히 가정, 개인적 관계 및 가족과 관련된 영역이 있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공적 영역과 집이라는 사적 영역 사이에 침범할 수 없는 선이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는 관념은 신화에 불과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가족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아이크너, 2025: 128-129).

10) 덴마크의 사회학자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2006)은 복지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탈상품화’, ‘탈계층화’와 ‘탈가족화’를 의제화했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가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면,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란 개인이 가족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류연규, 2007: 5-7).

11)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가가 돌봄과 인간발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발상을 강화한다. 이러한 발전 모델 속에서,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가족이 스스로의 자원을 소진해 버린 아주 드문 경우만 국가가 가족에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잔여적이다(아이크너, 2025: 78-84). 그 결과 한국의 복지체제는 국가와 시장이 돌봄에 개입하는 수준이 낮고, 돌봄 노동이 비공식적이고 무급적인 가족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류연규, 2007: 3-4).

2024: 523). 즉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 또 다른 위험을 생산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험을 감당할 자원이 부족한 개인과 가족은 탈출구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주변화된 집단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내몰리는 사회적 환경에 처하게 된다. 특히 돌봄을 광의의 의미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며 복원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種)의 활동”(트론토, 2024: 73)으로 정의한다면, 가족 살해 후 자살은 돌봄의 책임을 사적 영역으로 구획된 가족에게 떠넘긴 구조적 부정의가 누적해온 돌봄 위기의 자기파괴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3) 페미니스트 교육학과 사회정의

사회정의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핵심 원리로 하여, 가치 있는 재화와 필수적 부담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분배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윤리적 개념이다(레비, 2021: 27). 이러한 사회정의의 관점은 단순한 자원의 재분배를 넘어,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지향까지 포함한다(차갑부, 2023: 75).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교육은 사회 부정의에 대응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교육은 관용, 평등, 참여의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응집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구성원들이 불평등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의 사회정의적 함의는 페미니즘, 시민권 운동, 의식화 운동, 다문화 교육 등의 흐름 속에서 고찰되어 왔으며 이들 모두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정의 교육은 교육을 자유의 실천으로 이해한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비판교육학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프레이리(2022)는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사회적 권력 관계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대화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정의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인의 기회와 잠재력을 제한하는 권력 관계에 도전하며 이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차갑부, 2023: 75-76). 나아가 사회정의 교육은 소외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실천을 요구한다. 특히 성별, 계급 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경험되는 불평등과 억압이 제도적 환경 속에서 반복된다는 점에서 교육은 이러한 구조를 드러내고 재구성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한다.

특히 페미니스트 교육학(feminist pedagogy)은 사회적 억압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제도적 환경에서 사회적 억압이 반복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사회변화의 필요성에 관심 갖고 소외집단에 권한을 부여하며 공동체를 구축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다(차갑부, 2023: 407). 여기서 페미니스트 교육학이 사회적 불평등을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조직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 주목함에 따라, 기존의 중립적·보편적 교육 담론이 간과해 온 권력관계와 억압의 구조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돌봄과 생계의 책임이 성별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이러한

불평등을 개인의 선택이나 역할 수행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도록 하는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페미니스트 교육학은 교육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변혁하려는 보다 확장된 관점, 즉 사회정의 페미니즘 교육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사회정의 페미니즘 교육의 관점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도덕적 실패로 환원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한다. 특히 돌봄의 책임이 성별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결합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의 조건을 충분히 통제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구조적 억압과 불평등이 개인의 삶에 응축된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정의 페미니즘 교육은 이러한 구조적 억압과 착취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실천적 지향을 갖는다. 교육은 교실 내부의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나아가 학습자는 교육을 통해 획득한 문제의식을 일상과 사회적 실천 속에서 적용하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억압적 구조에 도전하는 주체로 형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정의 페미니즘 교육은 사회적 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변화시키는 집합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한다.

따라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사회정의 페미니즘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원인을 돌봄과 생계의 부담이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부정의로부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조건에 대한 집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을 통해 형성된 비판적 인식이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유형적 특징: 계층화·가족화·젠더화된 자살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사건 서사를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억압과 위협의 교차성을 다음의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1) 가족책임 자본주의 및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험, (2) 가족관계 내 대인적 상호작용의 위기, (3) 가부장적 사회규범 및 돌봄의 시장화·가족화·젠더화, (4) 체화된 인격성과 개인적 특질이 그것이다. 이는 바스카(Bhaskar, 2024)가 사회적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한 네 평면의 분석틀을 변형한 것이다.¹²⁾ 이 모델의 장점은 사회 현상의 원인을 단일한 수준으로(예: 정신적·심리적 특질)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개인 행위에 앞서 존재하는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인격성의 차원을 아울러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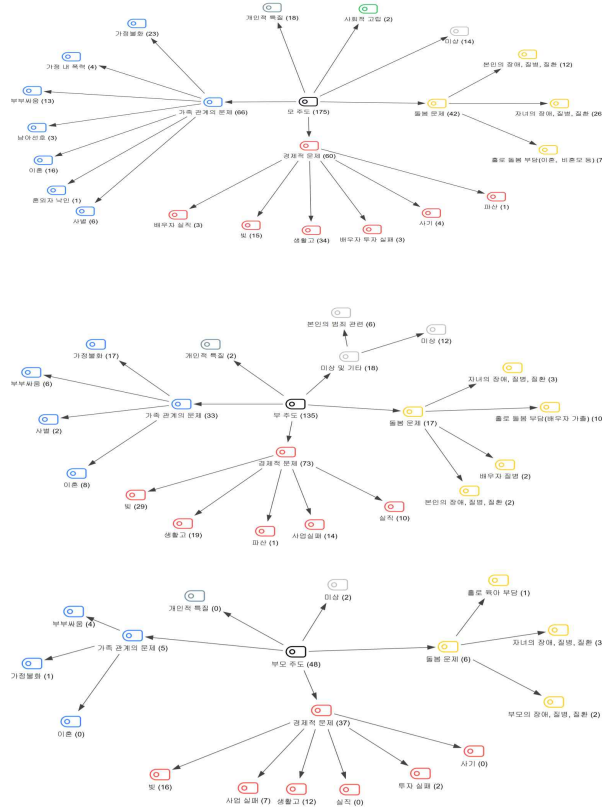
12) 사회적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 단일 수준의 분석을 넘어서기 위해 바스카(2024)가 제안한 네 평면 사회적 존재 모델을 활용한다. 이는 모든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존재함이 a) 자연과의 물질적 교류, b)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c) 사회구조, d) 체화된 인격성의 총화라는 4차원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생각을 나타낸다(바스카, 2024: 119).

〈그림 1〉 가족 살해 후 자살의 메커니즘



이 분석의 전제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다면적인 사회적 맥락이 개입하는 복합적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뇌수종을 앓는 아들의 병원비 마련 문제와 이혼을 비관해 어머니가 자녀 둘을 살해 후 자살한 사건(「동아일보」, 2004.4.4.)에서 보듯,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복합적인 기제들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는 기사에서 언급된 원인을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사건에 복수의 원인이 관여한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코딩하였다. 예컨대 위 사례는 돌봄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로 동시에 분류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메커니즘



미리 밝히자면,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녀 살해 후 자살 358건 중 171건이 이에 해당했으며, 이는 생활고, 빚,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실직, 사기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이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사실상 모두 생활고로 귀결될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세부 구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생활고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이 겪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가부장적 가족관계 내 대인적 상호작용의 위기가 104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가정불화, 가정 내 폭력, 이혼, 남아선호, 사별 등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로 자유주의적 국가-가족관계에서 비롯된 돌봄의 가족화/젠더화 요인이 65건으로 나타났으며, 홀로 돌봄 부담, 본인/자녀의 질병, 질환, 배우자 가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특질, 특히 우울증이 원인으로 설명된 사건이 20건이었으며, 기사에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34건)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젠더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각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위험요인: 고유한 사회구조

앞서 말했듯 사회경제적 위험(social-economic risk)은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성에게도 두 번째로 중요한 자살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영향의 양상에는 뚜렷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성의 경우 자녀 살해 후 자살 전체 135건 중 73건(54.1%)이 사회경제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는 여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175건 중 60건(3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과 빈도를 보였다. 즉,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에 이르는 사례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주목할 점은 남성의 경우 만성적인 생활고보다는 빚, 실직, 사업 실패, 부도 등과 같은 경제적 지위의 급격한 상실이 자녀 살해 후 자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실직이나 사업 실패를 원인으로 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남성에게서만 발견되었으며, 여성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만성적인 생활고나 본인 혹은 배우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녀 살해 후 자살에 이르는 사례는 존재하였으나, 본인의 경제적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남성이 가족의 주요 생계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여전히 남성의 경제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조건을 나타낸다. 반대로 이는 여성이 주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이분법적 성 역할 분업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남성의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와 하향 이동은 개인 차원을 넘어 가족 전체의 위기와 위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이러한 양상은 역설적으로 여성들이 가계의 경제적 기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맥락적 조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젠더 규범과 성별 분업 구조는 남성에게는 생계부양자로서의 과도한 책임과 압박을, 여성에게는 경제적 주체로서의 제한된 위치를 부과하며,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인구집단에 위치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취약성과 부담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위기: 사회적 상호작용

다음으로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중첩된 대인적 위기(interpersonal crisis)는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유형의 위험으로, 남성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유형의 위험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 주도 자녀 살해 후 자살 175건 중 66건(37.8%), 남성 주도 자녀 살해 후 자살 135건 중 33건(24.4%)이 가부장적 관계의 대인적 위기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관계의 대인적 위기는 가정불화, 이혼, 부부싸움, 사별, 가정 내 폭력, 남아선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가정불화, 이혼, 부부싸움, 사별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성에 비해 위험 유형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즉 양 성별 모두 가정불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성은 보다 다양한 관계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분석 결과, 평소 주벽이 심한 남편이 술에 취해 아이를 과도하게 훈육하자 남편에게서 도망쳐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사건(「중앙일보」, 1990.6.22.), 지병이 있음에도 남편의 지속적인 출산 요구와 폭력을 비판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사건(「중앙일보」, 1992.12.4.), 부부싸움 후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독살한 후 어머니도 독극물을 마신 사건(「서울신문」, 2016.2.14.), 평소 의처증을 보이던 남편이 부부싸움 후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국민일보」, 1994.12.26.), 아내의 수술 후유증과 딸의 가출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던 남편이 아들에게 ‘우리(자신과 아내)가 없으면 너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며 아내와 아들을 죽이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노컷뉴스」, 2011.8.18.) 등이 확인된다. 이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배우자와 더 이상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자신이 홀로 자살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여성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감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배우자 개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 자신 이외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 체계의 현실적 부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녀와 함께 가정을 떠났다가 자녀 살해 후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가정 내 관계의 위기가 곧바로 돌봄의 위기로 전이됨을 보여준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여성들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즉각적으로 이탈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즉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관계적 부정의의 차원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부부싸움 후 화감에 혹은 배우자에 대한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감행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아이와 자신이 죽으면 평소 생활고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던 남편이 반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녀 살해 후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다는 어머니의 진술(「MBN 뉴스」, 2016.8.6.)이 그러하다. 이를 통해 자녀가 상대 배우자를 향한 복수의 수단으로 이해되며, 그 기저에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는 가부장적 가족주의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자녀의 생명에 대한 가족주의적 관념은 인식적 부정의의 한 형태이다.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6조는 “국가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생명에 대한 권리는 아동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생사여탈권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아동이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점이 양육자 혹은 보호자가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된 결정권과 영향력은 가부장적 가족주의 관념이 부모 역할에 부당하게 부여한 사회적 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를 아울러 볼 때, 한국의 가족주의에 기반한 인식적 부정의가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바로 그 환경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과정이 자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로 호명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및 담론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3. 돌봄의 가족화와 젠더화: 사회문화·제도적 규범

사회문화적 차원(social-cultural dimension)에서 돌봄의 가족화·젠더화는 여성 전체 사건 175건 중 42건(24%), 남성 135건 중 17건(12.5%)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녀의 장애·질병·질환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 비혼모 등의 이유로 홀로 자녀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직접적인 원인인 사건이 25건, 본인의 장애·질병·질환으로 자녀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2건으로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남성의 경우, 홀로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원인은 모두 배우자 가출로 확인되었다. 배우자 가출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점은 평소 자녀 돌봄을 전담하던 아내의 부재가 남성에게 급격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부담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 이는 생계노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압박이 남성이 주도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남성 사례에서 본인의 장애·질병·질환으로 인한 돌봄 곤란이 2건, 자녀의 장애·질병·질환으로 인한 사례도 3건 확인되었다. 이 사례들이 여타의 여성 주도 사례와 구별되는 점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돌봄 부담을 느끼고 부 주도 자녀 살해 후 자살에 이른 경우라는 점이다. 이는 배우자의 질병이 기존에 여성 배우자가 수행하던 자녀 돌봄의 책임을 남성에게 이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야기하고, 배우자에 대한 돌봄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족관계 내 돌봄이 위계적인 성별 분업에 따라 조직되어 왔으며, 가부장적 가족 관념 속에서 남성은 주로 생계부양자로, 여성은 돌봄 담당자로 역할이 고정되어 왔던 관계적 부정을 반영한다. 그 결과, 돌봄을 전담하던 여성 배우자의 부재 질병 등으로 인한 역할 수행의 중단은 기존의 성역할 분업을 내면화한 남성에게 급격한 위기로 인식/경험되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동시에 돌봄이 일상적으로는 남성의 책임에서 배제되어 있다가 예외적 상황에서만 감당 불가능한 부담으로 다가옴을 보

13) 이 점에서 최근 제안된 아동·청소년의 가족구성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구성권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반으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족을 떠나는 선택 역시 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폭력이나 방임, 정서적 학대, 감시와 통제를 동반하는 불평등한 관계가 강제된다면 가족구성권은 침해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예외일 수 없다(김현경, 2025: 81-82).

여준다.

나아가 여성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과도한 돌봄 부담은 돌봄이 여성의 본질적 역할로 자연화되는 문화적 규범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돌봄 노동의 저평가와 사회적 자원 배제라는 착취 및 주변화의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남성의 사례에서는 만성 위장병의 악화로 비관에 빠져 일가족 살해를 시도한 뒤 자살한 경우(「서울신문」, 1992.3.9.)와 같이, 주로 아내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하는 패턴이 나타난다.¹⁴⁾ 이렇듯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의 역할 실패가 일가족 살해 후 자살로 나아가는 경향은, 가부장적 가족 규범과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불가분한 관계를 드러낸다.

4. 개인적 특징: 체화된 인격성

돌봄 위기의 국면에서 역할 수행의 실패는 유서에서 ‘미안함’이라는 감정으로 반복해서 재현된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개인적 정서의 표출이라기보다,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자녀와 자신의 돌봄 부담을 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혹은 아픈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함(powerlessness)’ 등 누적되고 체화된 인격성(embodied personality)의 접합을 나타낸다.¹⁵⁾ 그렇기에 유서에 드러난 죄책감은 개인의 내면에 고립된 감정이 아닌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취약한 돌봄 조건 속에서 형성된 관계적·사회적 감정이다. 한편으로 유서에는 책임감 또한 뚜렷하게 드러난다. 돌봄에 대한 공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남겨둔 채 홀로 죽음을 선택할 경우, 자녀의 이후 삶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살해를 통해 끝까지 돌봄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했다는 의식도 확인된다. 이는 돌봄이 사회적으로 조직되기보다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며, 자녀 살해 후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돌봄 책임을 수행하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많은 사건 보도에서 개인적 특질로서 우울증·정신병리와 관련하여 뚜렷한 젠더 차이가 확인된다. 남성의 경우 전체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기사 중 우울증이나 정신병리가 원인으로 명시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였다. 이들 사례에서도 자녀의 진학 문제와 같은 가족 내 갈등이 함께 제시되어 우울증이 단독 원인으로 설명되지는 않았다. 즉 남성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개인의 정신적 문제보다는 관계적·구조적 요인과 결합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우울증 또는 정신병리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단일 원인으로 제시된 보도 사례가 18건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건의 구체적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우울증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무렵부터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사례에서는 출산 이후의 ‘산후우울증’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여성의 자살을 사회-관계적 맥락보다는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귀속시키는 경향을 내보인다. 이는 여성을 본질적으

14) 여성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배우자를 포함한 일가족 살해가 없으며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빛에 시달리고 있다. 애들에게 미안하다. 당신들이 원하는 이 길을 택한다.”(「중앙일보」, 2001.7.4.)는 여성의 유서, “미안하다. 정리하고 가겠다. 가족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중앙일보」 2020.2.13.) 등의 사례는 무력함과 미안함의 서사가 교차되는 단면을 보여준다.

로 감정적이고 취약한 존재로 상정하는 젠더 고정관념이 사건 해석과 보도에 개입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복합적 사건을 개인의 정신병리로 환원하는 해석학적 부정의를 드러낸다.¹⁶⁾

결과적으로 이러한 젠더화된 해석체계는 여성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과 사회적 책임을 가시화하기보다, 이를 사적 영역의 문제로 은폐하는 데 일조하는 문화제국주의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담론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중심적 해법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V. 토론 및 함의

이 연구는 가족 살해 후 자살을 바라보는 주류 자살학의 해석체계가 가족 살해 후 자살에 관여하는 실제적 원인들(real causes)을 은폐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사회정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다면적인 발생 경로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의 인구집단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빚을 갚을 수 없거나, 만성적인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특히 실직이나 사업 실패, 파산과 같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때, 위기의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의 희생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계층화되고 주변화된 특성을 드러낸다.

둘째, 돌봄의 젠더화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는 돌봄의 시장화/가족화와 불가분한 관계를 맺는다.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는 단순히 가족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변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환하고 시장 메커니즘 안으로 편입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아울러 과거처럼 가족 내에서 여성 중심의 돌봄 수행이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돌봄을 여전히 가족 내에서 해결할 것을 강제하는 가족화되고 젠더화된 돌봄 구조는 여성들로 하여금 ‘이중의 업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돌봄의 부담 속에서 여성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본인이 아파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감행하는 사회 과정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¹⁷⁾

셋째, 가족관계에서의 위기가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가족관계의 대인적 위기는 주로 가정불화와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가부장 역할의 실패로 인한 가족 내 불화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노동과 가족 내 돌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부부 내 성역할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발견이 시사하는 학문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발생 과정에 자살의 젠더화와 돌봄 부정의의 차원이 개입하고 있

16) 또한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IMF를 거치면서 발생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발생한 자살을 우울증과 연관시키는 생의료화 담론의 부상(이현정, 2024)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17) 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한 모 주도 자녀 살해 후 자살은 30대 엄마가 장애가 있는 두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한 사건(「세계일보」, 2022.8.24.), 엄마가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이를 살해한 후 자살을 한 사건(「중앙일보」, 2025.4.27.) 등에서 드러난다.

음을 일러준다. 여기서 ‘젠더화’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인식적 차원에서 고립된 개인(isolated individual)이라는 원자론적 인간관과 정신병리학에 기반한 주류 자살학의 체계 모니는 젠더편향적 해석을 야기함으로써 원인 규명과 정책 대상 설정을 왜곡하고, 관계적·제도적 차원의 부정의를 은폐한다.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사적 영역으로 구획된 가족에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구조가 가족 내 성별 분업과 부모-자녀의 권력관계를 매개로 생명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자살의 젠더화된 경로가 존재한다. 이를 아울러 볼 때 ‘젠더’는 단지가해자의 성별 변수가 아니라, 해석·책임·정책의 분배를 규정하는 기제이자 지식-권력의 작동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한국의 가족 살해 후 자살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억압이 개입하는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천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례에 기반해 사회가 그동안 주변화하고 비가시화했던 비공식 돌봄 영역을 공적 담론으로 끌어내어 기존의 돌봄 체계가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영의 구조적 부정의와 억압 개념은 돌봄 노동의 착취와 주변화, 돌봄 제공자의 무력함, 모성 이데올로기 등 문화제국주의, 가정 내 폭력의 묵인과 정상화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분석하는 틀을 안내함으로써 돌봄을 윤리적 덕목이 아니라 정치적·제도적 책임으로 위치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인간의 생애주기 동안 누구나 돌봄의 필요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돌봄은 가족 내부의 사소한 활동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사안이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의 차원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가족이 구성원의 돌봄 필요를 충족하고 인간발달을 돕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조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아이크너, 2025: 126). 이를 인정한다면, 정신의학 차원의 예방이나 치료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공적 활동으로서 돌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해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언론 보도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건 서사를 분석했기에 보도의 프레임과 정보 접근성에 따라 특정 원인이 과잉 대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해 텍스트에 기반하되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사회적 맥락과 조건을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다른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경찰청 수사기록과 유서 등 여러 자료를 보완해 계층·지역·인종·장애·가족형태 등 여러 차원의 불평등과 위계가 교차하는 가족 살해 후 자살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심층 탐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적·실천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사회정의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적 실패로 환원하는 기존의 인식은 사회의 억압과 불평등을 비가시화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교육은 이러한 사건을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사회정의 페미니즘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사회적 조건을 연결지어 이해하고, 돌봄의 책임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은 교실 내부의 인식 변화에 그치지 않고, 불평등한 돌봄 구조와 사회경제적 위험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자녀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으로서, 돌봄의 책임을 보다 정의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세원·정재승·홍혜인·이순주·허영혜·박재빈·Adedoyin Aderinwale·오승윤(2024), 『유서분석을 통한 살해 후 자살의 특성 연구』, 서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김명숙·장창곡(2022),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동반자살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중매체에 보도된 동반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제48권 3호, 141-151쪽.
- 김명희(2012), “한국사회 자살현상과 『자살론』의 실재론적 해석: 숙명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96호, 288-327쪽.
- 김명희(2022), “탈진실 시대 사회적 고통과 실재론적 질적 연구의 가능성: 5·18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 접근”, 『사회와이론』, 제43권, 199-243쪽.
- 김명희(2025), 『다시 쓰는 자살론: 자살국가와 사회정의』, 서울: 그린비.
- 김영란(2014), “한국의 사회적 위험 변화와 가족위험”, 『가족과 문화』, 제26권 2호, 151-188쪽.
- 김영천·정상원(2017), 『질적연구방법론 5 : Data Analysis』,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창(2024),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II) - 주택의 금융화와 인클로저”, 『대한지리학회지』, 제59권 4호, 522-541쪽.
- 김정진(2006), “동반자살과 예방정책 수립방안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4권, 125-157쪽.
- 김지혜(2024), “아동학대 사건 중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신문 기사 분석: 가해자 특성에 따른 자녀 살해 경향”, 『미래사회복지연구』, 제15권 2호, 95-125쪽.
- 김현경(2025), “아동·청소년의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연구소(편), 『가족신분사회 : 호주제 폐지 이후의 한국가족정치』, 광양: 와온, 82-101쪽.
- 김혜영(2016), “‘동원된 가족주의’의 시대에서 ‘가족 위험’의 사회로”, 『한국사회』, 제17권 2호, 3-44쪽.
- 김효창(2010), “자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6권 2호, 165-178쪽.
- 김희강(2022), 『돌봄민주국가』, 서울: 박영사.
- 네들턴, 사라(1997),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조효제(역), 파주: 한울아카데미(Nettleton, Sarah(1995), *Th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Cambridge: Polity Press).
- 뒤르케임, 에밀(2008), 『자살론』, 황보종우(역), 파주: 청아출판사(Durkheim, Émile(1979[18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London: Routledge).
- 류연규(2007),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탈가족화 수준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제20권, 259-286쪽.
- 바스카, 로이(2024), 『계몽된 상식: 비판적 실재론의 철학』, 김명희·서덕희·서민규·이기홍(역), 파주: 한울아카데미(Bhaskar, Roy(2016), *Enlightened Common Sense : The Philosophy of Critical Realism*, Hartwig, Mervyn(ed.), New York: Routledge).
- 서찬석(2006), “부모의 자녀 동반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1990-2004”, 『연세학술논집』, 제43권, 57-81쪽.
- 아이크너, 맥신(2025), 『돌봄지원국가』, 김희강·나상원·강묘정·안형진(역), 서울: 박영사(Eichner, Maxine(2010), *The supportive state : families, government, and*

- America's political ide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에스핑-안데르센, 요스타(2006),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형신·정현주·이종선 (역), 서울: 일신사(Esping-Andersen, Gøsta(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영, 아이리스 매리언(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역), 서울: 모티브북 (Young, Iris Marion(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영, 아이리스 매리언(2018),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허라금·김양희·천수정(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Young, Iris Marion(2011), *Responsibility for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이미숙(2007),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탐색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20호, 153-175쪽.
- 이세원(2023), “아동학대사망으로서 자녀살해 후 자살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 72권 4호, 1-30쪽.
- 이도암(1965), “한국사회의 집단자살분석”, 『청맥』, 1965년 6월호, 93-104쪽.
- 이소진(2023), “성별화된 위험이 야기하는 존재론적 불안: 청년여성의 자살생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9권 3호, 37-72쪽.
- 이현정(2012), “‘부모-자녀 동반자살’을 통해 살펴 본 동아시아 지역의 가족 관념: 한국, 중국, 일본 사회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 『한국학연구』, 제40권, 187-227쪽.
- 이현정(2024), “우울증이 생의료화의 대상이 되기까지: 제약회사, 정부, 미디어, 의료 전문가의 협업”, 『문화과학』, 제117호, 42-63쪽.
- 정승민(2004), “동반자살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415-454쪽.
- 정승화(2011), “1950~60년대 한국사회 경제구조 변화와 가족동반자살”, 『내일을 여는 역사』, 제42호, 180-200쪽.
- 제영표(2004), “자살과 정신장애”, 『생물치료정신의학』, 제10권 1호, 3-10쪽.
- 차갑부(2023), 『사회정의와 휴머니고자』, 파주: 교육과학사.
- 최아라(2022), “자녀살해 후 자살에 관한 연구: 주요일간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3권 4호, 2245-2260쪽.
- 최진화·박기환(2022), “국내 살해 후 자살의 현황과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제8권 1호, 67-91쪽.
- 트론토, 조안 C.(2023), 『돌봄민주주의』, 김희강·나상원(역), 서울: 박영사(Tronto, Joan C.(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프레이리, 파울로(2022),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허준(역),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 프리커, 미란다(2025), 『인식적 부정의: 권력, 편견, 그리고 앎의 윤리』, 유기훈·정선도(역), 파주: 오월의봄(Fricker, Miranda(2007), *Epistemic Injustice: Power, Prejudice, and Knowing*, Oxford: Clarendon Press).
- Button, Mark E. and Ian Marsh(2020), “Introduction”, Button, Mark E. and Ian Marsh(eds.), *Suicide and Social Justice: New Perspectives on the Politics of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1-12.

- Canetto, Silvia Sara. and Mohsen Rezaeian(2020). "Protest Suicide among Muslim Women A Human Rights Perspective", Button, Mark E. and Ian Marsh(eds.), *Suicide and Social Justice: New Perspectives on the Politics of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102-121.
- Jaworski, Katrina(2014), *The Gender of Suicide: Knowledge Production, Theory and Suicidology*, Farnham, Surrey: Ashgate.
- Leung, Doris Y. and Betty P. M. Chung(2019), "Content Analysis: Using Critical Realism to Extend Its Utility", in Liamputtong, Pranee(ed.),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Health Social Sciences*, Singapore: Springer, pp.827-841.
- Sandelowski, Margarete(2010), "What's in a Name? Qualitative Description Revisite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3(1), pp.77-84.
- Yoon, Myeong Sook, Hyun Kyoung Yu, and Soo Bi Lee(2024), "Filicide Suicide in South Kore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39, pp.315 - 324.
- Weber, Robert Philip(1990), *Basic Content Analysis*,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기타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4), <사망원인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DT_1B34E01%26orgId%3D101%26
(최종검색일 2026년 2월 24일).
- 「국민일보」, 1994.12.26., "인륜붕괴 살인/외도아버지 흉기살해/딸 농약먹여 동반자살",
<https://www.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41226000001904>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노컷뉴스」, 2011.8.18., "가정불화로 일가족 3명 집단 자살 시도, 2명 숨져",
<https://www.nocutnews.co.kr/news/4212205>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노컷뉴스」, 2014.3.5., "익산 동반자살 기도 여성 "남편에게 자녀 주기 싫어"",
<https://www.nocutnews.co.kr/news/1197320?c1=191&c2=193>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동아일보」, 2004.4.4., "'아이들이 무슨 죄가...' 이혼갈등 주부 두아들과 투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40404/8046679/1?comm=> (최종검색일 2026년 3월 5일).
- 「서울신문」, 1992.3.9., "경관,가족 쏜뒤 권총자살/부인·9살 아들 사망... 6살 아들은 부상",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20309019002>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서울신문」, 2016.2.14., "3살 아들 안고 한강 투신했다 혼자만 빠져나온 20대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4500018>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세계일보」, 2022.8.24., “또 비극… 장애 아들 죽이고 극단 선택한 30대 엄마”,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4520684>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88>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중앙일보」, 1990.6.22., “가정불화 주부 두 자녀를 살해/자신은 자살 미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72249>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중앙일보」, 1992.12.4., “남편 구박에 비관/딸 목졸라 숨지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767854>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중앙일보」, 2001.7.4., “빛 때문에… 일가족 3명 동반자살”,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00328>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2일).
- 「중앙일보」, 2020.2.13., “목동 한의사 부부 비극…아내·두아기 살해뒤 8장 유서에 “미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05863>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2일).
- 「MBN 뉴스」, 2016.8.6., “22개월 된 아들 살해…20대 여성 체포”,
<https://www.mbn.co.kr/news/society/2971843>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TJB」, 2025.9.14., “자녀·동반자 등 ‘살해후 자살’ 8년간 416명…동반자살 1천519명”,
<https://www.tjb.co.kr/real-time-news/category/view/id/84293/version/1>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12일).
- 「중앙일보」, 2025.4.27., “난치병 앓던 생후 6개월 아기와 30대 엄마 숨진 채 발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738> (최종검색일 2026년 1월 2일).
- 「중앙일보」, 2026.1.4., “또 아동 두 명 떠났다…5년간 70명,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26> (최종검색일 2026년 3월 4일).

「자녀 살해 후 자살과 페미니즘 사회정의 교육」 에 대한 토론문

장지은(계명대 여성학연구소)

이 발표문은 한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 사건을 돌봄 정의와 페미니스트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매우 중요한 시도이다. 특히 기존 자살 연구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정신병리로 환원해온 한계를 비판하고, 구조적 부정의와 돌봄의 젠더화를 분석의 중심에 둔 점은 학문적·정치적 의의가 크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사적 영역의 개인적 비극이나 가족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사회구조적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기존 연구들이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통해 아동의 비자발성을 지워왔다는 문제제기 역시 매우 설득력 있다. 또한 돌봄의 가족화와 젠더화를 핵심 문제로 설정함으로써 자살 연구의 새로운 이론적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국가와 시장이 이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 구조가 취약계층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원인이 사회경제적 요인이라는 점을 언론 분석을 통해 제시한 점도 의미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점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의 사회정의 패러다임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억압의 교차성을 포괄하려 하고, 페미니스트 교육학을 통해 이러한 구조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또한 바스카의 4차원 분석틀을 도입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바스카의 분석틀은 사건을 단순히 분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추론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틀이 매우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석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특히 돌봄과 젠더 구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살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언론 보도는 이미 특정한 관점과 편향을 내포한 담론적 산물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내용분석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논문 전반에서는 젠더 편향이나 인식적 부정의와 같은 담론적 문제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방법론과 문제의식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질적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하되, 언론 보도에 내재한 담론적 프레임을 함께 분석하는 혼합적 접근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또한 기사 제목과 본문 사이의 차이를 언급했는데, 이러한 차이를 분석 과정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루었는지, 표본 구성 방식과 코딩 과정의 신뢰도 확보 절차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구조적 억압이 어떻게 자살과 살해라는 극단적 폭력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중간 메커니즘’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돌봄 부담이 경제적 압박을 주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되며 정서적 고립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같이, 구조와 행위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분석의 설득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정치적 과정과 돌봄의 젠더화 메커니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남성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구조와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정교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젠더 분석이 더욱 입체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연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2부 연구자 주제 발표

1. 부산-경남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젠더 교육의 현황과 과제: 달라진 것 & 남아 있는 것

발표 최이숙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토론 주현희 (부산대 교양교육원)

2. 지역 페미니즘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 현황과 수강생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2011~2026)

발표 김인선, 이수경, 최나현 (부산대 여성연구소)

토론 주현희 (부산대 교양교육원)

3. 반/페미니즘과 극우: 지역 청년여성의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토론 이지현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4. 대구·경북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원 여성학과의 역할: 계명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최윤서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토론 이지현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부산-경남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교육의 현황과 과제: 달라진 것 & 남아 있는 것

최이숙(동아대 젠더어팩트 연구소)

목 차

1. 들어가며-이 연구가 놓인 지점
 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젠더, 그 중요성
 3. 페미니즘 관련 교과목의 개설 현황
 4.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5. 젠더 지형의 변화와 운영의 어려움
 6. 누가 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
-

1. 들어가며-이 연구가 놓인 지점

이 연구는 2019년에 실시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의 실태와 2026년 관련 커리큘럼 및 교육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지난 동안 (지역) 대학 및 대학 사회의 변화, 그와 맞물린 페미니즘 교육의 지형 변화의 자장 속에 놓여 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의 문이 닫힐 것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을만큼,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축소,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속에서 지역 특히 지역 사립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학의 교수자는 입시철이 되면 학생을 충원하기 위한 세일즈맨으로 활약한지 오래이다. 대학의 문화 역시 바뀌었다. ‘취업’이 학생¹⁾ 뿐 아니라 대학/학과 평가의 핵심 지표로 자리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중시하는 학생들의 분위기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른 전통적 지식 생산 및 소비의 위기 등이 겹치면서,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의 위치는 무너진 지 오래이다.²⁾ 이러한 구조적 조건의 변화 속에 사회의 교양과 비판적 사고 제공의 역할을 담당했던 인문사회과학 계열학과는 2018년 1662개였던 2022년 1615개로 줄어들었다(경향신문, 2024. 11.7).

7년의 시간 동안 페미니즘 교육의 변화, 페미니즘 교육 지형은 이러한 대학구조의 변동과 함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사회 변동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대학의 교양 수업에서 ‘성’ 강의 지형을 탐색한 김민정(2020)의 연구나 C대학의 교양강의를 심층 분석한 김지영·추주희·신지원(2023)에 의하면 리부트 국면 이후 대학 교양 강의에서 ‘성’ 관련 강의의 수는 큰

1) 한국대학신문의 2024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대학생의 절반 정도는 대학을 취업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신문, 2024. 10. 1).

2) 교수자의 관점에서 본 지역 대학의 위기 및 그 양상에 대한 논의는 노중기(2024)를 참고할 것.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리부트 이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성평등 커리큘럼을 분석한 김세은 외(2019)의 연구에 의하면, 페미니즘 관련 과목이 미약하나마 증가한 분위기 역시 감지되고 있다.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일상의 언어이자 스타일로 자리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예를 들면, 김현미 2021), 수도권에 비해 둔감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의 현실(추주현, 2022), 반페미니즘 정서 등은 페미니즘 관련 교과와 존립과 운영이 맞닥뜨린 난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형에 유의하면서 이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페미니즘 관련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강의자들이 맞닥뜨린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페미니즘 리부트 국면에서 2019년에 수행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커리큘럼 및 실태 및 개선 방안 조사’의 내용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 경남 지역에 해당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 인터뷰³⁾, 관련 교과목의 커리큘럼 분석, 그리고 사회학과에서 <젠더 & 섹슈얼리티>를 강의했던 본 연구자의 자기 기술지를 바탕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젠더, 그 중요성

1) 미디어 연구에서의 젠더, 그 경향

본격적인 잠시 질문에서 시작하자. 미디어란 무엇인가? 우리는 미디어 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라디오 등등. 기술적인 매체를 생각한다. 누군가는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미디어라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미디어일까 아닐까? 나의 눈빛, 나의 표정을 통해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낸다.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 메시지이고,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이다. 어쩌면 아주 예전부터 우리는 미디어와 함께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몸에서 편지로, 편지에서 책으로, 책에서 일상성과 정기성을 띤 인쇄 매체로, 인쇄매체에서 전축, 라디오, 사진,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모바일 미디어 그리고 AI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에는 언제나 미디어가 있어왔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미디어와 개인-사회가 맺는 관계, 미디어가 사회를 재조직하는 방식일 뿐이다.

제2물결 페미니즘의 부상, 영국의 현대 문화 연구소의 형성 등과 함께 1960대 들어서면서 페미니즘적 시각의 미디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매스 미디어 시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성인지적 관점의 미디어 연구의 분야 및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1>과 같다.

3) 인터뷰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직위	특이사항
A	교수	2019년 인터뷰, 2023년 퇴임
B	강사	2019, 2026년 두차례 인터뷰
C	교수	2026년 인터뷰
D	교수	2026년 인터뷰

그 외에 미디어 분야 젠더/페미니즘 관련 교과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대, 동의대, 조선대 교수와도 미니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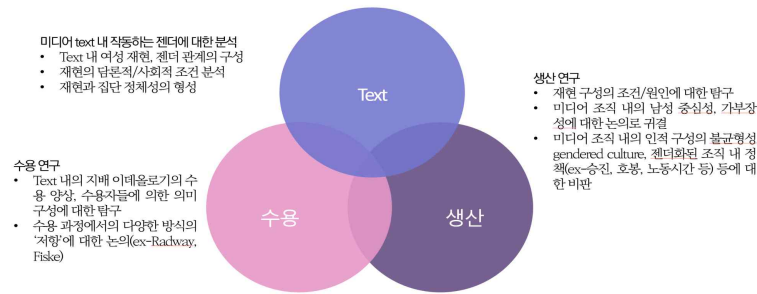


그림 1 전통적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젠더 연구의 영역

미디어와 젠더 연구는 전통적으로 생산-텍스트-수용의 3가지 측면을 강조하였지만, 김수아(2018)가 지적하였듯이 가장 대표적인 경향은 텍스트 분석-재현 연구-이었다. 재현 연구는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및 젠더 편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⁴⁾ 재현 연구와 달리 생산연구는 특히 민속지를 활용한 생산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었다. 이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미디어 생산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엘리트 지향적이며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현장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추정된다.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미디어로 포화되면서 연구자들의 질문은 사람들이 특정 미디어를 채택하는 역사적 맥락과 함께, 채택된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행위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가로 모아지고 있다.⁵⁾ 연구의 관심 역시 재현을 넘어, 재현과 함께 미디어 공간 내에서의 이용자의 수행, 그리고 특정한 방식의 수행 및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미디어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탐구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에 젠더 구조가 어떻게 스며드는지, 미디어가 기존의 젠더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성인지적 교육/커리큘럼의 의미

미디어가 일상이고, 일상의 모든 것이 미디어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젠더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연히 수용되는 젠더화된 질서에 대한 깨침이고 열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성인지적 교육의 의미는 크게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 및 플랫폼 생산자 양성의 관점,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성인지적 교육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생산 공간 내의 인력구조 및 조직 형태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예를 들면 김정희, 2017; 장은미·김세은·최이숙, 2021), 뉴스 생산 조직 내의 여성언론인의 증가 및 젠더 전담

4) 한국 YWCA, 민주화언론시민연합 등의 모니터링 사업도 미디어 재현 체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일환이다.

5) 스마트 미디어의 채택 과정에서 가정 내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작용하고, 스마트 폰의 채택 이후 가족 구성원의 소통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고 이들 간의 연대는 어떻게 창출되는 가에 대한 논의들이 대표적이다. 미디어 어포던스에 대한 관심은 비단 최근의 논의만은 아니다. Williams 텔레비전의 채택 과정은 유동적 사사화(mobile privatization)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보다 가족 중심적인 문화를 강화시켰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라디오는 집안에서 여성들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여성들의 매체로 탈바꿈하게 된 현상들은 유사한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구(예를 들면 젠더 데스크, 젠더 전담 기자)의 설치는 보도의 젠더 감수성을 전반적으로 고양시켰다. 젠더 데스크 설치 이후 언론보도 및 포털 댓글 변화(최이숙, 2025)가 시사하듯이, 미디어 생산자나 이들이 구성하는 생산 조직이 어떠한 경험과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는 한국 언론의 젠더 감수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 한국의 미디어 생산 인력 양성체계를 살펴보면, 공식적인 교육 보다는 미디어 산업 진입 이후 비공식적인 훈련에 입각한 경우가 많다. 이는 Youtube, 틱톡, 릴스 등 최근의 1인 미디어 환경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의 생산자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유일하게 받는 공식 교육은 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관련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인지적인 감각을 갖춘 미디어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관련학과에서 이를 키워줄 수 있는 커리큘럼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커리큘럼은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논의와 관점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우리사회 미디어 윤리를 정립하고 보다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3. 페미니즘 관련 교과목의 개설 현황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미디어 현상에 접근하는 교과들은 주로 문화 연구 전공자들이 담당해왔다. 이들은 미디어와 젠더·섹슈얼리티 관련 교과들을 개설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대중문화론, 미디어 문화, 미디어와 다문화, 미디어와 정체성, 수용자 연구, 디지털 미디어 문화, 영상 커뮤니케이션 등 전통적으로 젠더/섹슈얼리티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전공 교과에서 1-2주 정도 다루고 있었다.

2019년과 2026년 과목명에 젠더, 섹슈얼리티(또는 성) 등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한 교과목이 개설된 전국적으로 얼마나 개설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표1>과 같다.⁶⁾ 개설된 학과 중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임 교원(교수)이 해당 교과를 담당하였다.

강원대와 동의대, 인하대 폐지의 경우, 관련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던 전임 교수의 퇴임과 연관된다. 퇴임 이후에 학과의 교과 과정 재편 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 교원이 선발된 것이 아니라, 최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빅데이터, AI, 미디어 산업 등-의 인재가 선발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강원대와 동의대의 경우, 강사 선임을 통해 교과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서 젠더 교과 담당 교수가 강의하던 모든 관련 교과목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미디어와 젠더> 수업도 사라졌다.

6) 개설 교과목 현황에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2019년 조사 당시 젠더 관련 교과목이 운영되던 학교에서 젠더 교과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새로 개설된 학과의 경우, 2019년 가을 이후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 <커뮤니케이션 젠더 분과>와 부산 경남 지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지역여성연구회> 회원들과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미디어와 젠더 교과목을 열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을 연구 수행과정에서 재확인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 미디어 젠더 연구자들이 임용된 학교에 젠더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는지를 함께 살폈다.

7) 2개의 교과목 명이 병기된 경우, 2019년 이후 교과목 명이 변경된 사례이다.

<표 1> 2019년과 2026년 젠더 관련 교과목의 개설현황

대학	교과명	2019	2026
강원대	미디어와 젠더	개설	폐지
경남대	미디어와 섹슈얼리티	-	21년 개설, 24년 폐지
경희대	미디어와 젠더	-	개설
고려대	Media & Gender(영)	개설	개설
광운대	미디어와 젠더	개설	개설
동덕여대	미디어와 젠더	-	개설
동의대	미디어와 젠더	개설	폐지
서울여대	미디어와 젠더 세미나	개설	개설
숙명여대	여성과 미디어/미디어와 젠더	개설	개설
부산대	미디어와 젠더(대학원)	-	개설
이화여대	미디어와 젠더	개설	개설
인하대	Gender & Culture	개설	폐지
전북대	미디어와 성/미디어와 젠더	개설	개설
충남대	페미니즘과 문화	개설	개설
한림대	뉴스리터러시와 젠더	-	개설

2019년 이후 젠더 관련 교과목이 신설된 맥락은 2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젠더 연구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젠더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한림대, 경희대), 둘째는 인접분야 전공자로-예를 들면 미디어 산업, 커뮤니케이션 이론, 미디어 내러티브 등- 채용된 젠더 연구자가 임용 이후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경남대, 부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섹슈얼리티 관련 교과목의 변동 양상은 해당 과목이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정성은 해당 학과의 전임 교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2019년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내에서 젠더/섹슈얼리티 연구가 포함되는 문화연구 및 비판커뮤니케이션 전통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된 영역이며, 이러한 주변성은 지금의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변화(예를 들면 생성형 AI의 등장)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강사법의 시행으로 강사 임용을 각 학과에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상황 등도 관련 교과목의 안정성을 조금 더 위협하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술 변화와 산업의 흐름, 현장의 직무 교육을 중시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교육적 특성의 영향도 페미니즘 관련 교과목의 운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이는 관련 교과를 새롭게 개설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반면, 폐지는 상대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듯하다. 특히 지역 사립대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이론보다는 실무(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위주의 교육이 학과의 중심 부분으로 자리하였다. 동의대의 경우, 실용 분야(예를 들면 광고 등) 및 실습 교육이 교과과정의 핵심 부분이며, 교수 구성 역시 실용 분야 연구자-예를 들면 광고, 영상 제작 등-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비단 젠더 교과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언론사(言論史) 등 전통적인 이론 위주의 교과목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디어와 젠더 교과목, 대중문화, 미디어-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담당 전임 교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이론 영역 특히 젠더/섹슈얼리티 연구를 비롯한 비판이론 영역이 지역에서 더 두드러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원 교과라고 다르지 않았다. 부산대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된 <미디어와

젠더>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강생들은 모두 중국에서 유학온 여학생이었다. 담당 교수자는 “내가 양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해당 과목을 강의했으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강의 첫 시간에 했었다고 언급했다.

셋째 관련해서 대학교육의 위기는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페미니즘 관련 교과목의 존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경남대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년 9월 관련 연구자의 부임과 함께 21년 1학기 학과의 전공필수로 지정되었던 <미디어와 섹슈얼리티> 교과목은 2023년 전공선택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 좋은 강의 평가(5.0 만점의 4.9)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었다. 학과 내부적으로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학과의 평판이나 입학율 및 충원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다는 판단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고 언급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동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페미니즘에 입각한 교과목이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당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교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구자들의 선택은 일반 교과목에서 ‘젠더/섹슈얼리티’ 관련 내용을 하는 것이었다.⁸⁾ 2019년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부 교육의 전 교과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고군분투’라 할 것이다.⁹⁾ 미디어 생산자,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자를 양성하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자들은 1학년 전공필수로 젠더/섹슈얼리티를 비롯하여 장애, 인종, 계급등의 이슈를 다루는 교과목이 운영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강의 내용 구성과 그 어려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운영 중이었던 ‘미디어-젠더/섹슈얼리티’ 관련 교과목의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았다. 교과 목표는 대체적으로 젠더, 퀴어, 섹슈얼리티 및 장애/인종과의 교차성 관련 개념의 이해를 전제로, “미디어에서 매우 복잡하게 재현되는 미디어 젠더 문제에 대해 접근”(동의대)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의자들은 강의 초반부에서 ‘미디어 연구에서 젠더를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룬다.

애들한테 첫 수업 시간에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콘텐츠 기획자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섹슈얼리티 그 이제는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만을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과는 다른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주체성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콘텐츠 제작자들이나 기획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들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반면 후반부는 조금씩 상이하였는데, 동의대의 경우 19년 조사 당시 다른 지역의 미디어 학과와 유사하게 생산-재현-소비의 측면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를 소개하고, 성

8) 이는 비단 부산 경남 지역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대학에서도 현실은 유사하다.

9) 6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역시 다양한 이유로 최근에 와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영화/뉴스/드라마/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현상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15주를 구성되었다. 부산대의 대학원의 경우, 동의대에 비해 글로벌 미디어, 젠더 폭력, 디지털 미디어 현상, 퀴어 및 교차성 이슈가 이전에 비해 강조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들로 수강생이 구성되면서, 애초의 강의 계획안에서 한국의 페미니즘 지형에 대한 논의는 모두 사라지고 대신 기술과 젠더, 동아시아의 팬덤, 문화산업과 젠더 등의 토픽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경남대의 경우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핵심 개념을-섹슈얼리티, 성적체성, 퀴어, 트랜스 젠더, 게이, 레즈비언, 젠더 퀴어, 이성애적 가족등-중심으로 강좌를 배치하고, 현재의 미디어 공간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개 학교의 사례이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미디어 분야 젠더 교과에서 퀴어 및 교차성 이슈가 이전에 비해 더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교수자들은 젠더 교과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 및 관점의 문제(다음 장에서 논의할 예정임) 뿐만 아니라, 젠더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그보다 더 빠르게 미디어 환경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이 두 축을 모두 반영한 강의를 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다.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매년 다양한 총서를 발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교재가 outdate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7년 전과 유사하지만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¹⁰⁾

2019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open platform을 운영하여 연구자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1) 협업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 2) 지금의 구조적 변동의 속도로 인해 학회, 또는 대학 산하의 관련 연구소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강의 운영에 있어 흔히 페미니즘 교육에서 중시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의 공유, 일상의 성찰을 위한 활동이 2019년이나 2026년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동의대 수업의 경우, ‘숨겨진 여성의 역사 발굴하기’, ‘자신의 젠더 경험 써오기’, ‘미디어 생산조직에 대해 알아오기’, ‘변화하는 젠더의식을 반영한 광고 찾아오기’ 등 자신의 일상과 미디어 환경에서의 젠더 체계를 발견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2024년까지 운영된 경남대의 경우 주 2회 강의 중 1회는 교수자의 강의로 나머지 1회는 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보고 감상을 하며, 해당 영상에 대한 리포트 제출과 이에 대한 환류로 구성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제까지 낯설었던 섹슈얼리티를 인식하며 미디어를 해석하게 된다. 부산대 강의 역시 각 주차별 관련 사례 영상을 함께 시청/의견의 공유, 이론적 논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변화한 젠더 지형 및 20대 대학생들의 삶의 변화는 페미니즘적 시각의 교과, 강의를 운영하는 데 새로운 도전을 부여하는 듯하다.

10) 필자가 속한 학회의 다양한 모임에서 만난 젠더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연구자들은 모두 최근 기술이 주도하는 일련의 변화가 아직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현실 속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강의하기 위해 매년 ‘헉헉거릴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한다.

5. 젠더 지형의 변화와 운영의 어려움

1) 젠더 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수용

부산지역에서 미디어와 젠더 교과를 가장 먼저 개설하고 가장 오래 운영하였던 A는 2019년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까지 젠더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게 만드는 “eye opener”로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젠더 관련 교과를 오랫동안 담당한 연구자들 해당 과목은 ‘Before/After가 확실하다’고 입을 모았었다(김세은 외, 2019). 하지만 2000년대 젠더 지형이 변화하면서 강의실에서도 반페미니즘/페미니즘에 대한 오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의 남학생들은 가부장제 하에서 알게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있다라는 약간의 미안한 마음과 자기네들도 약간은 깨어있는 (사람) 물론 기존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는 태도도 있었지만, 많은 남학생들이 젠더적으로 깨야하고 구습을 타파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남학생들이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고 (중략) 요즘에는 페미니즘에 대해 오독하는 애들이 많아요. 페미니즘은 ‘여성 상위, 남자들을 짓밟는 거다’ 식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반지성주의적 안티페미니즘의 분위기가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공존했던 2019년, 부산 내 여러 대학에서 교양/전공에서 젠더를 강의했던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당시 젠더 강의의 어려움을 이렇게 평가했다.

(젠더 관련 담당 강사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갈수록 힘들다고. 예비역들이나 반 페미니스트들 남학생 눈치만 보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반대쪽 영페미니스트들 메갈 그런 여학생들도 눈치도 봐야 하니까 양쪽의 눈치를 보는 게 매우 힘들고 이쪽도 아닌 것이 저쪽도 아닌 것이 양쪽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B)

7년 동안 부산-경남 지역 대학 강의실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부산 경남 지역 안에서도 젠더/섹슈얼리티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강의실 내 분위기는 각기 다른 듯하다. B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젠더에 대해 무지하다고 언급했다. 젠더, 성의 표방한 강의 외의 일반 교과에서 젠더 주제를 다뤘는데, 학생들의 ‘젠더’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 하였다.

젠더=트랜스젠더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젠더는 코드를 꿈을 때의 젠더라고 생각 하더라구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문제적인 것, 부정적이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젠더는 아예 뭔지 모르는 거 같았어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또 다른 변화는 교수자들은 최근 들어 페미니즘 및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생물학적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학부의 미디어 문화 현상을 다루는 교과의 경험을 이야기한 D는 여학생들의 경우 젠더 문제에 무관심한 반면, 남학생들이 지금의 젠더 체계에서 소수자이고 피해를 받고 있음을 어필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고리는 ‘군대’라고 언급했다.

반페미니즘 정서나 해당 수업의 내용에 대한 남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C는 젠더/섹슈얼리

티 이슈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것인지를 그것도 약간의 진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남자 학우들이 그렇게 이 수업이(미디어와 섹슈얼리티) 끝나면 같이 몰려가서 술을 마시면서 제 욕을 했대요. (중략) 그렇게 모여서 난상토론을 하면서 (웃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이 제 이상이 뭐 이런 거 에세이 쓰는 남자 친구들도 많아요. ‘이제 나는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자 교수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남성 학우임을 위계를 더 세우고 싶어 하는 어쨌든 기싸움에 이기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중략) 이제 그렇게 (술자리에서) 난상 토론을 했다는데 저는 그 난상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성장이라고 봐요. 헤이터들이 생기는 건 결국 알게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사실은 그 주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진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젠더 불평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가부장제 가족 내의 여성의 차별에 대해 공명하지 못하거나, 예전에는 남학생들이 보인 해당 수업에 대한 불편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머느라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토론 시간에 여학생들이 “요즘 저런 집에 세상에 어디있어”,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낸다고 저런단 말이야”라고 대부분 말을 하더라고요.(B)

많은 수의 여학생들이 이제까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를 강의실에서 마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탐구해야겠지만, 1) 한국사회 가구 구조 및 가족 문화의 변화 2)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2010년대 이후 남성보다 높았던 상황 등 이전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해왔고, 이 점이 젠더 불평등이나 페미니즘 및 관련 수업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듯 하다.

B는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학생들이 겪었던 삶-부모의 관리,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등, 대학 졸업 이후의 불안 등이 젠더 이슈에 있어 이들의 의식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D의 경우, 지역 여학생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는 ‘지역’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학기 강의를 마무리했을 때, 삶에 대한 태도,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은 이들은 여전히 여학생들이라고 그녀는 언급했다. C의 경우, 전반적으로 젠더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어렵다고 언급했다.

2)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우리집 밥솥은 쿠쿠다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¹¹⁾=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

넷플릭스의 <남의 연애> 등 최근 들어 성소수자의 삶을 다룬 콘텐츠들이 OTT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섹슈얼리티 위계와 성소수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의들은 성소수자 수강생들에게 약간의 안식처가 된 듯한 느낌은 존재했다.

실제 D는 <미디어와 섹슈얼리티> 수업, 그리고 지금 현재 <미디어와 다양성> 수업을 하면서 자신에게 커밍아웃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자의 경우

11) 2017년 동아대 사회학과 <젠더 & 섹슈얼리티> 발표문 중

도 2017년 이후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과제 또는 쪽지로 전달하거나 성소수자를 위한 안전한 수업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해당 수업의 학생들이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감수성의 고양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D는 수도권에 비해 경남 지역에서 자기 주변에 동성애자 동료가 있다는 생각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섹슈얼리티 관련 이슈들은 새로운 지식이어서 신기해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여학생들 중에서는 TERF를 지향하거나, 해당 이슈에 대한 말걸기, 이론적 입장을 밝히길 원하는 사례도 존재했다(D, 본 연구자). 트랜스젠더 혐오가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교수자들의 해당 이슈에 대한 인식과 대응 마련이 더 필요한 듯하다.

3) 마주하는 인종 다양성

부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강의실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D는 자신이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다가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 또한 내가 어떤 단어를 쓰면서 이제 강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외모를 숨기고 싶어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요.(중략) 인종적인 측면에서 ‘차별 겪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 자신을 지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젠더 강의 그다음에 뭐 다양성의 강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얘기들이 과연 교수자들 사이에 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요.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이 교차하는 지금의 국면에서 무엇을 강의하고 무엇에 대해 경험을 공유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6. 누가 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

지금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교수자들은 젠더 교과를 운영하거나 수업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관련 이슈를 다룰 때 “소심”해지거나, 자꾸 “필터링”하고 자신의 발언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평가를 고민하게 된다고 언급했다(B, D). 또한 사명감에서 젠더/섹슈얼리티 수업, 다양성 수업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지금의 대학 사회에서 교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부산에서 오래 강의한 B의 경우, 젠더 교과를 ‘굳이 가르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는 B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수자들은 이러한 부담을 오히려 홀로 져야 되는 상황,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젠더/섹슈얼리티 또는 다양성 관련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몇명이라도 인식 전환을 보이는 (중략) 보석같은 친구들”(D)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전보다 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분야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C), 보다 성 인지적인

기획자를 양성하는 데에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 과목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2019년 이전에도, 2026년 지금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페미니즘 관점의 교과목들은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과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유지된 측면이 존재한다. 지금의 젠더 지형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할까?

인터뷰에 함께 했던 교수자들은 젠더/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 영역에서 조금씩 해당 주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즉 자신이 담당하는 다른 교과-예를들면 미디어 기술문화, 대중문화, 디지털 문화, 미디어 산업 등-에서 미디어 현상/산업 현장과 연결시켜 해당 논의를 최대한 풀어내는 방식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젠더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이론/연구가 풍성하게 쌓여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교수자의 연구 경험과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연구자에게 엄청난 양의 스테디를 요하지만, 한 사람의 교수자의 현실-실적 압박, 대학 충원율의 부담, 행정 과잉-을 고려할 때 필요량을 채워가기는 어렵다.

또한 이전에 비해 대학 그리고 전 사회에서 더 휘몰아치는 안티 페미니즘의 분위기는 1-2주라도 젠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차별적인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이 너무도 많은 서사들을 미리미리 풀어내야 하는 상황-미디어 연구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계급/인종으로 차근차근 쌓는 과정-을 1명의 교수자가 감당하기에 녹록한 상황은 아닌 듯 했다.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실질적인 연대의 틀이 관련 학회/지역/대학 단위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개인화된 대학 공간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지향하는 경험의 공유와 일상의 성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별 발표와 토론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과제/활동에 있어 개인의 활동과 집단의 활동을 연계시키는 교수법의 개발, 이전과 다르게 사유하기 위한 체험 중심의 커리큘럼 개발 등에 대한 치열한 모색이 요구된다.

페미니즘, 페미니즘 실천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길을 찾아왔다. 홀로가 아닌 함께의 방식으로. 지금의 대학의 위기, 젠더 관련 교육의 위기 역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4. 11.7). 대구에선 ‘사회학과’ 장례식이 치러진다, 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3171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김경희 (2017). <뉴스 안과 밖의 여성: 한국 저널리즘에서 나타나는 젠더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민정. (2020).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 내 ‘성(性)’ 강의 지형 탐색. <한국여성철학>, 33, 143-181.
- 김세은·장은미·최이숙·김형신·이소현·정사강 (2019).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여성가족부.
- 김지영, 추주희, 신지원. (2023). 지방대의 페미니즘 교육 현실에 관한 비판적 성찰 - C대학교의 젠더관련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2(3), 155-196. 10.14431/jaw.2023.12.62.3.155
- 김현미 (2021). <페미니스트 라이프스타일>. 반비
- 노중기(2024). 대학위기 시대 지역대학의 ‘교수’로살아가기-약간의 성찰. <대학: 담론과 쟁점>, 110~121.
- 장은미, 최이숙, 김세은. (2021). “우리는 더디지만 나아가고 있다” : ‘미투 운동(#MeToo)’ 이후 성평등 보도를 위한 한국 언론의 실천과 과제. <미디어, 젠더 & 문화>, 36(3), 187-236. 10.38196/mgc.2021.09.36.3.187
- 추주희. (2022). 지방대 학문후속세대의 여성학하기: 전남대 여성연구소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1(2), 205-246. 10.14431/jaw.2022.8.61.2.205
- 최이숙(2025). 디지털 공간 내 공감적 연결의 조건. 동아대 젠더어팩트 연구소 지음 <대안적 연결체의 테크놀로지>. 산지니
- 한국대학신문(2024. 10.1). 창간36주년/대학생 의식 조사①] 대학생 66.2%,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 평가’...36.8%는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없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9747&utm_source=chatgpt.com

「부산-경남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교육의 현황과 과제: 달라진 것 & 남아 있는 것」에 대한 토론문

주현희(부산대 교양교육원)

목 차

1. ‘달라진 것’과 ‘남아 있는 것’ 사이에서
 2. 토론 및 질의사항
 3. 나가는 말
-

1. ‘달라진 것’과 ‘남아 있는 것’ 사이에서

먼저, 2019년 조사에 이어 2026년까지 부산-경남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젠더 교육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신 최이숙 선생님의 연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사립대의 위기라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바탕으로 젠더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수자 인터뷰와 자기 기술지라는 방법론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젠더 교육 연구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지표가 아니라 강의 현장의 실상, 교수자의 고립감, 학생들의 반응 변화, 반페미니즘 정서와의 긴장 등을 면밀히 포착한 이 연구는, ‘달라진 것’과 ‘남아 있는 것’이라는 분석 구도를 통해 7년의 시간을 단순히 진보 또는 퇴보로 재단하지 않고 복합적인 지형 변화를 살폈습니다. 본 토론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궁금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2. 토론 및 질의사항

첫째, 전임교원 의존성의 구조적 문제와 젠더 교육의 전략적 재포지셔닝입니다.

젠더 관련 교과목의 존속 여부가 전임교원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대·동의대·인하대의 젠더 관련 교과목 폐지 사례에서 살펴보면 관련 연구를 수행하던 전임교원의 퇴임이 과목 폐지로 이어지는 현상, 경남대의 전공필수에서 선택 교과목으로의 변경, 다시 폐지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사회학과 젠더 교과목의 확장이 특정 교수 임용과 맞물렸던 양상 등에서 젠더 관련 교육 과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하신 부산대 여성연구소 팀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길을 찾아온’ 실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젠더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를 교육하고자 하는 인터뷰 참여 교수자(연구자)들은 본인이 담당하는 대중문화론·디지털 미디어 문화·미디어 산업 등 일반 전공 교과에서 젠더 이슈를 녹여내는 교육 방식으로 교육 실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러한 일반 전공 교과에서 젠더 이슈를 녹여내는 ‘분산된 교육 방식’이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시는지요. 둘째, 대학이 빅데이터·AI 등 실용 학문 위주로 인력을 충원하는 흐름 속에서, 젠더 교육을 ‘미디어 윤리’나 ‘성인지적 콘텐츠 기획 역량’ 같은 필수적인 직무 역량으로 재포지셔닝하는 전략이 젠더 교육적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반페미니즘’ 정서와 강의실 내 저항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방안입니다. 발표문의 5장은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Eye Opener’로서의 젠더 강의가 현재는 남학생들의 ‘피해자 의식’ 및 반지성주의적 안티페미니즘과 충돌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여학생들의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무관심 증가, ‘젠더=트랜스젠더’로 오인하는 개념적 공백은 단순히 ‘반페미니즘 정서’로 묶을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화적 현상입니다. 특히 C 교수자의 해석에서, 남학생들이 수업 후 술자리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사실을 ‘어느 정도의 진보’로 읽어내는 시각-‘헤이터들이 생기는 건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통찰-은, 페미니즘 교육의 효과를 태도의 즉시적 변화가 아닌 ‘생각의 씨앗 심기’로 재정의하는 관점은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싸움’ 형태의 강의실 분위기는 교수자에게 극심한 감정 노동과 자기 검열의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자들이 이러한 강의실 안팎의 저항과 반발을 마주할 때 이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론-어떤 텍스트나 사례를 활용하는지, 논쟁적 주제를 어떻게 프레임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아울러, ‘차별을 경험한 적 없다’는 여학생들의 응답이나 드라마 <며느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응을 단순한 젠더 의식의 후퇴가 아닌 세대적 조건의 변화로 해석해야 하는지, 교수자로서 이에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교수자의 안전과 제도적 보호망-‘실질적인 연대의 틀’의 모색입니다.

발표문의 6장 제목 ‘누가 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는 이 연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자들이 학과 내부의 분위기, 입학률 걱정, 강의 평가라는 다층적 압력 속에서 ‘소심’해지고 ‘필터링’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이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구조는 개인의 의지나 사명감으로는 젠더 교육이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보고서에서 제안한 오픈 플랫폼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협업 문화의 부재’와 ‘구조적 변동의 속도’를 이유로 제시하셨는데, 이는 2026년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해 학회 단위, 지역 단위, 대학 간 연대의 틀이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엇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예컨대 공동 강의안 개발, 오픈 플랫폼, 상호 수업 참관, 지역 연구회 운영 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교차성 이슈와 ‘실천적 리터러시’로서의 젠더 교육입니다.

발표문은 5장 후반부에서 성소수자 이슈와 다문화 가정 학생 증가라는 새로운 교실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D 교수가 인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언어를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진술한 인터뷰 내용,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외모를 숨기고 싶어한다는

관찰 등에서, 젠더·섹슈얼리티·인종·계급이 교차하는 오늘날의 강의실 상황은 교수자에게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교육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젠더 차별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거나 성소수자 이슈를 ‘신기한 지식’으로만 소비하는 경향은, 지역 대학 내 젠더 교육이 단순한 이론 전달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실천적 리터러시’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체험 중심 커리큘럼’이 지역의 인종·계급적 특수성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젠더·장애·인종·계급을 1학년 전공필수 수준에서 교차적으로 통합하는 커리큘럼이 실현 가능한지,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내용적 지원은 무엇인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섯째, 자기 기술지(autoethnography) 방법론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입니다.

본 연구가 교수자 인터뷰와 함께 연구자 자신의 강의 경험을 자기 기술지로 활용한 것은, 제도적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는 교실 내부의 미시적 상호작용, 즉 학생들의 감정적 반응, 교수자의 자기 검열, 교실 분위기의 변화 등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연구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자 자신이 교수자이자 분석 주체라는 이중 위치는 방법론적 성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교수자 인터뷰 데이터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분석적 거리를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기술지가 향후 지역 대학 젠더 교육 연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3. 나가는 말

“페미니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길을 찾아왔다. 홀로가 아닌 함께의 방식으로.” 이 발표문의 마지막 문장은 지역 대학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이 처한 위기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플레이’로 연명하고 있는 지역 젠더 교육의 고군분투, 사회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몇 명의 보석같은 학생들’ 덕분에 강의실로 돌아오는 교수자들의 이야기는, 제도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거시적 과제와 아울러 개별 교수자의 소진을 막을 미시적 연대의 절박한 필요성을 환기시킵니다. 지역 사회의 보수성, 학문후속세대의 위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오랜 시간 젠더 교육의 명맥을 이어온 연구자들의 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부산-경남 지역 미디어 교육의 지속가능한 성평등 토대를 마련하는 연대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 페미니즘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 현황과 수강생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2010-2026년)

김인선, 이수경, 최나현(부산대 여성연구소)

목 차

- I. 서론: 페미니즘 교육의 발신지로서 지역 대학과 그 지속가능성
 - II. 자료확보 및 분석방법
 - III. 부산대학교 성평등 실태조사: 2017년과 2026년 결과 비교를 중심으로
 - IV.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현황(2010-2026년)
 - V. 결론 및 시사점
-

I. 서론: 페미니즘 교육의 발신지로서 지역 대학과 그 지속가능성

현재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은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 리부트로 명명된 페미니즘의 대중화 이후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증가하는 갈증의 한편으로 반페미니즘과 백래시 확대 속에서 교과목의 폐지, 폐강, 교과목명의 변경 요구 등 입지가 축소되고 위태로워지는 비대칭적 상황에 처해 있다. 다시 말해 “대학 안에서 수행되어 온 제도화된 여성학 교양/교육의 위축과 페미니즘의 대중화라는 모순 현상”은 이른바 대학의 위기, 대학의 구조조정, 학문후속세대 문제와 맞물려 페미니즘 교육과 연구 가능성이라는 구조의 문제와 함께 대학의 페미니즘, 즉 ‘제도화된 페미니즘 교육’의 의미와 조건을 다시 묻게 한다.¹⁾

제도화된 페미니즘 교육의 조건을 성찰할 때, 지역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은 몇 가지 고유한 쟁점을 안고 있다. 첫째,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구조조정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여성학·젠더 관련 교과목이 우선적으로 축소되는 제도적 불안정성에 직면한다. 둘째,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셋째, 지역사회 특성과 맞물려 반페미니즘적 정서와 백래시가 더 강하게 표출되며, 이는 교과목 운영과 교수·학생 활동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넷째, 제도적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대학은 연구·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대학은 지역사회와 밀착된 교육·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제를 발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연구팀의 논의는 지역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의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되, 페미니즘 교육의 발신지로서 지역 대학의 가능성을 여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들 간의 연대와 공동

1) 김영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학의 도전과 새로운 실천」, 『현상과 인식』 46.1 (2022), 79쪽.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페미니즘 대학 교육의 복합적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팀은 지역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을 주제화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5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변화와 2010년 이후 제도적 경로와 운영 방식이라는 두 축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의 현황과 의미를 밝히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을 단순히 페미니즘 교육의 주변화된 공간이나 불모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페미니즘 교육과 연구의 발신지로서 그 의미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2026년 영남여성학포럼에서 부산은 물론 다른 지역의 대학들과 연대 및 논의를 통해 제도화된 페미니즘 교육의 조건과 의미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자료 확보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내 성평등 실태와 젠더·다양성 인식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지난 10여 년간 대학 내에서 이루어진 페미니즘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종류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2017년과 2026년에 실시된 부산대학교 성평등 실태조사 자료이며²⁾, 다른 하나는 2010년부터 2026년까지의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자료이다. 전자는 대학 구성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과 젠더·다양성 인식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후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식과 인식 변화에 대학이 교육과정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본 연구는 이 두 자료를 결합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성평등 및 젠더·다양성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화되고 제도화되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성평등 실태조사 자료의 확보와 분석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는 2017년 부산대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26년이라는 시차를 둔 두 차례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변화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성평등 정책 및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시계열적 비교 분석을 위해 2017년 시행된 선행 조사와 2026년 시행된 후속 조사의 결과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2017년 선행 조사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산대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140문항의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 영역은 성평등 의식, 성차별 태도, 교내 성평등 실태 및 문화 경험 등이었다. 이어 2026년 후속 조사는 2026년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여성연구소 개설 교양강좌 수강생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수강생 수 대비 응답률은 약 86%였다.

2)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는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목적은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 정도를 가늠하고 학교 차원에서 조사결과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성평등을 제고함으로써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이었다. 세부 내용은 이선순·임애정, 「부산대학교 대학생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개요’」, 『대학 성평등 실태 조사와 과학기술 속 젠더』, (2017.12.22.), 7~13쪽 참조.

조사는 총 31문항의 온라인(구글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주요 영역은 응답자 기본 정보, 수강 환경, 2017년 공통 문항, 개방형 질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과 2026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2017년 부산대 여성연구소 성평등 실태조사 설문내용 중 10개 문항을 추출하여 2026년 대학 성평등 실태조사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두 시점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특히 다음의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하였다. 첫째, 성역할 및 성적 특성에 관한 인식으로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및 특성 인식(1~5번 문항), 둘째, 성평등 실천 태도에 관한 인식으로서 남녀 간 위계, 군가산점, 여성 사회진출 정책 등에 대한 입장(6, 8, 9번 문항), 셋째, 성 정체성 태도로서 성적 지향 및 정체성에 대한 수용도(7번 문항), 넷째, 대학 내 문화 인식으로서 교내 성평등 문화에 대한 전반적 체감도(10번 문항)이다.

다만 2017년 조사와 2026년 조사는 조사 대상, 조사 방식, 문항 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두 결과를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자료로 간주하기보다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변화의 방향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2026년 조사가 여성연구소 개설 교양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부산대학교 전체 학생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대표한다기보다, 젠더 관련 교과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평등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두 조사 결과의 비교는 지난 10여 년 사이 대학생들의 성평등 의식과 젠더·다양성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현황 자료의 확보와 분석

한편 본 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최근 15년간 여성연구소 수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등 타 학과의 젠더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부산대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어떤 제도적 경로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2015년)와 미투운동(2018년) 등 페미니즘의 사회적 대중화가 대학 교육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대학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교과목 개설과 교육 운영 방식의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연구소, 사학과, 철학과, 사회학과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6년까지의 개설 교과목, 분반 수, 수강생 수를 확보한 뒤, 교과목명에 ‘여성’, ‘성’, ‘젠더’, ‘가족’ 등의 키워드가 명시된 과목을 선별하여 교과 개설 흐름을 확인하였다. 여성연구소를 제외한 세 학과는 부산대학교 내에서 비교적 장기간 젠더 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판단되는 학과로서, 이들 학과에서 젠더 교육과 관련된 특징 및 시기별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여성연구소가 젠더/다양성 교육의 안정적 공급 주체로 기능해 왔는지, 그리고 개별 학과들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젠더 교육을 축적·확장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과목 개설현황 자료의 분석에서는 과목 수, 분반 수, 수강생 수, 신규 교과의 등장 여부와 지속성 등을 주요 지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첫째, 여성연구소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교육의 공급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둘째, 사학과·철학과·사회학과가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젠더 관련 교육을 제도화해 왔는지, 셋째, 사회적 변화 이후 교과목 개설 양상과 운영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단순히 특

정 시점의 개설 과목 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과목의 지속성, 확장성, 전공화 여부, 수강 수요의 변화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부산대학교 페미니즘 교육의 제도적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자료 해석상의 한계

확보된 자료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설문조사 자료의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두 조사는 시기와 방식, 조사 대상이 상이하며, 특히 2026년 조사는 여성연구소 개설 교양강좌 수강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표본의 성격이 2017년 조사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조사 결과를 엄밀한 동일 모집단 비교로 해석하기보다,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성평등 의식과 젠더·다양성 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교과목 개설현황 자료의 경우, 교과목명과 분반 수 등 제도적 지표를 기준으로 젠더 교육의 현황을 식별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교과목명에 여성·젠더·다양성 관련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업 내용이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강의계획서 분석 없이 확인하기 어렵다³⁾. 반대로 외형상 젠더 수업으로 보이지 않는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교수자의 연구 관심이나 강의 설계에 따라 여성·소수자 관점의 지식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수업은 본 조사에서 구조적으로 누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대학 내 페미니즘 교육의 전체 규모나 내용적 깊이를 완전히 포착하기보다, 젠더 교육이 연구소 및 학과의 교과 체계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시화되고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와 교과목 개설현황 자료를 결합하여 부산대학교의 성평등 실태와 젠더/다양성 교육의 제도적 전개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자료가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문화 경험을 보여준다면, 교과목 개설현황 자료는 그러한 변화에 대학이 교육과정 차원에서 어떻게 응답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에서 성평등과 젠더·다양성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제도화되어 왔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I. 부산대학교 성평등 실태조사: 2017년과 2026년 결과 비교를 중심으로

1. 참여자 분석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19.7세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여성이 130명(6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 58명(30.7%), 답변하고 싶지 않음 1명(0.5%) 순으로 집계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65명(87.3%), 2학년이 21명(10.6%), 3학년이 3명(1.1%)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로는 인문대학이 45명(23.8%), 사회대학이 34명(18%), 사범대 12명(6.3%) 순이었다.

3) 김지영, 추주희, 신지원. 「지방대의 페미니즘 교육 현실에 관한 비판적 성찰 - C대학교의 젠더관련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2.3 (2023): 155-196. 김민정.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 내 ‘성(性)’ 강의 지형 탐색」, 『한국여성철학』 33 (2020): 143-181.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본 발표에서는 2017년과 2026년의 비교를 위해 추출된 총 10개의 공통문항에 대한 분석을 집중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과 발표 시간상의 제약상 변화의 폭이 두드러지거나 시사점이 큰 6개 핵심 문항의 결과만을 중점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는 지난 10년간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수치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결과가 단순히 현상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부산대학교 내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수립과 젠더·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실천적인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 '현재 남녀간 지위 격차는 여성과 남성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이 질문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지난 9년 사이 남성의 인식은 다소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한 반면, 여성들은 격차의 원인이 '능력'이 아닌 '구조'에 있다는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남성 다수가 격차가 능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약 4명 중 1명은 여전히 지위 격차를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여성들은 구조적 차별에 대해 강력하게 일관되게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었다. 2017년(56.5%)과 2026년(51.5%)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력한 부정 의견이 1위를 차지하였다. 2026년에는 '그렇지 않다(41.5%)'까지 합치면 무려 93%의 여성이 '능력 차이'를 확고하게 부정한다. 흥미로운 점은 2017년에는 남녀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집중되었으나, 2026년의 경우 성별에 따른 부정의 강도에서 큰 차이가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이 51.5%인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완만한 부정이 51.7%다. 이러한 성별 인식 차이는 향후 성평등 수업을 진행할 때 '기회의 공정'뿐만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 해소'라는 관점을 남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득할지를 과제로 남긴다.

〈표 I-1〉 2026년 성별 '남녀 간 지위 격차' 인식

구분	Q1. 현재 남녀 간 지위 격차는 여성과 남성의 능력/노력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9	30	16	3	58
	15.5%	51.7%	27.6%	5.2%	100.0%
여성	67	54	8	1	130
	51.5%	41.5%	6.2%	0.8%	100.0%
합계	76	84	24	4	188
	40.4%	44.7%	12.8%	2.1%	100.0%

〈표 I-2〉 2017년 성별 '남녀 간 지위 격차' 인식

구분	Q1-1 현재 남녀간 지위 격차는 여성과 남성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p<.001.)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44	105	63	11	223
	19.7%	47.1%	28.3%	4.9%	100.0%
여성	153	93	22	3	271
	56.5%	34.3%	8.1%	1.1%	100.0%
합계	197	198	85	14	494
	39.9%	40.1%	17.2%	2.8%	100.0%

(2) '성평등 정책들은 남성의 입장을 무시하고, 여성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설문 결과를 비교해보면 “성평등 정책이 여성의 입장만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성들의 거부감은 완화되고, 여성들의 정책 효능감은 더욱 견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남성 응답자 중 ‘여성만 대변한다(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는 당시 성평등 정책이 남성에게 역차별을 준다는 인식이 강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55.2%)을 넘기며, 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에게 유익하거나 최소한 편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2017년에도 이미 정책이 편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으나(82.3%), 2026년에는 그 수치가 95% 이상으로 치솟았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점은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성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여성들이 체감하는 성평등 현실이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보다 여전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표 2-1〉 2026년 성별 ‘성평등 정책’ 인식

구분	Q4. 성평등 정책들은 남성의 입장을 무시하고 여성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8	32	16	2	58
	13.8%	55.2%	27.6%	3.4%	100.0%
여성	55	69	6	0	130
	42.3%	53.1%	4.6%	0.0%	100.0%
합계	63	101	22	2	188
	33.5%	53.7%	11.7%	1.1%	100.0%

〈표 2-2〉 2017년 성별 ‘성평등 정책’ 인식

구분	Q1-10 성평등 정책들은 남성의 입장을 무시하고, 여성의 입장만을 대변한다(**p<.001.)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36	84	86	18	224
	16.1%	37.5%	38.4%	8.0%	100.0%
여성	119	104	44	4	271
	43.9%	38.4%	16.2%	1.5%	100.0%
합계	155	188	130	22	495
	31.3%	38.0%	26.3%	4.4%	100.0%

(3) '여성의 취업 및 사회적 진출기회 확대에 관한 정책들에 공감한다.'

설문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난 9년간 한국 대학 사회에서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보편적 가치’로 안착했는가와 동시에 성별 ‘온도 차’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2017년의 경우 남성 4명 중 1명(25.6%)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다. 이는 당시 이 이슈를 ‘나의 문제’가 아닌 ‘타자의 문제’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2026년에는 남성 약 80%가 정책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에 대한 공감대가 대학생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전히 20.7%의 남성이 반대 의견을 가진 점은 일부 거부감이 잔존함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 응답을 분석해

보면, 2026년에는 긍정 응답이 94.6%로 경이로운 수치를 보여준다. 특히 '매우 그렇다'(45.4%)는 강한 긍정 비율이 남성(10.3%)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는 대학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 확대가 단순한 정책 선호도가 아니라, 본인들의 인생의 궤적에서 핵심 권리로 내면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2026년 결과를 살펴볼 때 남성의 경우 '그렇다(69.0%)'는 수동적 긍정이 주를 이루는 반면, 여성은 '매우 그렇다(45.4%)'는 능동적 긍정이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정책 방향에는 합의하지만, 그 시급성과 절박함에 있어서는 남녀 대학생 간에 상당한 인식의 격차가 존재함을 드러낸다. 사회진출 확대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공적 정의'로 자리매김하였다. 2017년의 막연한 관심이 2026년의 구체적인 정책 지지로 바뀐 것은 '성평등이 곧 정의'라는 담론이 우세하게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남성의 20.7%가 여전히 정책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은, '여성 지원 정책'이 '남성 소외'로 치환되어 인식되는 대학 내 일부 여론을 반영하는 듯 하다. 이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논리를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정교화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다.

〈표 3-1〉 2026년 성별 '여성 정책 공감' 인식

구분	Q6. 여성의 취업 및 사회적 진출기회 확대 정책들에 공감한다.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0	12	40	6	58
	0.0%	20.7%	69.0%	10.3%	100.0%
여성	0	7	64	59	130
	0.0%	5.4%	49.2%	45.4%	100.0%
합계	0	19	104	65	188
	0.0%	10.1%	55.3%	34.6%	100.0%

〈표 3-2〉 2017년 성별 '여성 정책 공감' 인식

구분	Q3-9 여성의 취업 및 사회적 진출기회 확대에 관한 정책들에 공감한다 (***p<.001.)				합계
	전혀 안함	안하는 편임	하는 편임	매우 자주함	
남성	11	57	130	25	223
	4.9%	25.6%	58.3%	11.2%	100.0%
여성	1	34	147	89	271
	0.4%	12.5%	54.2%	32.8%	100.0%
합계	12	91	277	114	494
	2.4%	18.4%	56.1%	23.1%	100.0%

(4) '나와 다른 성별(여성/남성/성소수자)에게도 동질감이나 연대감을 느낀다.'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타 성별에 대해 연대감을 느낀다는 긍정 응답('그렇다' 이상)은 2017년 약 81.9%에서 2026년 85.9%(여성 88.4%, 남성 75.8%의 가중 평균치)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별에 따른 양상은 9년 사이 확연히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남녀의 태도 역전이다. 2017년에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할 때 타 성별에 대한 부정적 응답(18.5%)이 높았으나, 2026년에는 부정 응답이 11.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긍정 응답은 88.4%에 달한다. 이는 여성이 성소수자나 타 성별을 포용하는 '교차성'에 기반한 연대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을 시사한

다. 반면 남성의 경우 2017년에는 10명 중 8.5명이 연대감을 느낀다고 답할 정도로 개방적이었으나, 2026년에는 부정 응답(24.2%)이 약 2.1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심화된 성별 갈등이나 '역차별 담론' 등이 남성 집단 내에서 타 성별(특히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넓힌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두 설문 결과만을 비교할 때, 9년 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타 성별에 포용적이었으나, 현재는 여성의 연대 의식이 강한 반면 남성은 거부감을 더 크게 느끼는 구조로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2026년 성별 '동성/이성 간 동질감과 연대감' 인식

구분	Q7. 나와 다른 성별(여성/남성/성소수자)에게도 동질감이나 연대감을 느낀다.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3	11	34	10	58
	5.2%	19.0%	58.6%	17.2%	100.0%
여성	2	13	90	25	130
	1.5%	10.0%	69.2%	19.2%	100.0%
합계	5	24	124	35	188
	2.7%	12.8%	66.0%	18.6%	100.0%

〈표 4-2〉 2026년 성별 '동성/이성 간 동질감과 연대감' 인식

구분	Q2-5 나와 다른 성별(여성/남성/성소수자)에게도 동질감이나 연대감을 느낀다(성차 무의미)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6	26	145	46	223
	2.7%	11.7%	65.0%	20.6%	100.0%
여성	7	50	161	53	271
	2.6%	18.5%	59.4%	19.6%	100.0%
합계	13	76	306	99	494
	2.6%	15.4%	61.9%	20.0%	100.0%

(5) '동료 혹은 선후배의 옷차림, 외모에 관한 품평이나 성적인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2017년과 2026년의 '외모 품평 및 성적 농담 노출 경험' 데이터 결과는 조직 내 성적 대상화와 언어적 폭력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9년 사이 '성적 농담이나 품평'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의 총량적 감소다. 2017년에는 10명 중 6명이 이러한 경험을 할 정도로 일상적이었으나, 2026년에는 과반수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및 공동체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확산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발생 빈도는 줄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빈번하게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구조적 특징은 9년 전과 변함이 없다. 여성은 여전히 48.5%가 성적 품평이나 농담을 듣고 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여전히 조직 내에서 '동료'이기 이전에 '평가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뼈아픈 실태를 드러낸다. 여성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수치가 2017년(12.5%)과 2026년(12.3%) 거의 동일하다. 이는 전반적인 문화는 개선되고 있을 지라도, 고질적으로 성적 농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조직이나 집단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5-1〉 2026년 성별 '외모 등 성차별 피해 경험' 인식

구분	Q9. 동료 혹은 선후배의 옷차림, 외모에 관한 품평이나 성적인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18	17	17	6	58
	31.0%	29.3%	29.3%	10.3%	100.0%
여성	22	45	47	16	130
	16.9%	31.5%	36.2%	12.3%	100.0%
합계	40	62	64	22	188
	21.3%	33.0%	34.0%	11.7%	100.0%

〈표 5-2〉 2026년 성별 '외모 등 성차별 피해 경험' 인식

구분	Q3-4 동료 혹은 선후배의 옷차림, 외모에 관한 품평이나 성적인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p<.05.)				합계
	전혀 안함	안하는 편임	하는 편임	매우 자주함	
남성	40	63	108	12	223
	17.9%	28.3%	48.4%	5.4%	100.0%
여성	35	58	144	34	271
	12.9%	21.4%	53.1%	12.5%	100.0%
합계	75	121	252	46	494
	15.2%	24.5%	51.0%	9.3%	100.0%

(6) '우리학교 성평등교육 교과목 개설은 충분하다.'

설문결과를 비교하면, 가장 큰 변화는 성평등 교과목이 충분하다는 긍정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대학 구성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성평등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나, 2026년에는 10명 중 6.5명이 충분하다고 답하고 있다. 한편 2026년 데이터에서 남녀 간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긍정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이 무려 81.0%에 달해, 남성 대다수가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의 경우, 긍정 응답(50.0%)이 과반을 차지하며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동시에 28.5%가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의 부정 응답(19.0%)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로, 여성들이 교육의 질적 측면이나 전문성 면에서 여전히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남성(59.6%)과 여성(70.1%) 모두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당시 성별을 막론하고 대학 내 성평등 교육의 인프라 자체가 매우 열악했음을 보여준다. 남성의 부정 응답은 59.6%에서 19.0%로 약 40%p 가까이 감소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교육의 양적 확대가 남성들에게도 충분하다고 인식되고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 성평등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 정도면 됐다'는 소극적 태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목할 대목은 여성의 부정 응답률(28.5%)이 남성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이 성평등 문제를 자신의 삶과 밀접한 실존적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양 수준의 교육을 넘어 심화된 커리큘럼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6-1〉 2026년 성별 '성평등 교과목 개설' 인식

구분	Q10. 부산대학교에서 성평등 교육 교과목 개설은 충분하다.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0	11	39	8	58
	0.0%	19.0%	67.2%	13.8%	100.0%
여성	6	50	65	9	130
	4.6%	38.5%	50.0%	6.9%	100.0%
합계	6	61	104	17	188
	3.2%	32.4%	55.3%	9.0%	100.0%

〈표 6-2〉 2017년 성별 '성평등 교과목 개설' 인식

구분	Q6 우리 학교 성평등 교육 교과목 개설 충분성(***p<.001.)				합계 ¹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남성	6	70	133	14	223
	2.7%	31.4%	59.6%	6.3%	100.0%
여성	2	32	190	47	271
	0.7%	11.8%	70.1%	17.3%	100.0%
합계	8	102	323	61	494
	1.6%	20.6%	65.4%	12.3%	100.0%

IV.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현황(2010-2026년)

1) 여성연구소: 젠더/다양성 교육의 안정적 공급과 확장 가능성

부산대학교에서 젠더 및 다양성 교육은 여성연구소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일부 학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여성연구소는 교양 차원의 젠더 교과를 가장 지속적으로 개설해 온 주체로서, 부산대학교 내 페미니즘 교육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7〉 여성연구소 교과목 개설 목록(2010학년도 2학기~현재)

연도	개설과목	비고
2010-2학기~ 2017-1학기	성과사랑, 현대사회와젠더, 여성과직업, 여성의커리어개발, 공간과젠더	공간과젠더는 2011-2012학기에만 개설(SSK관련교과)
2017-2학기~ 2022-2학기	성과사랑, 현대사회와젠더, 여성과직업, 여성의커리어개발, 젠더섹슈얼리티그리고인권, 감정노동으로젠더읽기, 영화로보는(여)성의역사	3과목 신규 개설
2023-1학기 ~2025-2학기	성과사랑, 현대사회와젠더, 여성과직업, 여성의커리어개발, 젠더섹슈얼리티그리고인권, 영화로보는(여)성의역사, 예술작품으로보는(여)성의역사	여성연구소 전임교원 채용 1과목신규개설
2026-1학기	현대사회와젠더, 여성과직업, 영화로보는(여)성의역사, 평화학산책, 소수자의삶읽기	2과목신규개설

〈표 8〉 여성연구소 교과목 개설 현황(2010학년도 2학기~현재)

연도	과목수	분반수	총수강인원	평균수강인원	비고
2010	2.0	9.0	588.0	65.3	2학기만
2011	5.0	19.0	848.0	44.6	
2012	5.0	16.0	630.0	39.4	
2013	4.0	9.0	374.0	41.6	
2014	4.0	6.0	278.0	46.3	
2015	3.0	6.0	279.0	46.5	
2016	4.0	7.0	292.0	41.7	
2017	5.0	9.0	317.0	35.2	
2018	6.0	9.0	342.0	38.0	
2019	4.0	6.0	234.0	39.0	
2020	5.0	6.0	264.0	44.0	
2021	5.0	6.0	245.0	40.8	
2022	4.0	6.0	234.0	39.0	
2023	7.0	11.0	306.0	27.8	
2024	7.0	10.0	301.0	30.1	
2025	7.0	10.0	261.0	26.1	
2026	5.0	7.0	238.0	34.0	1학기만

여성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7년 1학기까지 「성과사랑」, 「현대사회와젠더」, 「여성과 직업」, 「여성의커리어개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시기에는 2011~2012년 사이 SSK 관련 교과인 「공간과젠더」가 일시적으로 개설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네 개의 핵심 과목이 부산대 내 젠더 교육의 기본 축을 형성하였다. 이는 동일 기간 다른 학과들에서 젠더 교과가 간헐적으로 개설되거나 단일 과목 중심으로 유지된 것과 비교할 때, 여성연구소가 가장 안정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음을 보여준다.

여성연구소는 사회적 변화와 학생 수요에 맞추어 과목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다. 2017년 2학기에는 「젠더섹슈얼리티그리고인권」 등 3개 신규 과목이 추가되었고, 2023년에는 1개 과목이 더해졌으며, 2026년에는 「평화학산책」, 「소수자의삶읽기」가 새롭게 개설되었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여성연구소의 교과 운영은 2010년대 초반의 ‘여성/젠더’ 중심 교과에서 출발해, 2017년 이후 인권·섹슈얼리티·역사적 재현의 문제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평화, 소수자, 다양성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넓혀 왔다. 이는 여성연구소가 단순한 여성학 과목 제공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부산대 내 다양성 교육의 점점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시사한다.

여성연구소의 또 다른 특징은 젠더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여성연구소는 철학과와 함께 부산대 밀양캠퍼스에도 젠더/다양성 교과를 개설하면서, 본교 중심으로 편중되기 쉬운 젠더 교육을 지역·캠퍼스 차원에서 확장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2017년 2학기부터 밀양캠퍼스 개설이 시도되었고, 2017년 「성과사랑」 1개 분반, 2019년 「성과사랑」 1개 분반, 2020년 「현대사회와젠더」 1개 분반(온라인), 2021년 「현대사회와젠더」 1개 분반(온라인), 2022년 「여성과직업」 1개 분반, 2023년 「현대사회와젠더」와 「성과사랑」 2개 분반, 2024년 「성과사랑」 1개 분반, 2025년 「성과사랑」 1개 분반, 2026년 「평화학산책」 1개 분반이 개설되었다. 분반 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 시도는 젠더 교육이 특정 단

과대나 특정 캠퍼스 학생들만의 교육 기회로 한정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밀양캠퍼스 사례는 젠더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수요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제도 운영의 유연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양교육원은 교양과목의 일반적 폐강 기준인 ‘25명 미만’ 원칙을 밀양캠퍼스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적은 수강 신청 인원에도 불구하고 수업 개설이 유지될 수 있었다. 예컨대 2017년 2학기 「여성의커리어개발」은 16명, 2019년 「여성의커리어개발」은 13명 신청으로 폐강되었으나, 이후 2023년 1학기 「현대사회와젠더」 15명, 2023년 2학기 「성과사랑」 10명, 2024년 2학기 「성과사랑」 10명, 2025년 2학기 「성과사랑」 8명 수준에서도 개설이 유지되었다. 이는 젠더 교육이 ‘시장 논리’나 단순 수강 인원 기준만으로는 존속되기 어렵고, 대학이 교육권 차원에서 별도의 운영 원칙을 가질 때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여성연구소는 부산대학교 젠더 교육의 공급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을 형성해 왔다. 장기간에 걸친 상시 개설,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신규 교과 개발, 밀양캠퍼스를 포함한 교육 접근성 확대는 여성연구소가 부산대 내 페미니즘 교육의 핵심적 기반이었음을 보여준다.

2) 학과별 젠더 교육의 상이한 제도화 경로

여성연구소가 안정적이고 확장적인 공급 주체였다면, 사학과·철학과·사회학과의 젠더 교육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이들 학과는 모두 장기간에 걸쳐 여성·성·젠더·가족 관련 과목을 운영해 왔지만, 교과 구성의 안정성, 신규 과목 개발의 적극성, 교수 인력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수강생 수 변화 양상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부산대학교의 젠더 교육은 하나의 단일한 경로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여성연구소를 중심축으로 하되 학과별 조건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분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① 사학과: 장기적 축적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운영

사학과는 비교 대상 학과들 가운데 여성연구소 다음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젠더 관련 교과를 운영해 온 사례에 해당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서양역사속의여성」, 「서양의성과풍속의역사」, 「한국전통사회와여성」이 운영되었고, 2013년 이후에는 「서양역사속의여성」을 대신해 「서양여성사」가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학과의 젠더 관련 주제를 일시적 특강이나 예외적 시도로 다룬 것이 아니라, 역사학 교육과정 안에서 비교적 장기간 축적해 왔음을 보여준다.

사학과 사례의 중요한 특징은 일부 젠더 교과가 교양에서 전공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는 젠더 교육이 단지 교양 차원의 보충적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학과 내부의 역사학 교육과정 속에서 일정한 학문적 위치를 확보해 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양여성사」의 개설은 젠더 관련 내용이 독립된 연구·교육 주제로 전공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성연구소처럼 신규 과목이 연속적으로 확장된 것은 아니지만, 사학과는 기존 교과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역사학적 관점에서 젠더 교육의 기반을 형성해 왔다.

수강생 수 추이에서는 사학과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통로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서양의성과풍속의역사」 분반 수 증가와 함께 전체 수강생

수가 크게 늘었고, 2018년에는 특히 전공선택 과목인 「서양여성사」의 수강생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3년에도 다시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운동 이후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역사학 기반 젠더 교과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사학과는 새로운 과목을 급격히 늘리는 방식보다는, 기존 교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학생들의 수요를 수용하는 역할을 해 왔다.

종합하면 사학과는 부산대학교 젠더 교육에서 중요한 축적의 경로를 보여준다. 여성연구소가 신규 교과 개발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 왔다면, 사학과는 역사학의 틀 안에서 젠더 관련 교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일부를 전공화함으로써, 젠더 교육이 학문 분과 내부에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학과는 부산대 젠더 교육의 안정적이고 학문분과적인 보완 경로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철학과: 지속적 교과 운영과 새로운 주제의 확장

철학과는 젠더 관련 교과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사례에 해당한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사랑의철학」은 3~4개 분반 수준으로 꾸준히 운영되었는데, 이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과 내에서 일정한 교육적 자리를 확보해 왔음을 보여준다. 물론 교과 구성은 오랫동안 단일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지속성 자체는 철학과에서 젠더 관련 교육이 일회적 시도가 아니라 정례적인 교과 운영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음을 의미한다.

해당 과목의 수강생 수는 2018년에 증가하고 2019년에 감소했다가, 2020년에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사회적으로 페미니즘 이슈가 가시화된 시기와 일정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철학과의 경우 이러한 수요 변화가 즉각적인 교과 다변화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존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꾸준히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서 여성철학 과목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학과 차원의 대응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 개설된 「비거니즘첫만남」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과목은 교양교육원의 학생 공모 강의를 통해 개설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관심이 실제 교과목 신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 나아가 이 과목은 한 학생이 이전에 「성과사랑의철학」을 수강한 뒤,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가 비거니즘 관련 강의를 맡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첫째, 젠더 교과가 학생들의 관심을 여성·성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동물권, 윤리, 비거니즘과 같은 인접 의제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⁴⁾. 둘째, 젠더 교과가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학문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다시 새로운 교육 수요를 조직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철학과의 젠더 교육이 양적으로는 제한된 구조를 가졌더라도, 기존 과목이 학생의 관심 심화와 신규 과목 제안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철학과의 사례는 단일 과목 중심의 운영이 반드시 정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주제와 교육과정 확장을 촉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유사한 사례로서 교양교육원 학생 공모를 통해 동물권과 관련된 신규 교과가 교양교육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기르기와 동물권」).

③ 사회학과: 전공과목 중심 교과목의 확장과 심화

사회학과는 비교 대상 가운데 젠더 교육의 확장과 심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학과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젠더사회학」과 「여성과노동」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예외적으로 2012년에는 두 과목이 함께, 2014년에는 「젠더사회학」과 「가족사회학」이 함께 운영되었다. 이 시기 사회학과와의 젠더 교과목은 지속적 체계라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성격이 강했지만, 동시에 사회학 내에서 젠더 관련 교육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회학과와 특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2017년에는 「젠더사회학」과 「여성과노동」이 함께 개설되었고, 2018년에는 「가족사회학」이 더해지면서 교과 구성이 확장되었다. 2019년에는 교양선택 과목인 「페미니즘의 이해」가 추가되었고, 2020년에는 「여성운동과여성정책」까지 개설되면서, 전공과 교양을 아우르는 가장 풍부한 젠더 교과 구성이 이루어졌다. 수강생 수도 2017년 38명에서 2018년 62명, 2019년 85명, 2020년 1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사회학과가 이 시기 부산대 내 젠더 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주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젠더사회학 전공 교수 임용과 맞물려 있다. 2019년 이후 사회학과는 전공선택과 교양선택을 포괄하는 여러 과목을 편성하며, 여성연구소 외에 젠더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장한 학과로 자리했다. 이는 학과 내 전문 연구 인력이 확보될 때 젠더 교육이 단순한 입문 수준을 넘어 보다 심화되고 다층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사회학과 사례는 젠더 교육의 확장 가능성이 교수자의 전문성과 학과 차원의 편성 의지와 결합할 때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21년 이후에는 개설 과목 수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은 사회학과 사례가 제도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잘 알려준다. 2021년에는 「젠더사회학」과 「여성과노동」이 운영되었고, 이후에도 「노동과젠더」, 「가족사회학」 등이 이어지면서 젠더 관련 교육의 흐름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 다만 2017~2020년과 같은 확장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교수자의 전문성에 기대는 수준을 넘어 학과 차원의 보다 안정적인 편성 기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발표문은 지역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의 가능성을 주제화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5년 페미니즘의 대중화 이후 부산대학 내 성평등 실태와 젠더/다양성 인식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대중화 속에서 페미니즘 교육의 제도적 경로와 운영 방식을 파악하여 지역 대학 페미니즘 교육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2017년과 2026년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의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 변화와 교육적 기대를 확인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는 여성의 인식 변화 속도와 사회적 여건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년여성들의 경우, 중등 교육과 대학 진학률에서 남성을 앞지르며 고도의 역량을 갖추었으나,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과 불균형한 고용률이라는 현실적 벽에 직면하고 있었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이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함을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자립하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각성 단계에 진입해 있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은 청년여성들이 마주한 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의제로 해석할 수 있는 비판적 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 대학 내 페미니즘 교육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에서의 성평등 인식 변화는 지역 사회의 젠더 지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지난 10년간의 인식 변화를 추적한 결과, 젠더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천 동력과 제도적 수용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보인다. 지역에서 페미니즘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청년여성들이 지역 내에서 단단히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생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성 대상 페미니즘 교육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내에서 고착화된 성불평등 경험과 왜곡된 젠더 의식은 졸업 후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장되어 고용 차별과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한국 사회 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페미니즘 교육은 여성 중심의 교육을 넘어, 남성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남성이 성평등을 권리 침해나 위협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역량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 과정의 설계가 필수적일 것이다⁶⁾.

넷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학 교육의 막중한 책무다. 결국 대학은 청년여성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구성원이자 동지로서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본 실태조사가 단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마련의 요구로 수렴될 때 비로소 대학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의 제도적 경로와 운영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과제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여성연구소 교과목을 체계적이고 맥락화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성연구소는 그동안 여성/젠더를 중심으로 역사, 인권·소수자, 평화 등으로 교과목의 외연을 확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목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문 - 심화 - 특화의 흐름 속에서 연계성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여성주의 교과목을 의식적으로 찾아 들으며 수강 경로를 스스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퀴어동아리 학생들 등), 여성연구소의 과제는 과목 수를 단순히 늘리는 데 있다기보다 기존 교과목을 체계적이고 맥락화된 학습 경로로 조직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변화하는 관심사와 사회적 의제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신규 과목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5)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고용률은 54.7%로 남성(70.9%)보다 16.2%포인트(p) 낮았다. 시간당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70.9% 수준이었다. 학력이 같아도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은 69.1%로 남성(83.6%)보다 14.5%p 낮았다. 고졸 이하는 여성 45.4%, 남성 60.4%로 격차(15.0%p)가 더 컸다. 김창환 등의 연구를 보면 한국 대졸 여성은 대졸 남성과 같은 대학에서 같은 전공을 하더라도 첫 직장에서 17.4%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연구 결과는 경력 단절이 문제가 아니라 경력이 단절되기 전부터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2025.12); 김창환, 오병돈,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2019), 167-204.

6) 안지영, 「교차성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하기」, 『여성학연구』 34.2 (2024): 7-42.

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비교적 포괄적인 젠더 입문 교과가 수요를 집중적으로 흡수했다면, 최근에는 소수자, 평화, 역사 등 세부 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교과목의 전문화와 심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여성연구소는 학생들의 세분화된 학습 수요를 반영한 심화 세미나형·주제 특화형 교과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교과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내 학문분과의 전문성과 결합한 교과목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화는 부산대학교의 캠퍼스별 특성과 결합할 때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산캠퍼스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연구소는 기존의 젠더 입문 교과를 토대로 한 심화 교과로서 「의학과 젠더」, 「건강과 젠더」(예시)와 같은 주제 특화형 과목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과목은 의료 현장에서의 성별화된 건강 경험, 의학 지식 생산의 젠더 편향, 돌봄노동과 보건의료 체계, 재생산권과 생명윤리, 간호 및 의료 전문직의 젠더 질서 등 양산캠퍼스 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와 긴밀히 맞닿는 쟁점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연구소의 교과를 단지 일반 교양 차원의 젠더 교육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문 영역과 실천 현장에 접속하는 응용·심화 교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여성의 주체화에서 비롯한 ‘생존 거점’으로서의 교육이라는 과제 설정과 젠더/다양성 교과목의 다양성을 체계적이고 맥락화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과제 설정은 자신의 삶 속에서 페미니즘 관련 문제들을 언어화하고 의제화하는 교육이라는 페미니즘 교육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또한 이는 자신의 위치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지역’을 젠더/다양성 교육의 방향성과 과제에 주요하게 기입하게 한다. 우리가 검토한바, 지역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은 단순히 주변성과 불모성의 영역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대중화 속에서 대응하고 응답하고 발신해온 경로로서 교육의 발신지이기도 했다. 대학 안팎의 젠더/다양성에 대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의 접점의 공간이자 이를 토대로 언어화와 의제화의 가능성의 장소인 것이다.

이는 제도화된 페미니즘 교육의 의미와 조건을 단순히 제도적 존속 여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이 사회적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새로운 의제를 발신하는 교육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묻는 것이다. 지역 대학의 페미니즘 교육은 백래시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단계적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및 다른 대학들과의 연대를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발신지로서 그 의미와 과제를 재정립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민정,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 내 ‘성(性)’ 강의 지형 탐색」, 『한국여성철학』 33 (2020): 143-181.
- 김영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학의 도전과 새로운 실천」, 『현상과 인식』 46.1, (2022): 77-94.
- 김지영·추주희·신지원, 「지방대의 페미니즘 교육 현실에 관한 비판적 성찰 - C대학교의 젠더관련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2.3 (2023): 155-196.
- 김창환·오병돈,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2019): 167-204.
-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2025.12)
- 안지영, 「교차성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하기」, 『여성학연구』 34.2 (2024): 7-42.
- 이선순·임애정, 「부산대학교 대학생 성평등 인식 및 실태 ‘조사 개요」, 『대학 성평등 실태 조사와 과학기술 속 젠더』 (2017.12.22.)

「지역 페미니즘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부산대학교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 현황과 수강생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2010-2026년)」에 대한 토론문

주현희(부산대 교양교육원)

목 차

1. 지역 대학 페미니즘 교육의 궤적과 가치 조명
 2. 토론 및 질의사항
 3. 제안 사항 : 방법론과 교과목 분류에 대한 보완적 검토
 4. 나가는 말
-

1. 지역 대학 페미니즘 교육의 궤적과 가치 조명

먼저,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백래시라는 복합적인 지형 속에서 지역 대학 페미니즘 교육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주신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팀(김인선, 이수경, 최나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2017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성평등 실태조사와 2010년부터 2026년까지의 젠더/다양성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특정 시점의 횡단적 분석에 머무른 데 반해, 본 연구는 페미니즘 리부트(2015)와 미투운동(2018) 등 사회적 변곡점과 교과목 개설 변화 양상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제도와 인식 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대학을 단순한 불모지가 아닌 ‘새로운 의제를 발신할 수 있는 페미니즘 교육의 발신지’로 재설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페미니즘 교육 연구로 그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한 점이 기존 연구와는 다른 차별점을 지닌다고 여겨집니다. 발표문을 흥미롭게 읽으며, 향후 지역 대학 페미니즘 교육의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과 두 가지 보완적 논점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2. 토론 및 질의사항

첫째, 백래시 지형 속 ‘남성 대상 페미니즘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에 대해 궁금합니다.

발표문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2017년에 비해 2026년에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 타 성별에 대한 부정 응답(연대감 거부)이 약 2.1배 급증하는 등 심리적 거리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이 심화 커리큘럼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과 달리, 남학생의 81.0%는 현재의 성평등 교과목 개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교육의 양적 확대에 대한 수용일 수도 있지만, 성평등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 정도면 됐다’는 소극적 태도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고용 차별이나 조직 내 갈등을 막기 위해 남성 대상 페미니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나 역차별 담론의 영향으로 연대를 거부하는 남학생들을 어떻게 강의실로 유인하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수용하게 할 수 있을지—별도 과목의 신설인지, 기존 교과목의 내용 재구성인지, 혹은 비교과 프로그램과의 연계인지—현장 교수자로서 겪는 구체적인 교육적 전략이나 한계점은 무엇인지 연구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페미니즘 교육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을 보면 부산대 내 젠더 교육의 존속은 제도 운영의 비공식적 유연성이나 개별 교수자의 존재 등 우연적인 요인에 기대어 있는 측면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 밀양캠퍼스의 경우 ‘25명 미만 폐강’이라는 일반 원칙을 비공식적으로 완화해 주었기 때문에 10명 안팎의 수강생으로도 교육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사회학과와 젠더 교과 확장(2017~2020년) 역시 젠더사회학 전공 교수의 임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2021년 이후 안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역으로 행정적 배려가 사라지거나 전임 교원이 부재할 경우 교육 생태계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 압력이 큰 지역 대학의 현실에서, 이러한 개인적·비공식적인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 본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교과 편성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학내 연대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핵심교양 체계 안에 젠더·다양성 영역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거나, 소규모 분반 유지를 위한 ‘교육 형평성 보호 강좌’ 지정 제도화 등의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요.

셋째, 학문분과 및 캠퍼스 특성과 결합한 ‘융합형 심화 교과’ 개발의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양산캠퍼스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학과 젠더」, 「건강과 젠더」와 같은 전공 연계형 특화 과목을 개발하자는 제안은 매우 실효성 높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보건의료 체계의 돌봄노동, 의학 지식의 젠더 편향, 재생산권과 생명윤리 등 자신의 진로와 직결된 현상을 논의할 수 있다면 교육적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이공계 및 보건의료 등 타 학문 영역과 접목된 응용 교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여성연구소가 해당 분과와 어떻게 긴밀하게 협업(예: 팀티칭, 공동 강의 개발 등)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연계 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융합형 교과가 교양교육원의 교과목 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교양선택인지 전공 연계 교과인지—에 대한 제도적 구상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3. 제안 사항 : 방법론과 교과목 분류에 대한 보완적 검토

본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 두 가지 보완적 논점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두 조사의 비교 가능성 문제입니다. 2026년 조사 응답자의 68.8%가 여성이고 87.3%가 1학년이라는 표본 특성은 젠더 교과 수강생의 분포를 반영한 것이겠으나, 이 점이 결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시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교과목명 키워드 기반 분류의 내용적 타당성 문제입니다. 교과목명만으로 교과명과 실제 수업 내용 사이의 괴리 문제 등 젠더 교육 현황을 파악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의계획서 및 강의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질적 보완 연구가 향후 협력 연구에서 검토될 수 있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나가는 말

지역 사회의 보수성, 학문후속세대의 위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오랜 시간 젠더 교육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외연을 확장해 온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의 분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체계화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과 ‘생존 거점’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비전은 다른 지역 대학들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가 영남권은 물론 전국의 지역 대학들 간의 굳건한 연대와 공동 논의를 촉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페미니즘과 극우: 지역 여성청년의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권수현(경상국립대 사회학과)

목 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와 기존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분석
 5. 대안의 모색
-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논의와 기존연구 검토

1) 반페미니즘과 극우: 남성성과 미소지니

극우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극우의 저변에 깔려 있는 중요한 개념이자 정동이자 실천 중 하나는 남성 우월성(male supremacy)이자 미소지니(misogyny)¹⁾이다. 카스 무데는 극우를 정의하는 열 가지 키워드 중 하나로 ‘성차별’을 제시했고(무데 2021) 제이슨 스탠리는 파시즘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정치기술 중 하나로 ‘성적 불안’을 제시했다(스탠리 2022).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된 특정 관념과 정서, 이데올로기가 극우의 밑바탕에 존재하며, 따라서 남성성과 미소지니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극우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논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강조한다(Lounela 2025; Pearson 2025; Phelan et al. 2025).

영국의 극우를 연구한 엘리자베스 피어슨(Elizabeth Pearson)은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의 이유가 다르고, 동일한 성별 집단 내 개개인의 이유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극우의 극단적 행동주의(extreme activism)가 강조하고 추구하는 것은 남성적인 지위(masculine status)이며 이를 위해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한다(Pearson 2023; Pearson 2024에서 재인용). 무엇보다 극우 백인 남성은 백인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1) 미소지니는 여성에 대한 증오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miogunía’에서 유래한 것으로 증오 또는 혐오를 의미하는 misos와 여성을 의미하는 gunē가 합성된 표현이다(김도경 2024, 209). 한국에서 미소지니를 ‘여성혐오’로 번역하면서 여러 논란과 비판이 일었는데(정희진 2017) 이를 대체하는 단어는 제시되지 못했고, 학자들 또한 관습적으로 여성혐오를 사용하고 있다. 미소지니가 혐오의 정동적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온갖 제도와 발언, 말화, 관습, 양식 외에도 신화화와 뮤즈화 등 환상의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등 점차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김효은 2019, 79-80)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이 연구에서도 미소지니로 사용한다.

명분을 내세워 비백인 남성에게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추동하며, 이를 통해 백인 여성과 비백인 남성에게 대한 백인 남성의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어슨은 유럽의 극우,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백인 남성의 권위 회복을 추구하는 ‘남성성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추동하는 기저에는 미소지니가 존재한다. 에밀리아 로우넬라(Emilia Lounela)는 극단주의 집단들이 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남성성이 위기에 처했고, 남성의 우월성(male supremacy)이 위협받고 있다는 서사를 통해 미소지니와 젠더폭력을 정당화하며, 이는 폭력적 극단주의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Lounela 2025). 관련 연구에 따르면, 남성 중심적 세계관은 극우와 이슬람 극단주의 모두에서 공통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세계관의 구조가 폭력적 행동과 미소지니를 키우고 남성들이 자신을 주변화된 위치에 놓는 집단적 급진화 과정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인다(Meiering et al. 2020). 또한 미소지니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의도,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려는 의지, 여성폭력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ottweiler et al. 2025), 다른 연구에서도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여성폭력에 대한 지지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지지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ohnston and True 2019). 미소지니는 여성폭력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진입하는 관문이자 촉진자이자 조기 경고신호라고 할 수 있다(Díaz and Valji 2019).

미소지니는 성별화된 남성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데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동하는 극우 극단주의(Far-Right Extremism) 조직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Phelan et al. 2025), 소셜미디어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성별화된 서사(narratives)가 남성들을 극우 극단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활동하게 하는 기재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서사는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²⁾, 과잉 남성성(hyper-masculinity)³⁾, 유해한 남성성(toxic masculinity)⁴⁾에 대한 강조를 통해 외집단(out-groups)을 향한 위협을 정당화하고, 내집단 구성원들 간의 이데올로기적 연결과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여성에 대한 미소지니적이고 적대적인 관점에 기초한 서사들이 극우 온라인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이것이 극우를 추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소지니가 온라인뿐 아니라 대면관계에서도 일상이 되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페미니즘과 극우: 페모내셔널리즘

일반적으로 극우 정치는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반페미니즘 기조

-
- 2)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을 재생산하기 위해 고안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권력관계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남성 우월성(male supremacy)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에 대한 통제, 여성의 순종, 반페미니즘과 같은 서술이 주로 이뤄진다.
 - 3) 과잉 남성성은 남성성과 남성적 고정관념의 과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남성은 신체적 강함과 공격성, 지배를 유지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남성적인 이상과 특징들을 강조하고 강화한다. 따라서 애국적 영웅과 전우애를 강조한다.
 - 4) 유해한 남성성은 남성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문화적·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 이 남성성 유형은 남성이 수행하는 공격성과 폭력이 젠더권력관계와 가부장제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라는 사고를 고취하며, 불관용적이고 경쟁적 행동을 부추긴다. 이를 위해 남성 지배(male dominance)와 이상적인 남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가 극우의 반젠더/반페미니스트 담론과 전략을 분석해 왔다 (Korolczuk 2020; Verloo and Paternotte 2018). 그러나 또 다른 일련의 학자들은 성소수자 권리와 페미니스트 주제가 민족주의나 인종적 배제를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호모내셔널리즘(homonationalism)(Puar 2007; Spierings 2021) 또는 페모내셔널리즘(femonationalism)이라고 명명했다(Farris 2017). 페모내셔널리즘은 인종적 배제와 민족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권리 수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Farris 2017) 자국 여성에 대한 위협을 ‘외국인’ 남성으로 간주하고, 자국 여성의 권리가 이슬람의 ‘침략’과 ‘글로벌 이슬람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무데 2021, 211-212) 반이슬람을 정당화하고 있다. 페모내셔널리즘은 새로운 현상이 아닌, 오래전부터 존재한 현상이고, 여성들 또한 적극적인 행위자였다. 과거 미국 백인 여성은 백인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프레임을 활용했고, 흑인차별을 포함한 비백인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백인 여성의 성폭력 위협을 흑인과 이주민 남성과 연결했던 역사가 이미 존재한다(Blee 1991).

현재 전 세계 극우정당들은 여성 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워 성차별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전략을 적극 채택하고 있고, 이는 극우정당의 성장과 세력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이 대표적이며, 이탈리아형제당(FdI: Fratelli d'Italia)의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 독일 독일을위한대안당(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공동원내대표인 알리체 바이텔(Alice Weidel) 연방의회 하원의원,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Takaichi Sanae) 총리, 2025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정치인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 등 많은 여성 지도자가 극우정당을 대표하는 얼굴로 등장하고 있다.

레즈비언인 알리체 바이텔 하원의원은 스리랑카 출신 스위스 국적의 영화 제작자와 동성결혼을 했고 두 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그는 “게이들도 이성애자만큼이나 독일에 중요한 존재”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괴상한 의미의) 퀴어가 아니라 20년 동안 알고 지낸 여성과 결혼했을 뿐”이라며(최아리 2024) (성소수자로서) 퀴어가 경험하는 현실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러면서 “부르카와 스카프를 착용한 소녀들과 칼잡이 남성들에게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다”며(최아리 2024) 난민과 이슬람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알리체 바이텔의 단정한 이미지와 패션, 경제학자라는 엘리트 경력 등이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세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최아리 2024).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 최초로 총리가 된 여성으로 여성건강과 같은 젠더의제에 관심을 가지는 듯하면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2차 세계대전 A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시하며, 황실의 남성 세습을 지지하며(이혜미 2025), 유사시 타국(대만) 침략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정치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차도 또한 동성결혼과 임신중지의 부분 허용을 지지하면서도 마두로 정권을 굴복시키기 위해 해외 군대의 자국 개입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을 지지하며, 노벨평화상 수상의 공을 트럼프에게 넘기는 등(이혜미 2025) 극우적 행태를 보이는 데 스스로없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해외 국가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여성 극우 정치인이 등장했고 확대될 가능성 또한 높다. 대표 주자는 나경원 의원이다. 2025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나경원 의원은 1호 청년 참모로 청년우파의 대표적 인물인 백

지원(여성)을 발탁했고, 군복무 가산점을 다시 도입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2억 원을 무조건 대출해 주고, 국제노동기구(ILO)를 탈퇴해 가사도우미를 값싸게 수입하고, 이민자를 늘리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재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손희정 2025) 등 반이민(자), 반인종, 반페미니즘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치인이 아닌 여성 시민 중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며 난민과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여성 또는 페미니스트가 있다. 정치적 신념 때문에 독일에 서 박해를 받는다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여성 극우 인플루언서 나오미 자임트는 소셜미디어에 “독일인은 사멸하고 있다. 피에 굶주린 이민자 짐승들 사이에서 누가 딸을 키우겠냐”라며(손효숙 2025), 딸로서 여성에 대한 보호를 내세워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정당화했다. 그는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진보적인 인사를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나치 경례 사진을 올리고, 독일대안당(AfD)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명 극우인사가 되었다(손효숙 2025).

페모내셔널리즘을 활용한 극우정치의 확산과 관련해 샬렌 칼데라로(Charlène Calderaro)는 극우운동에서 커지고 있는 여성의 역할, 특히 자신을 ‘정체성주의 페미니스트(identitarian feminists)’라고 부르면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에 주목했다. 오직 여성으로만 구성된 프랑스의 온라인 조직인 ‘Collectif Némésis’를 분석한 연구자는 이들이 교차성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 성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대적 성차별주의(modern sexism)를 수용하는 포스트페미니즘 프레임의 사용, 성희롱·성폭력이 외부인인 이민자에 의해 발생하며 따라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민족주의와 반이민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종화된 성차별주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전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Calderaro 2025). 덧붙여 이 조직의 온라인에서의 강력한 존재감과 낮은 진입장벽이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겪고 페미니스트운동으로 사회화되지 않은 젊은 여성들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페미니스트이자 극우 활동가로 정체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극우운동에 젊은 여성을 끌어들이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페모내셔널리즘은 페미니즘을 단순히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개념을 재정의해 페미니즘을 전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극우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4물결 또는 온라인 페미니즘을 주도해 온 한국의 2030 페미니스트 중 일부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렐팸)’ 또는 터프(TERF: Trans-Exclusive Radical Feminists)로 불린다. 이들은 생물학적 신체 또는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성별을 나누고, 태어날 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면 여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성이 아니며, 따라서 여성의 공간(대표적으로 화장실이나 여자대학)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의 공간에서 여성을 배제했던 과거 남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여성에게 씌워진 코르셋에서 벗어나겠다며 탈코르셋을 한 모습이 기존 남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여성해방이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을 다시 공고화하는 측면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페미니즘이 생물학적 신체에 기초한 성별(sex) 구분을 반대하고, 남성에게 의해 만들어지고 구축된 사회질서에 의해 여성/성과 남성/성이 만들어졌고, 성별만이 아닌 계급/계층, 인종/종족, 피부색, 종교, 학력, 장애, 나이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차별과 억압이 교차되고 중첩되기 때문에 성별을 넘어 다양한 약자들의 연대를 강조해 온 페미니즘의 역사와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여성을 고려할 때 래디컬 페미니스트 또는 터프로 불리는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스트 집단이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극우

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터뷰 중심의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해 진행되었다. 연구를 구상하는 초기에 청년여성 또한 수도권 청년여성으로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여성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한정했다. 지역 청년여성 또한 다양한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기에 특별한 조건 없이 모집하려 했고, 이를 위해 트위터를 통해 모집을 시도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트위터를 통한 모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연구자가 아는 청년여성 페미니스트와 여성단체 활동가를 통해 소개를 요청하는 눈덩이표집으로 변경해 모집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총 12명의 참여자를 모집했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참여자 12명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경남 지역 거주자가 7명, 대구 2명, 대전 1명, 전북(전주) 1명, 전남(여수) 1명이다. 경남 지역 페미니스트들과 활동가들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경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과대 표집되었다. 이들 중 2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다 대학 생활을 위해 지역으로 거주한 참여자이고, 2명은 지역에 거주했으나 최근에 서울로 이동한 참여자이다.

페미니스트만이 아니라 반페미니스트도 인터뷰하려 했으나 모집된 참여자 중 반페미니스트인 경우는 없었다. 페미니스트도 반페미니스트도 아닌 경우가 1명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페미니스트라고 밝혔다. 연령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대였다. 청년 시기에는 한두 살 차이도 크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초반(20-23), 중반(24-26), 후반(27-29)으로 구분할 경우, 2명이 20대 초반, 6명이 20대 중반, 3명이 20대 후반이었다. 30대 1명은 20대 후반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20대 초반이 상대적으로 적게 표집되었다. 노동 상태의 경우, 대학생이 2명, 대학원생이 2명,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3명, 노동자 5명이다.

〈표 1〉 인터뷰 참가자

참여자	연령대	거주지역	페미니스트 정체성	노동 상태
1	20대 중반	진주	페미니스트	대학생
2	20대 중반	대전	페미니스트	취업 준비
3	20대 초반	진주	페미니스트	노동자
4	20대 중반	여수	페미니스트	취업 준비
5	20대 후반	김해	페미니스트	대학원생
6	20대 중반	전주	페미니스트	노동자
7	20대 중반	진주	페미니스트	대학원생
8	20대 초반	진주	페미니스트	대학생
9	20대 후반	창원	페미니스트	노동자
10	20대 중반	김해	페미도 반페미도 아님	취업 준비
11	30대 초반	대구	페미니스트	노동자
12	20대 후반	대구	페미니스트	노동자

인터뷰는 약 1시간 전후(최대 2시간)로 진행되었고, 온라인 줌을 활용해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문(인터뷰의 배경과 목적, 인터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터뷰 시간, 인터뷰 녹음 동의, 인터뷰 내용 활동 범위, 인터뷰 참가비)과 질문지를 전달했다. 반구조화된 기본적인 질문들을 준비했고(<표 2> 참조),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 2〉 인터뷰 질문

구분	내용
1	21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와 이유, 청년 여성과 남성의 다른 표심에 대한 생각
2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의견, 윤여계인 세력에 대한 평가, 탄핵 집회 경험 등
3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청년남성의 극우화로 보는 것에 대한 의견
4	청년남성의 극우화에 대한 생각과 사례
5	청년여성의 극우화에 대한 생각과 사례
6	청년여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또는 래디컬/교차성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
7	청년의 극우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설문조사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과 태도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왜 그런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반대로 인터뷰만으로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가 평균적인지,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인터뷰 참여자들의 민주주의와 극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인터뷰 의향을 밝힌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 문항이 담긴 구글폼을 사전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총 16개로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불만족, 민주주의의 중요성, 극우주의(7개 문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4개 문항), 페미니스트 정체성, 정치관심, 이념성향을 물었다. 16개 문항은 최근에 발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책보고서인 『경기도 청년여성 정치의식과 행태조사』(백미연·권수현·이미준 2025)에서 사용된 문항이고,⁵⁾ 이 정책보고서에서 활용한 극우주의 측정은 한국리서치가 발간하는 『여론속여론』의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최영준·황지은 2025)에서 사용한 문항이다.⁶⁾ 이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들이 민주주의와 극우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가 대규모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와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문항의 의도와 응답자의 응답 의도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불일치한다면 왜 불일치하는지, 특히 극우와 관련해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응답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5) 이 설문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1,12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경기도 5개 권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수집했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95\%$ 이다. 청년층의 과소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응답자 비율을 45.3%(507명)로 높였다. 성별 비율은 여성 555명(49.6%), 남성 565명(50.4%)이다.

6)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총 1,000명이 응답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수집했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이다.

4. 분석

본격적인 인터뷰 내용분석에 앞서 인터뷰 참여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면, 우선, 인터뷰 참여자들의 정치 관심(0: 전혀 관심 없음~10: 매우 관심 있음)은 평균은 5.92점으로 중앙값보다 조금 더 높았다.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5점 이하에 표시한 사람이 5명, 나머지는 6점 이상에 표시했다. 가장 높은 점수는 9점으로 2명이었다. 경기도 설문조사의 전체 평균 6.69점과 20대 여성 평균 6.18점과 비교하면, 인터뷰 참여자들이 정치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념 성향(0: 매우 보수~10: 매우 진보)은 평균 7.25점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설문조사에서 이념 성향 전체 평균이 5.16점, 20대 여성 평균이 6.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보다 상당히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갖고 있다. 경기도 설문조사에서도 20대 여성의 이념 성향이 동년배 남성뿐 아니라 다른 성별과 연령 집단과 비교해 가장 진보적으로 나타났다(백미연·권수현·이미준 2025) 이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20대 여성 중에서도 더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1)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고 계십니까?”(0: 매우 불만족~10: 매우 만족, 11점 척도)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5.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설문조사의 전체 평균이 4.85점이고, 여성 평균이 4.90점, 남성 평균이 4.80점, 20대 여성 평균이 4.63점, 20대 남성 평균이 4.61점과 비교할 때(백미연·권수현·이미준 2025), 인터뷰 참여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다. 경기도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4.9%가 5점을 표시하고 3~7점 사이에 다수 분포한 정규분포 모습을 보였다면, 인터뷰 참여자들의 평균은 불만족한다에 가까운 응답과 만족한다에 가까운 응답이 합쳐져 나온 평균으로 분포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표시한 이유에 대해 참여자6은 “정치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낮게 평가할 수 있지만 불법 계엄 이후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봤을 때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참여자9 또한 “탄핵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 시민사회가 우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답했다. 단,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점수를 낮췄다고 말했다. 참여자10은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개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불만족이라고 표시한 이유와 관련해 참여자2는 “사람들이 탄핵 촛불시위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두 번째 탄핵은 ‘민주주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고 반복되어 일어났”고 “현재의 위기를 더 나은 체제를 상상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참여자4는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한계”가 계속 생각나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이라고 표시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절차적으로도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 다수결로 이뤄지는 정치행태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 매우 중요하다)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평균은 4.7점으로 민주주의의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도 설문조사의 전체 평균, 여성 평균, 20대 여성 평균이 모두 4.4점인데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⁷⁾ 단, 인터뷰 참여자 중에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2점(별로 중요하지 않다), 3점(보통이다)을 선택한 사람은 없었다.

민주주의 제도와 관련해 4개의 질문을 했고, 7점 척도(1: 전혀 동의 안함~7: 매우 동의함)로 측정했다. 첫째, ‘나라가 위기 상황이더라도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와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평균은 6.33점으로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모두가 5점 이상 점수에 응답했다.

둘째,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법원이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의 평균은 4.25점으로 중양값을 보였다. 이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은 이유와 관련해 참여자8은 “대통령과 의원이 시민을 언제나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선출되지 않은 법조인들이 선출된 집단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의 엘리트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셋째, ‘정부 정책에서 국민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의 평균은 4.92점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과 관련해 참여자4는 소수자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소수자가 옳고 약자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양값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의 평균은 6.08점으로 야당의 존재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이 문항에 대해 참여자 대부분이 ‘매우 동의’를 선택했는데 참여자7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까운 3점을 선택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참여자7은 현재 야당(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현재 야당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합리적 의사소통과 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바람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종합적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갖고 있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시위와 집회를 허용하는 것과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존재 필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한편, 인터뷰 참여자들의 응답은 사람들이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을 할 때 누군가는 원칙 차원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같은 응답이라도 맥락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극우 개념의 고찰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극우 문항(7개)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평균은 <표 3>과 같다.

7)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경기도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극우는 카스 무데가 정의한 급진우익(민주주의의 본질은 수용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법치나 권력분립, 소수권리 등의 개념에는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7점 척도로 물어봤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주의 성향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도덕적 규범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의 평균이 2.0점으로 가장 낮다. 반이민주의(외국인에게 시민권/복지혜택을 주는 조건은 지금보다 엄격해야 한다)와 반공주의(북한과의 협력보다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도 2.67과 2.75로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다. 반면, 반엘리트주의(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기득권층은 일반시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에 대해서는 평균 5.67점으로 상당한 공감을 표시했다.

이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 다수가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통적 가족 구조와 규범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중에서도 성별만이 아닌, 계급·계급,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교육 수준, 장애 여부, 지역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차별이 복합적·중층적으로 구성된다는 교차성 페미니즘을 지향하고 있기에 반이민주의에 대한 반대 또한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공주의는 남북분단이라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문항인데 페미니즘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반공주의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온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 극우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응답 평균

극우 개념	평균
1. (권위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3.83
2. (급진주의) 현재의 정치·사회 체제를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4.75
3. (반엘리트주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기득권층은 일반시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	5.67
4. (반이민주의) 외국인에게 시민권/복지혜택을 주는 조건은 지금보다 엄격해야 한다	2.67
5. (보수주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도덕적 규범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
6. (반공주의)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2.75
7. (능력주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없으므로, 각자의 능력 차이는 당연하다	4.50

권위주의(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급진주의(현재의 정치·사회 체제를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능력주의(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없으므로, 각자의 능력 차이는 당연하다)와 관련해서는 응답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아 어떤 의미와 맥락에서 해당 응답을 했는지를 물어봤다. 모든 인터뷰 참여자에게 물어보지는 않았고, 동의 수준이 높은 인터뷰 참여자들에게만 물어봤다.

권위주의 문항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이유에 대해 참여자6은 한국의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증가하는 혐오범죄에 대해 법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라는 의미는 물리적 폭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나 외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

였다고 강조했다. 참여자10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경청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로 보았고,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동의하는 쪽에 표시했다고 밝혔다.

급진주의 문항과 관련해 참여자5는 ‘급진적 수단’을 ‘비상계엄’으로 읽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참여자2는 “현재의 양당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급진적 개혁이나 목소리를 내는 어떤 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당제로 가기 위한 맥락”에서 동의했다고 답했다. 참여자1은 서부지법 폭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온건한’, ‘표백된’ 그런 ‘깨끗한’” 촛불집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급기시되는 급진적인 행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자6에게 급진적이라는 것은 “차별이나 혐오범죄를 방지하고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게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의미했다. 참여자7은 지역 유지나 가문을 배경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세습이 이뤄지는 것이 제한되거나 개인의 성장에서 상속과 같은 요소들이 최소화되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제도의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동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참여자10은 급진주의 문항을 보면서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윤어게인 세력을 떠올렸고,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급진적 수단이라는 것은 권력에 의한 제재보다는 시민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집회)을 의미했다. 한편, 참여자11은 급진적 수단에 대해 ‘사회주의 혁명’을 상상했고,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단, “급진적 수단이 굉장히 필요한데 현실성이 낮아서” 중간을 표시했다고 답했다. 참여자들의 답변은 ‘급진’ 또는 ‘급진적 수단’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이 다양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자11의 답변은 극좌 급진주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급진주의에 대한 동의를 극우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능력주의와 관련해서는 제시된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 응답자의 해석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1과 참여자10은 모든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능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표시한 것이었고,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그런 의미였다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했을 거라고 답했다. 참여자5와 참여자9 또한 개인이 모두 차이와 다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시에 그러한 차이를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동의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평등을 위해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차등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였다. 한편, 참여자11은 능력주의 문항이 “‘능력 차이가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헷갈려” 중간으로 표시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들은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극우 문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극우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권위주의, 급진주의, 능력주의는 문항의 의도와 응답자의 의도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문항 수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시된 문항이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인지 모른 상태에서 응답을 했고, 질문자와 응답자가 생각하는 극우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 중간에 인터뷰 참여자가 생각하는 극우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참여자3는 “우리가 민주화, 민주주의, 인권 등에 대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붙이는” 행태를 극우적 특

정이라고 지적했고, 참여자1은 배타성과 공격성을 극우의 특징으로 꼽았는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집단을 완전히 제거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폭력을 자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참여자5 또한 비슷하게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적을 일종의 처단이라고 하면 조금 과격한 표현이 되는데, 처단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수단도 서슴지 않는 것”을 극우로 규정했다. 참여자8과 참여자9, 참여자10, 참여자11 모두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이민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이들을 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극우로 규정했고, 이러한 혐오와 배제의 태도가 청년남성을 극우로 이끄는 주요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한편, 참여자7은 지금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위와 권력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극우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극우로 보았다.

분석적 차원에서 극단주의(extremism)는 이데올로기적, 방법적, 심리적 극단주의로 구분할 수 있고(Cassam 2022),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는 상대적 접근, 경험적 접근, 규범적 접근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신진욱 2025). 인터뷰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극우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구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극우를 정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좌(left)와 우(right)라는 정치적 스펙트럼 하에서 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을 극우로 생각했고, 극우는 반민주주의, 반페미니즘, 가부장제, 민족주의(와 함께 친미주의) 등을 지지하고, 성소수자·이주민·여성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공격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극우의 신념과 행태가 정치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학문적으로는 극단주의와 극우 개념을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람들 또한 다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년남성의 극우화: 오래된 미래

소셜미디어의 보수화는 트위터(현 X)만의 문제는 아니다(유용하 2026).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 다수는 오래전부터 보수적이고 극우적이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그 문화를 습득해 온 청(소)년들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현재 청년 세대에게 진보적인 성향을 기대하는 것이 희망적 사고인 것은 아닐까?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청년남성의 극우화가 오래전부터, 특히 온라인에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가 활성화되던 때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베의 극우적 문화가 보편화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일베가 처음 등장하던 때는 그래도 일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고, 일베에서 활동하는 것을 드러내놓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다수의 커뮤니티가 일베가 했던 혐오문화를 기본값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혐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비난을 받는 구조이자 문화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청년남성만이 아니라 청년여성과 청소년의 극우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새 10대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제 극우화에서 사용하는 약자를 향한 용어들, 동성애자라든

지 아니면 여성혐오 단어를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유머를 이용해 가지고 애들한테 밈이나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10대~20대일수록 그거에 더 잘 휩쓸리지 않나. 그 대상에서 여자도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나. 10대 청소년들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참여자12)

온라인 세계와 이 세계에 사는 청(소)년들이 오래전에 극우화됐다는 점에서 인터뷰 참여자 중 다수는 서부지법 폭동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기에 놀랍지 않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청년남성 극우가 가시화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참여자3은 극우적인 이야기들이 이미 일상에 만연하다며, 서부지법 폭동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말로만 하던 생각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참여자4 또한 “수면 아래에 잠복하던 극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자 청년남성이 “극우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판단했다. 참여자5는 “서부지법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테러가 꽤 있었”고, 계엄 이전 가을에는 “‘묻지마 칼부림’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가 있었고, 청년남성들의 페미니스트에 대한 공격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청년남성이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것이 놀랍지 않다고 했다. 참여자7은 자신이 극우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현재 “일종의 밈이 되”었다고 했다. 자신이 극우라는 것을 증명해 우파/극우 커뮤니티에서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늘어났고, 서부지법 폭동은 그러한 인정욕구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자11은 서부지법 폭동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사건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참여자6은 (판사를 죽일 수도 있었던)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고작 윤석열에 대한 충성”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참여자9는 온라인에서 여성이나 성소수자를 테러하는 것이 청소년의 놀이문화로 정착하게 된 데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고 방치한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다며, 청년남성의 극우화를 “20대 남성은 이상하고, 20대 여성은 깨어 있다”는 성별 대립구도로 보는 것을 비판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참여자2는 일베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청년들이 나와 같은 또래이고 앞으로도 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과 “어떻게 동료시민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참여자2는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나 마음이 광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고, 그들과 우리 모두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버블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고 밝혔다.

극우 남성청년을 동료시민으로 보려고 하는 의지와 극우를 보며 자신 또한 버블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참여자2의 자신에 대한 성찰은 극우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아닌 “공존에의 의지”를 강조한 정희진(2025)의 주장과 닮아 있다. 정희진(2025)은 극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극도의 인내와 긴장을 동반”하는, “극심한 갈등상황을 견디는 ... 공존에의 의지”를 강조했다.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극우와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와의 공존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가능성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참여자2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폭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그런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믿고 ‘중국이 뭘 조작해서 왔다’, ‘이 나라가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자기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 이런 문장은 사실 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나왔다’, ‘나라도 나왔다’, 이 마음하고 다르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그 가짜 뉴스라든지, 그런 뭘랄까요 탈

진실 시대에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는 수단 같은 것들, 접근 방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또 그 버블 안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버블을 어떻게 깰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래도 일단은 그런 이 폭동과 관련된 남성들이 없고, 가까운 지인 안에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겠지만, 그래서 나도 되게 내 버블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동료 시민으로서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2)

극우 담론의 기초에 미소지니와 반페미니즘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박권일(2014)은 일베의 자생적 담론으로 미소지니(여성혐오)를 지목했다. ‘된장녀’, ‘보슬아치’, ‘김치녀’ 등과 같이 여성을 비난하기 위한 말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주체가 일베였고, 이러한 일베는 혐오의 주체이면서 자신을 피해자화하는 극우 인종주의 담론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우월하고 도덕적인 사람(남성)이 열등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여성)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타자 혐오라는 점에서 ‘아줌마’나 ‘미스골드’와 같은 과거의 여성 비하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박권일 2014, 34-35). 인터뷰 참여자 중 다수도 청년남성의 극우화가 일베 때부터 시작됐다고 봤고, 미소지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본 정서이자 태도이며, 이를 극우적 현상으로 규정했다. 참여자2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포함해 극우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공계 전공자인 참여자5는 이공계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낯새라도 보이면 안 되”고, 청년남성의 극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한 사람이 “매장당”한다고 했다.

거의 모든 대학생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에타)이 반페미니즘 공간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2020년에 에브리타임 내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던 유니브페미는 에브리타임을 “페미 글은 썰면서 혐오 글은 봐주는” 공간으로 규정했다(유니브페미 2021). 에브리타임에서 공론장 형성이 가능할 거라 기대하고 노동, 성차별, 능력주의, 장애인 인권,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들과 관련된 글을 에브리타임에 올렸을 때 그 글들은 전광석화의 속도로 신고되고, 삭제되었고, 해당 글 작성자는 일정 기간 플랫폼 접속을 거부당했다(나임윤경 외 2023). 다른 목소리와 이견이 썰리고 삭제되고 퇴출당하는, 혐오와 반지성주의가 팽배한 곳이 에브리타임이다(나임윤경 외 2023).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참여자1에 따르면, 학교 수업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여학생이 있으면, 에브리타임에서 이 여학생을 저격하는 글이 쓰이고, 그 글에 수많은 조롱 댓글이 달리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이다.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집게손가락 사건을 통해 익히 알려지긴 했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참여자10은 어느 순간부터 여자인 것을 숨기고 게임을 한다고 했다. 채팅으로 “너 어디 사냐. 찾아가서 강간하고 싶다”는 글을 받고는 좋아하는 게임임에도 다시는 하지 않게 됐다. 성별에 관계 없이 청(소)년에게 온라인 공간은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해 있는 위치와 상황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언제든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혐오표현이 넘실대며 기본적인 공격 대상은 여성과 페미니스트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극우보다 반페미니스트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고, 반페미니스트가 반드시 극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소지니가 극우와 폭력적 극단주의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반페미니스트가 극우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극우 유튜버들은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것이 청(소)년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금전적 이득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청년·청소년 유튜브 채

널은 중·노년층 채널보다 페미니즘에 적대적인 내용의 콘텐츠 비율이 2.7배 높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이전에는 4배 이상 높았다(송주용·유대근 2025). 대표적인 반페미니즘 유튜브인 ‘신남성연대’는 3~4개 영상 중 한 개(28.6%)는 페미니즘을 공격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송주용·유대근 2025).⁸⁾ 설문조사에서도 2030 남성 집단에서 네 명 중 한 명은 페미니즘을 막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전혜원 2025).⁹⁾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스스로를 ‘안티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성별과 연령대를 교차해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만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미연 외 2025, 141-142). 20대 남성의 평균은 3.7점, 30대 남성은 3.37점, 20대 여성은 2.23점, 30대 여성은 2.73점이었다.¹⁰⁾

극우화에 있어 미소지니가 보편적 현상이라면, 반(反)이재명을 포함한 반(反)민주당은 극우화의 한국적 특징이다. 청년남성이 국민의힘의 김문수나 개혁신당의 이준석에게 지지를 표하는 이유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은 김문수나 이준석을 지지하고 좋아하기 때문이기보다는 반이재명 또는 반민주당 정서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단은 언론보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 21대 대선에서 이준석을 찍은 2030 남성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2030 남성들은 “이준석 후보가 좋다가보다 나머지 후보가 별로라서”, “후보 중 팬클럽 사람이 없고, 그나마 나은 게 이준석”이라고 답했다(우혜림·백민정·강한들 2025). 또 다른 기사에 등장한 익명의 정치평론가는 “2030 남성들은 진보, 보수나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믿을 수 없다는 정서가 보편적”이라고 밝혔다(이용규 2025). 보수·극우 유튜브를 분석한 기사에서도 청년·청소년 유튜브 채널이 중·노년층 채널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소환해 집중 공격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송주용·유대근 2025).

청년남성들이 왜 반민주당 성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친여성적이지도 성평등하지도 않은 민주당을 청년남성들이 싫어하는 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 상태였다.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청년남성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반페미니즘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성평등을 위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를 취했는지와 상관없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들은 민주당이 여성만을 위하는 정당이며, 따라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남성이 피해를 본다는 서사를 적극 유포해 왔고, 이러한 온라인 세계에 익숙한 청년남성들은 이를 보편적 사실이자 진실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남성이 보수화/극우화되지 않았다는 학계나 언론의 주장에 대해 참여자11은 이들이 극우 청년남성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만나보지 않았”다는 것은 극우 청

8) 이 채널 운영자인 배인규씨는 지난 3월 영상에서 “본인들의 따님이 페미니즘을 한다고 하면 콧방망이를 후려 갈겨라”, “페미니즘은 정신병” 등의 혐오적 표현을 내뱉었고, 2025년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화여대 집회 현장에 난입해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고 이를 고스란히 중계했다(송주용·유대근 2025).

9) ‘지나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규칙을 어기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장에 대해 응답자의 14%가 동의했고, 20대 남자는 32%(20대 여성은 5%), 30대 남자도 25%(30대 여성 9%)가 동의했다(전혜원 2025).

10)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는 문항(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을 성별과 연령대를 교차해 살펴본 결과(백미연 외 2025, 141-142),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평균이 남성 평균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중에서 성별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20대였는데 20대 남성 평균은 2점, 20대 여성 평균은 4.17점으로 성차가 가장 컸다.

년남성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거나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극우 청년남성도 “권위 있는 중년남성에게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이다. 참여자11은 다수의 청년남성이 “여성 상사는 만만하게 보는” 반면, “자신과 같은 직급이라도 나이 많은 남성에게는 굉장히 깍듯하게 구”는 “강약약강” 태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청년남성과 잘 지내는 중년남성이라도 청년남성의 극우적인 모습을 일상에서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중년남성만이 아니라 인터뷰 참여자들이 말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놀이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일상에서 누가 극우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극우 청년남성만이 아니라 다수의 청년 또는 다수의 사람이 타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극우 청년남성이 일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랄 것은 없다. 그리고 극우 청년남성이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은 극우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사상이나 신념, 발언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극우 청년남성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과의 일상 속 소통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4) 청년여성의 극우화: 내 파이를 위해 차별에 찬성합니다

청년여성의 극우화와 관련해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다. 20대 여성이 전체적으로 극우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20대 여성도 20대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청소년으로 가면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없다고 보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며 소수자를 배제하고 비난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는데 이들도 청년남성 극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3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배제의 맥락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하는 공격적이고 혐오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미세한 차별들이 우리 주변에 숨 쉬듯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포함해 20대 여성 내에 상당한 공감대 형성되어 있어 청년여성이 보수화/극우화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탄핵집회를 할 당시에 저는 20대 여성들이 이제 다양한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듯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향성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남성들이 극우화돼 가고 있고, 여성들은 ...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광장으로 나가고 목소리를 보태고 연대하는 그런 근육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극우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자3)

참여자3은 자신의 주변에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많지만 20대 여성이 전반적으로 래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참여자9도 비슷한 맥락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들이 다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봤다.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남태령대첩과 한강진 키세스와 같은 “변화를 만드는 중심에 교차 페미니스트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자3은 청년여성 내에 서로 다른 페미니즘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참여자9

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린 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이 (기존) 여성단체나 여성운동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터뷰 참여자 다수가 청(소)년 여성 또한 극우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남성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남성의 극우화가 미소지니와 반페미니즘에 기초해 있다면, 여성의 극우화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미소지니와 반페미니즘에 동조하며 극우가 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의 권리 또는 페미니즘을 내세워 극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로와 관련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상에서 자신이 극우라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그 경로 중 하나가 카톡 프로필이다. 참여자10이 자신 주변에 극우인 여성청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카톡 프로필 때문이었다. 대학 여자 선배의 카톡 프로필이 어느 날 반중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됐고, 계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여자 선배로부터 카톡을 차단당했다. 극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참여자10은 자신이 다녔던 학과의 여성 중에 반페미니스트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고, 참여자5도 자신의 “여성인 친구 중에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구 국가들의 사례에서 언급되었듯이 극우가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3월, 경상국립대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경상인들’이 주최한 계엄 찬성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를 주도했던 학생은 여성이었다(박보현 2025a). 현재 진주에는 ‘논개단(진주청년보수단체)’이라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 극우집회를 열거나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괴롭히고 있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도 여성이다(박보현 2025b).

다른 경로는 여성의 권리 또는 페미니즘을 내세워 극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이다. 참여자11은 극우 커뮤니티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남성에게는 그들의 맨박스(manbox), 즉 남성은 “공격적이고 거칠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를 활용해 접근한다면, 여성에게는 “여자로 사는 거 너무 힘들고 무서운 일이 많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배척해야지 안전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저 사람들”이 중국인을 겨냥하기도 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는 트랜스젠더인 경우도 있다고 했다.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페미니스트들을 터프(TERF: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s)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터프와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거나 래디컬 페미니스트 중에 터프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두 집단을 구분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위해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여성(MTF)을 배제하는 청년여성의 주장이 극우의 논리와 다르지 않고 (극우화된) 청년남성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페미니즘이 활성화된 지난 10년 동안 페미니스트나 여성을 외치는 여성 중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비난하고 배제하는 적대의 정치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여초 카페와 맘 카페를 중심으로 예멘 난민을 반대하기 위해 ‘여성 안전’ 수사를 적극적으로 차용되었는데(김선헌 2019, 15)¹¹⁾ 이는 백인 극우가 자국민에 의한 젠더폭력은 외면하면서 남성 이민자와 난민을

11) “열 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마흔이 넘은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고, 강간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

성폭력범으로 규정하고 자국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와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서사와 동일하다. 여성의 안전을 이야기하나 사실은 인종차별주의(racism)이다. 온라인에서 여성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고 남성 배우의 죽음을 조롱했던 행위들은 그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남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남성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던 미러링 전략은 오히려 혐오가 악순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위마드 구성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하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박근혜 석방 광고를 내건 사건(진태희 2019)이나 여성의당이 첫 여성 총리라는 이유로 일본 극우 총리의 당선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던 것(여성의당 2025)은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맥락을 생물학적 성으로 단순화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정당화하고 남성 중심의 질서를 승인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위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참여자들은 이들 여성이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같이 남성이 해왔던 성공을 여성도 성취하는 것이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인식과 태도가 극우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극우화된 청년 여성들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하고요. 그 특히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이것을 극우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주의로 좀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을 개인의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성공으로만 해결하려는 경우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그런 보수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성의 차별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공격, 나서서 공격하기도 하는 경우, 특히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반대로 아예 여성임에도 페미니즘이란 선을 긋고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면서 남초 커뮤니티, 극우 커뮤니티에서 하는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요. (참여자1)

참여자6은 터프 또는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트랜스젠더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 기혼 여성, 아이가 있는 여성, 외국인 여성도 차별·배제하며, 오히려 자신들과 비슷한 여성, 즉 “한국인이고, 여자고, 어느 정도 남성을 싫어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만 나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 이익을 보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만 “결속”한다는 점에서 극우라고 규정했다. 더욱이 이들 또한 극우와 다를 바 없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그들끼리 수익을 올리는 것에 열중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도 인권 운동도 아니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참여자6에게 트위터의 ‘블루레이디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극우의 극치”로 보였다.

트위터에 로고가 원래 파란색이었으니까 그걸 따서 블루레이디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여성이고, ‘우리끼리만 잘 되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벌자. 여기서 돈을 벌고 우리끼리 막 소식을 공유하고. 우리만 잘 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은 온건하게 해요. ... 그런데 그 안에는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뭔가 좀 허위 사실 같은 걸 얘기를 한다거나 일부러 자극적인 글을 올린다거나. ... 요즘 이제 극우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좀 아는 극우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남성을 사귀는 여성이에요. (네) 이것을 ‘남미세’라고 하거든요. (네)

했다는 식의 선정적인 기사들이 여초 카페와 맘 카페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그토록 위협하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남성들로부터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재강화되고 있다.”(김선혜 2019, 15-16).

‘남자에 미친 새끼’라고 해서. 그런데 본인을 블루레이더라고 자칭하는 게정이 ‘내가 본 남미새 썰 풀기’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말을 얹으면서 그 글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자극적인 토픽을 가져와서 결국엔 자신이 돈을 버는, 그런 행동이 정말로 ‘극우의 극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제 그것은 페미니즘적인 행동도 아닌 것 같고. (참여자6)

터프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형성해 왔던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이들의 생물학적 본질주의, 자기계발, 개인의 성공과 행복 강조와 같은 주장과 활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소통해야 하고,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열린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는 ‘래디컬을 다시 질문한다: 페미니즘 역사와 기억’이라는 포럼을 열고,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전의령 전북대 인류학과 교수는 페모내셔널리즘 개념을 가져와 한국 래디컬 페미니스트와의 유사성을 지적했다(백승찬 2021).¹²⁾ 여성의 권리를 내세워 억압받고 있는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페모내셔널리즘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페모내셔널리즘이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위해 여성의 권리를 수사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면, 한국의 터프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 민족(주의) 성향은 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남성을 적대적인 존재로 보며, 젠더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보기는 다소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보수나 극우 세력과 언제든 결합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극우화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 이현재(2025)는 이들을 ‘우파 페미니즘’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페미니즘과의 분리를 시도했는데 이러한 명명이 한국의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운동)에 있어 어떤 유의미성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듯하다.

5. 대안의 모색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오래전부터 극우화되었고, 극우화 현상은 청년남성만이 아니라 청년여성 그리고 청소년에게까지 급격하게 퍼지고 일상화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았는데 이들에게 대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에서 혐오와 극우의 문화가 만들어진 데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참여자9의 말을 생각해보면, 대안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대안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온라인 활용 교육이었다. 참여자5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소셜미디어를 사용했고 이것이 자신의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기 전에 인터넷 관련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7은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도움이 됐으며, 그런 교육이 교육감의 성향이나 교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참여자9는 현재의 교육을 “덜 경쟁적이고, 더 민주적으로” 바

12) “전의령 전북대 인류학과 교수는 유럽의 우익 포퓰리스트가 주장하는 ‘페모내셔널리즘’(페미니즘+내셔널리즘)과 한국 랜팸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페모내셔널리즘에서는 ‘위험한 무슬림 남성 vs 피해자이자 구출되어야 할 무슬림 여성’ ‘젠더평등한 서구적 가치 vs 여성억압적 무슬림 문화’의 구도 아래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인식을 되새김한다.”(백승찬 2021).

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자1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자11은 ‘포괄적 성 교육’ 도입을 언급했고, 참여자3과 참여자12는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가 ○○에 있었을 때 좀 진보적인 의제를 가진 교육감, 그런 분이 있어서. 매년 중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에 오피니언을 읽고 한 줄씩 소감문 작성하게 해서, 자기가 지금 전반적인 스테이트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 어쨌든 전반적으로 각 의견을 …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조금 의무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 이 집단이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여 오는 건 자기 자유지만, 그게 다 같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무슨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조금 조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7)

두 번째 대안은 현재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자10은 “돌이켜 보면 저도 그 나이 때 중고등 그 시절에 저는 충분히 ‘내가 자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는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면 아닌 것 같”다며 “어느 정도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참여자5 또한 자신이 소셜미디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독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있어서 SNS 사용 규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 SNS를 사용하는 당사자이고 이게 저에게 영향이 꽤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이 받아왔겠구나라는 것도 보이고 많이 받아오는 걸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입장에서. 반쯤은 중독의 관점에서 봐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술이랑 담배 비슷하게 SNS 또한 중독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참여자5)

세 번째 대안은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다. 참여자1과 참여자10은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자4는 “불법적이거나 범법적인 행동들”에 대해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악플과 사이버불링과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6 또한 교육보다는 법적 제재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혐오범죄가 처벌이 되면, 혐오발언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참여자8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보았고, 참여자9는 “미디어에서 차별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 같은 것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사실 법제화가 돼야지 인식이 바뀌는 바뀔 것 같아요. 인식을 먼저 바꾸고 정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사람들 인식은 이게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구요. (참여자8)

마지막으로 제시된 대안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편안하게 안전하게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참여자3은 “사람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가 많으면 좋겠고, (진주에서 열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과 같은 성인을 위한 교육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참여자2도 금기시되어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이나 공동체의 존재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참여했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토론수업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며, “그런 담론을 다룰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기회였는데, 그런 공간이 계속 더 많아지고,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공간이 좀 계속 마련되어야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 머물고, 온라인의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이유는 온라인 밖의 세상이 온라인 공간만큼 매력적이지 않고 더 절망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극우화된 또는 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극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고 방치하고 있는 윗세대와 기득권 세력이 문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경. 2024. “1920년대 미소지니와 미소지니스트의 소설적 재현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를 중심으로.” 『語文學』 165집, 207-233.
- 김효은. 2019. “1980년대 시에 나타난 미소지니(misogyny) 양상 연구 : 누이, 아내, 어머니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79집, 75-104.
- 김정희원. 2025. “청년 남성 극우화를 막기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오마이뉴스> 2025.06.09. <https://omn.kr/2e1zv> (검색일: 2026.02.27.).
- 나임윤경·허가영·최유정·은현·우무·온정·오디·안즈·신현·사바나히나·테어·김지윤·김세명·김민재. 2023. 『공정감각: ‘에브리타임’에서 썰리고 퇴출당하며 버려낸 청년들의 시대 감각』. 서울: 문예출판사.
- 무데, 카스. 권은하 역. 2021.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고양: 위즈덤하우스.
- 박권일. 2025. “팸코의 팬덤, 이준석의 중독.” <한겨레21> 1580호.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954.html (검색일: 2026.02.27.).
- 박권일. 2014. “공백을 들여다보는 어떤 방식: 넷우익이라는 ‘보편 증상’.” 박권일·김민하·김진호·남상욱·문순표·이택광. 2014.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서울: 자음과모음, 15-61.
- 박권일·김민하·김진호·남상욱·문순표·이택광. 2014.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서울: 자음과모음.
- 박보현. 2025a. ““부정선거, ‘좌시’하지 않겠다”... ‘극우 망언’ 판박이 ‘애국’ 정상인 집회.” <단디뉴스> 2025.03.12. <https://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97> (검색일: 2026.03.21.).
- 박보현. 2025b. “진주서 극우 성향 청년 집회 잇따라...자유대학 소속 학생 추정.” <단디뉴스> 2025.11.13. <https://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4> (검색일: 2026.03.21.).
- 박재령. 2025. “미디어의 ‘20대 남성 극우화’ 프레임, 일반화해도 괜찮을까.” <미디어오늘> 2025.07.08.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414> (검색일: 2026.02.25.).
- 백미연·권수현·이미준. 2025. 『경기도 청년여성 정치의식과 행태조사』.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백승찬. 2021. “페미니즘, 그들 안의 ‘팸팸’을 들추다.” <경향신문> 2021.08.31. <https://www.khan.co.kr/article/202108312202085> (검색일: 2026.03.22.).
- 서부원. 2025. “서부지법 폭동 ‘2030남성 우파’, 누가 키웠나.” <오마이뉴스> 2025.01.20. <https://omn.kr/2bx8q> (검색일: 2026.02.25.).
- 선명수. 2017. “대선, 운동장이 변했다...지역 대결에서 세대 대결로.” <경향신문> 2017.05.13. <https://www.khan.co.kr/article/201705131432041> (검색일: 2026.01.15.).
- 송주용·유대근. 2025. “페미니즘 때리면 구독자 오른다...10대 파고드는 극우 유튜버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215480001135> (검색일: 2026.02.28.).
- 우혜림·백민정·강한들. 2025. ““1·2번 싫어서” 이준석 뽑은 2030 남성의 변.” <경향신문> 2025.06.05., 16면.

- 유니브페미. 2021.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F5 프로젝트 시즌2 활동 보고서.” <https://blog.naver.com/univfemi/223012364533> (검색일: 2026.03.212).
- 유용하. 2026. “SNS 알고리즘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치 우향우’.” <서울신문> 2026.02.23. <https://www.seoul.co.kr/news/society/science-news/2026/02/23/20260223018002> (검색일: 2026.03.02.).
- 윤지원·이재덕. 2025. “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고 넘쳐…이미 주류가 됐다.” <경향신문> 2025.03.0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10900031> (검색일: 2026.03.02.).
- 이슈전파사. 2025. “어느 날, 내 아들이 ‘극우’가 됐다… 청소년 기자가 말해주는 ‘10대 극우’ 실태/핀란드선 ‘가짜 뉴스’ 통하지 않는다는데.” <https://www.hankookilbo.com/video/player/V20260227193811721000> 2026.02.27. (검색일: 2026.03.01.).
- 이용규. 2025. “이대남 기자가 본 ‘이대남 극우론’의 실체.” <주간조선> 2865호.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03> (검색일: 2026.02.27.).
- 이현재. 2025. “백래시와 페미니즘 우경화: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 청년 극우화의 사회적 기원’ 세미나. 경북대학교 소수자연구센터. 2025년 11월 7일, 사회과학대학 301호.
- 이혜미. 2025. “극우 여성 인사, 어떻게 봐야할까.” <한국일보> 2025.10.16. <https://www.hankookilbo.com/newsletter/issue/2319> (검색일: 2026.02.23.).
- 임지현·권혁범·김기중·박노자·김은실·권인숙·유명기·김근·김진호·전진삼·문부식. 2000. 『우리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 전현진. 2026. “‘서부지법 사태’ 1년, 책임자 처벌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경향신문> 2026.01.1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81457001> (검색일: 2026.02.25.).
- 정한울. 2025. “여론으로 본 한국의 극우화 진단: 극우 정체성을 중심으로.” 진보정책연구원. https://jinboparty.com/pages/?p=318&b=B_1_127&bn=14258&m=read (검색일: 2026.02.26.).
- 정희진. 2017. “미소지니=여성혐오?” <한겨레> 2017.08.04.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805605.html> (검색일: 2026.02.27.).
- 최아리. 2024. ““메르켈이 망쳤다” 레즈비언 극우 정치인에 빠져드는 독일.” <조선일보> 2024.01.0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1/09/524ORCOAGFDKZGOSP626WBKRU4/ (검색일: 2026.02.23.).
- 최영준·황지은. 2025.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 『여론속의 여론』 331-1호. <https://hrcopinon.co.kr/archives/32972> (검색일: 2026.02.21.).
- Blee, Katheleen M. 1991. “Women in the 1920s’ Ku Klux Klan Movement.” *Feminist Studies*, 17(1), 57-77.
- Cassam, Quassim. 2022. *Extremism: A Philosophical 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alderaro, Charlène. 2025. “Beyond Instrumentalization: Far-Right Women’s Appropriation of Feminism in France.” *Politics & Gender* 21(4), 931 - 959.
- Díaz, Pablo Castillo and Nahla Valji. 2019. “Symbiosis of Misogyny and Violent Extremism.”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2(2), 37-56.
- Farris, Sara R. 2017. *In the Name of Women’s Rights: The Rise of Femonationalism*.

-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Johnston, Melissa and Jacqui True. 2019. “Misogyny & Violent Extremism: Implications for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https://asiapacific.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9/10/misogyny-violent-extremism> (검색일: 2026.02.27.).
- Korolczuk, Elżbieta. 2020. “Counteracting Challenges to Gender Equality in the Era of Anti-Gender Campaigns: Competing Gender Knowledges and Affective Solidarity.”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7(4), 694 - 717.
- Lounela, Emilia. 2025. “A Rule, Not an Exception: Misogyny and Violent Extremism.”
<https://ec.europa.eu/newsroom/home/items/900963/en> (검색일: 2026.02.13.).
- Meiering, David, Aziz Dziri, and Naika Foroutan. 202. “Connecting Structures:Resistance, Heroic Masculinity and Anti-Feminism as Bridging Narratives within Group Radic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14(2): 1-19. doi:10.4119/ijcv-3805.
- Pearson, Elizabeth. 2024. “The Hypermasculine Far Right: How White Nationalists Tell Themselves They Are ‘Protecting’ Women and Children When They Riot.” *The Conversation*, 2024.08.07.
https://theconversation.com/the-hypermasculine-far-right-how-white-nationalists-tell-themselves-they-are-protecting-women-and-children-when-they-riot-236250?utm_medium=article_clipboard_share&utm_source=theconversation.com (검색일: 2026.02.25.).
- Phelan, Alexandra, Jessica White, Claudia Wallner, and James Paterson. 2025. “Gendered Narratives and Misogyny as Motivators Towards Violent Extremism: The Case of Far- Right Extremism in the UK and Australia.”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37(7), 961-978, DOI: 10.1080/09546553.2025.2498505
- Puar, Jasbir K. 2007. *Terrorist Assemblages: Homonationalism in Queer Tim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Rottweiler, Bettina, Caitlin Clemmow, and Paul Gill. 2025. “A Common Psychology of Male Violence? Assessing the Effects of Misogyny on Intentions to Engage in Violent Extremism, Interpersonal Violence and Support for Violence against Women.”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37, 287 - 312..
<https://doi.org/10.1080/09546553.2023.2292723>
- Spierings, Niels. 2021. “Homonationalism and Voting for the Populist Radical Right: Addressing Unanswered Questions by Zooming in on the Dutch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3(1), 171-182.
- Verloo, Mieke and David Paternotte. 2018. “The Feminist Project under Threat in Europe.” *Politics and Governance* 6(3), 1-5.

「반/페미니즘과 극우: 지역 청년 여성의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지현(동아대 젠더·어팩트 연구소)

귀중한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본 글은 반페미니즘과 극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자체도 흥미롭고 여러 생각할 지점을 남겨주었음은 물론, 동시대 반페미니즘 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가졌던 몇가지 고민과 질문을 선생님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먼저, 현재의 젠더 갈등은 단지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사이에 오가는 혐오나 갈등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불만이 투사되는 다층적 경로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본문 중 언급하셨듯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은 매우 다층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합의된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곧바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나 극우화의 징후로 분석하기보다, 지역, 계층, 성별이 교차하는 다양한 생존 불안이 페미니즘이라는 상징적 언어에 투사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남성 중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에는 비판적이지만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에는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보상이나 폭력 대응, 공정한 고용기회, 돌봄 분담 같은 구체적 정책에서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¹⁾

2024년 한국일보가 조사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슈에 대해서 남녀 구분 없이 압도적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²⁾

신자유주의 영향 아래 성장한 20대는 전 세대보다 공정이라는 코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계층 간 사다리가 끊긴 상황에서 느끼는 생존 불안은, 여성을 특혜받는 집단으로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층 청년 남성의 불안이 안티 페미니즘을 동원 기제로 삼고 있지만, 청년 다수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또한 청년 남성층의 정치적 지향 역시 고정된 보수에 머물지 않고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조사(25년 12월 한국 갤럽)를 살펴보면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정당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탄핵 집회에 많은 청년 남성이 참여한 사례는³⁾ 이들이 이

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3-0053-V1>

2) <https://v.daum.net/v/X1CULKti12?f=p>

3) “한남동 우익 집회는 전체 참가 인원이 4만 9000명이고, 12월 14일 탄핵 촉구 집회는 약 45만 명이 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청년 남성(4만 5000명)이 한남동 집회에 참가한 청년 남성의 5배나

념적 도식에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진보 여성 청년 vs 보수 청년 남성'식의 이분법적 도식이 아닌 그 이면의 다층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다음으로, 연구 방법론과 분석의 틀에 대해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 인터뷰 대상자가 페미니즘 지향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구성은 자칫 현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이대남'에 대한 인식이 특정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반페미니즘과 극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과정에서는 반페미니즘적 정동을 곧바로 극우적 정후로 연결짓는 경향이 보입니다.

반페미니즘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존재하며 그 중 아주 일부만이 극우적 가치와 중첩됨에도 발표문은 이 두 범주를 하나인 것처럼 겹쳐서 보는 것은 아닌지

서로 다른 층위의 정치적 입장들이 '극우'라는 이름 아래 과도하게 포섭될 경우, 결과적으로 정치적 의견의 스펙트럼을 축소시키고, 합리적 비판과 극단주의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념 사이의 논리적 간극을 매우기 위해, 연구 대상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페미니즘이 어떤 구체적인 경로를 거쳐야 극우로 전이된다고 보시는지 선생님의 보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제시된 '극우화의 정후'에 대해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논문 14쪽 등에서 특정 정책이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곧바로 극우적 정후로 연결 짓는 경향이 관찰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는 “극우가 민주당의 배신과 위선을 이용하여 청년층의 고통과 불만, 화멸을 파고 들어 새 피를 수혈하고자 한다”⁴⁾와 같은 분석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이 절망에 빠져 갈 곳 없는 청년들의 분노를 흡수하여 그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대해 가지는 실망은 공정성 이슈, 경제적 불안, 그리고 기성 정치권의 위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는 기존 진보 지지자들이 가졌던 '약자를 대변하는 정의로운 정당'이라는 이미지와는 상당한 인식의 간극을 보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온도 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들의 비판적 의견을 '극단주의'라는 프레임에 가두게 되면 그들이 품은 문제의식의 본질에 다가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회적 합의는 더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발표문 제목에서 '지역'이라는 명칭을 쓰고 계신데, '지역'이라는 개념이 본 논문에서 분석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품었던 이 몇가지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다면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됐다.” 성지현, 「서부지법 폭동 등 극우 부상은 이대남 문제인가?」, 2025

4) 성지현, 「서부지법 폭동 등 극우 부상은 이대남 문제인가?」, 2025

대구·경북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원 여성학과역의 역할: 계명대 사례를 중심으로1)

최윤서(계명대 여성학연구소)

목 차

1. 들어가며
2. 연구방법
3. 계명대학교 여성학 교육 및 지식생산 양상

1. 들어가며

2025년은 계명대학교 여성학과가 개설 35주년을 맞는 해이자 동시에 대학의 정책대학원 모집중지 결정²⁾으로 더 이상 신입생 입학이 불가한 시점이기도 하다. 현 상황은 단일 학과 존폐 문제를 넘어 지역에서 제도권 여성학이 축적해 온 역사와 경험을 되돌아보고, 한국 여성학 제도화 맥락에서 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계명대학교 여성학과는 1990년 3월 여성학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35년간 제도권 여성학을 유지해 온 사례이다. 여성학대학원 석사과정은 2010년 2월까지 운영되었고, 2010년 3월부터는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박사과정은 2007년 3월에 신설되었으나, 2011년 3월부터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여성학 전공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재편을 거치면서도 유지되어 온 계명대학교 여성학과역의 경험과 역사는 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의 지속성과 제도권 여성학의 변화 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한국 여성학계에서는 여성학의 제도화와 지식생산 구조 그리고 지역성을 둘러싼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여성학 관련 교양수업,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 및 학회 등 다층적으로 한국 여성학의 지식생산 구조와 변화를 평가해왔다(이기숙, 1990; 조주현, 1996, 2000; 김영선, 2010; 김혜경·남궁명희·이순미, 2009; 이나영, 2011; 허성우, 2013; 김혜경, 2024). 이러한 한국 여성학의 제도화 과정을 김영선(2010)은 1977년부터 1980년 후반, 1990년대, 그 이후로 구분한다. 그는 1990년대를 대학 중심으로 부설 여성연구소 설립, 여성문학, 여성사 및 여성철학 등 ‘여성’의 범주가 하위전공으로 포함되며, 학부 여성학 교양과목이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개설된 시기로 분석하였다. 이나영(2011)은 1970년~1980년대를 교양 여성학의

1) 본 발표문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초고입니다. 향후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므로 발표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자료를 인용하거나 배포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문은 이메일 (yschoi@kmu.ac.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입학공지, 2024.12.20., “정책대학원 신입생 모집 중지 안내”, <https://policy.kmu.ac.kr/policy/881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cG9saWN5JTJGNDExJTJGMtKyOTI0JTJGYXJ0Y2xWaWV3LmRvJTNG> (최종검색일 2026년 3월 23일).

성립과 확산기로 바라보며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태동기’로 명명한다. 1990년대를 학위과정으로서 여성학의 제도화로 ‘역동적 성장기’로 제시하며, 그리고 2000년대 이후를 ‘공고화와 쇠퇴의 이중화’시기로 구분한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과는 한국 여성학의 역동적 성장기에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제도화의 공고화와 쇠퇴기를 함께 마주하며 경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성을 반영한 연구와 관련하여, 공미혜(2014)는 부산지역 대학 부설연구소, 여성학과, 여성 관련 연구소 및 단체가 주관한 토론회 등의 연구물을 분석하여 여성주의 지식이 지역 사회와 맺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안경주(2015)는 전남대학교 차세대 여성정책전문가 과정을 중심으로 지역 여성운동 주체들이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여성주의 교육공간과 지식생산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였다. 김혜경(2024)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학의 제도화 과정을 기술하면서 비수도권 여성학의 제도적(학위과정, 강좌, 학회, 학술지 발간 활동 등)발전 과정을 돌아보게 한다. 다만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학 개설강좌, 학위논문, 세미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 거점의 형성과 역할을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학이 대학 내에서 제도화되어 운영되어 온 맥락에서 지역 단위에서 여성학을 사례를 살펴볼 때,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사례는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고 지역적 공백을 메우는 데 유의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학 관련 개설강좌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여성학 개설강좌가 대학, 여성연구소, 교수, 총여학생회 등 다양한 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고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김혜경·남궁명희·이순미, 2009; 이나영, 2011; 김영선, 2015; 김혜경, 2024). 그러나 이러한 맥락을 계명대학교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수집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는 초기 개설 과정에 대한 배경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개설의 배경을 설명하기보다는 대학 내 교양수업 운영과 여성학과 개설강좌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학 관련 개설강좌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핵심적인 통로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개설강좌의 운영 현황은 학문적으로 토론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김혜경·남궁명희·이순미, 2009).

이에 본 연구는 1990년 3월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 개설 이후 지역에서 유일하게 35년간 제도화된 여성학 현장을 이어온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사례를 통해 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 거점의 형성과 역할 그리고 제도화된 여성학의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5년까지의 여성학 개설강좌, 석사학위논문 초록, 여성학세미나 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계명대학교 여성학과가 생산하고 축적해 온 여성주의 지식의 양상을 추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맥락에서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시기를 1기(1990년~1999년), 2기(2000년~2009년), 3기(2010년~2025년)로 구분하고, 석사학위논문 초록과 여성학세미나 주제의 시기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여성주의 지식이 사회적 맥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재구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 거점의 형성과 대학원 여성학과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을 가지며, 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의 구조와 특성을 가시화하고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데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5년까지의 여성학 개설강좌, 석사학위논문 초록, 여성학세미나 주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계명대학교 여성학부가 생산하고 축적해 온 여성주의 지식의 양상을 추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학 개설강좌는 학부 교양수업과 대학원 전공수업으로 구분하였다. 각 개설강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25년까지 계명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강의시간표를 검색하였다. 학부 교양수업의 경우, <성과사회>와 <여성교육개론>이 대표적이다. <성과사회> 강좌가 1989년 일반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이후 2010년까지 매학기 꾸준히 개설된 과목³⁾이며, 1995년 이전의 전산자료는 확인이 불가하여 1995년 1학기부터 2010년 1학기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여성교육개론> 강좌는 2001년 1학기부터 2024년 2학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성과사회>와 <여성교육개론>의 개설학기, 분반, 담당교수, 수강인원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대학원 전공수업의 경우, 여성학대학원(1990년 1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과 정책대학원(2010년 1학기부터 2025년 2학기까지)을 포함한다. 다만 1997년 2학기 이전의 전산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1997년 2학기부터 2025년 2학기까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석사학위논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홈페이지의 dCollection에서 1992년부터 2025년까지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 정책대학원 여성학과를 포함한 총 105건의 석사학위논문을 검색하였다. 총 105건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동산도서관 학위논문보관실에서도 초록을 확인할 수 없는 5건을 제외한 100건의 초록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위수여 연도를 기준으로 1기(1990년~1999년) 45건, 2기(2000년~2009년) 33건, 3기(2010년~2025년) 22건으로 구분하고,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키워드 출현 빈도(TF, Term Frequency)와 TF-IDF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TF-IDF 가중치는 특정 문서 내에서 자주 등장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어떤 키워드들이 여성주의 지식 생산을 구성하고 있는지 시기별로 구별하여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여성학세미나는 최초 시작 시점인 199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6회 주제를 모두 수집하였다. 여성학세미나는 매년 매학기 대주제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소주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1기(1990년~1999년) 15개, 2기(2000년~2009년) 58개, 3기(2010년~2025년) 93개로 구분하여 키워드 출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계명대학교 여성학 교육 및 지식생산 양상

1) 여성학 개설강좌

(1) 학부 교양수업

<성과사회>는 1989년 계명대학교 일반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이후 2010년 1학기까지 매학기 꾸준히 개설되었으며 3학점으로 운영되었다. <성과사회> 강좌의 목표는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관계를 권력관계와 사회적 구조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적 성별관계를 모

3) 계명대학교 여성학과(2010), 『계명여성학 20년사(1990년-2010년)』, 참다자인 도서출판 참.

색하는 감수성과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있다. 시기와 분반에 따라 교수자 구성이 다를 수 있으나, 강의 내용은 '남녀문제를 보는 시각', '유교문화', '가부장제 가족과 자궁가족', '현대사회의 성, 사랑, 결혼', '조직내 남성과 여성', '법적 평등과 여성경험', '생물학적 성차와 사회적 성차', '대중문화와 여성의 몸', '언어에 나타난 성차별 구조', '여성주의문화', '페미니즘 운동', '여성과 기술', '사이버 성폭력', '폭력과 쾌락의 성' 등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1>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사회>는 1995년부터 2010년 1학기까지 약 153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약 14,578명이 수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학생들의 수요 증가와 1990년대 여성의 사회 진출과 남녀 성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계명대학교 여성학과, 2010). 다만 2000년대 이후 개설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성교육개론>는 2001년부터 개설되어 2024년까지 운영된 교양강좌이다. <여성교육개론> 강좌는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여성의 역사와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가족', '일터', '문화적, 정치적 공간' 등에서 설별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성주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적 비전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2>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개 강좌 운영과 2,004명이 수강하였다. <여성교육개론> 강좌개설 초기에는 분반으로 운영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설 규모가 축소되어 단일 강좌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수강대상이 평생교육사과정(2001년~2002년) 이수자 중심에서 수강희망자로 전환되면서 이수 인원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학점으로 운영되고 2009년부터 3학점으로 확대되었으나 전체 강좌 수와 수강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 학부 교양강좌 운영 현황: <성과사회> (1995년 1학기~2010년1학기)

강좌명	연도	학기	강좌(개)	수강인원(명)*	연도	학기	강좌(개)	수강인원(명)
성과사회	1995	1	8	1,090	2003	1	5	406
		2	8	556		2	4	281
	1996	1	10	1,029	2004	1	4	371
		2	9	780		2	3	263
	1997	1	7	506	2005	1	2	172
		2	6	581		2	3	228
	1998	1	10	1,486	2006	1	2	166
		2	5	411		2	3	184
	1999	1	7	1,047	2007	1	3	250
		2	5	346		2	3	246
	2000	1	4	421	2008	1	2	137
		2	5	422		2	4	345
	2001	1	5	536	2009	1	4	327
		2	5	416		2	3	237
	2002	1	5	506	2010	1	4	414
		2	5	418				
계							153	14,578

* 수강인원은 '수강정원'에서 '수강여석'을 제외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1995년 1학기부터 2000년 2학기까지는 수강여석이 모두 '0'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시기의 수강정원이 실제 수강인원을 의미할 수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과사회>의 운영 현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수강인원을 '수강정원'에서 '수강여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표 2〉 학부 교양강좌 운영 현황: 〈여성교육개론〉 (2001년 1학기~2024년 2학기)

강좌명	연도	학기	강좌(개)	수강인원(명)*	연도	학기	강좌(개)	수강인원(명)
여성 교육 개론	2001	1	4	144	2012	2	1	40
	2002	1	3	154		하계	1	0
	2003	1	2	78	2013	2	1	25
		2	1	88		하계	1	12
	2004	1	2	99	2014	2	1	18
		2	1	39		하계	1	11
	2005	1	2	72	2015	2	1	29
		2	1	80		하계	1	12
	2006	1	2	99	2016	2	1	29
		2	1	87		하계	1	0
	2007	1	2	81	2017	2	1	29
		2	1	86	2018	2	1	22
	2008	1	2	75		하계	1	0
		2	1	67	2019	2	1	28
	2009	2	1	109	2020	2	1	42
		하계	1	11	2021	2	1	73
	2010	2	1	94	2022	2	1	28
		하계	1	32	2023	2	1	64
	2011	2	1	0	2024	2	1	33
		하계	1	14			50	2,004
계								

* 수강인원은 ‘수강정원’에서 ‘수강여석’을 제외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학부교양수업으로 장기간 운영되었던 <성과사회>와 <여성교육개론>의 세부강의 내용은 교수자에 따라 운영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성과사회>는 한국사회의 성별관계와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중심으로 대안적 성별관계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성교육개론>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의 삶과 교육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육 실천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다. 또한 두 강좌의 교수자는 여성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여성학대학원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는 여성학 전공자들이 학위취득 이후, 학부 교양강의를 담당하면서 대학 내에서 여성주의 지식을 확산하고, 재생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강좌가 장기간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개설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학부 교양수업을 통한 여성주의 지식 확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2) 대학원 전공수업

계명대학교 여성학과는 1990년 3월 여성학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이후 2010년 2월까지 운영되었고, 2010년 3월부터는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여성학과 박사과정은 2007년 3월 일반대학원에 신설되었으나, 2011년 3월부터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여성학전공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원 전공수업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3>).

여성학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1997년 2학기부터 2010년 2학기까지 124개 강좌가 운영되었으며, 매학기 평균 4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개설강좌는 <여성학개론>, <여성학현장연구>, <여성학방법론>, <성,정보,매체>, <성연구>,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산업사회와 여성>, <여성과 국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초기 교과과정은 여성학 연구 영역에서 전통적인 분류인 가족, 노동, 성이라는 세 영역을 기준으로 과목이 편재되었다. 1차 교과과정 개편과정(1999

년~2007년)에서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변화와 여성학 연구의 주요 분야인 섹슈얼리티 영역을 보완하고, 기술과학과 여성, 환경, 정보 매체 등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2차 교과과정 개편과정(2008년~2010년)에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실용적인 요구에 따라 건강가정사 관련 과목이 포함되었다⁴⁾.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2011년 1학기부터 2025년 2학기까지 매학기 3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총 90개 강좌가 운영되었다. 기존의 여성학대학원 시기의 주요 강좌가 유지되었으며 <건강가정론>, <법여성학>, <여성과 리더십> 등의 강좌가 새롭게 개설되었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2007년 1학기부터 2010년 1학기까지 모든 강좌가 여성학과 소속으로 개설되어 매학기 평균 3개 강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사회학과 여성학전공으로 편입됨으로써 2011년 2학기부터는 사회학과 내 여성학전공으로 매학기 평균 2개 강좌가 운영되었다. 개설강좌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과 지구화:이론과과정>, <성별과 정치경제학>, <경합하는 섹슈얼리티>, <페미니즘과 국가정책>, <여성노동론>, <담론과 성>, <여성학특강1> 등의 강좌의 개설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과 여성학전공 체제로 재편되더라도 여성학 핵심 강좌는 축소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개설되면서 여성학 전공에 필수적인 학습과정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전공수업은 대체로 전임교원 2인이 담당하였으나 2022년 2학기부터 전임교원 1인이 강좌를 담당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3) 소결

종합하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는 계명대학교 여성학과와 제도화와 성장 그리고 공고화가 함께 진행된 시기였다. 학부 교양수업이 다수 개설되어 운영되었고, 여성학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007년에는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이는 계명대학교 여성학과가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맥락에서 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의 중요한 거점으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학부 교양수업이 여성주의 관점과 성별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당시 수강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석박사과정은 보다 더 전문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장이었다. 또한 1차, 2차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여성학 교육과정은 확장되었으며, 2010년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여성학전공 체제의 변화에서도 필수적인 전공 수업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속성은 대학 내 여성학, 제도화된 여성학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대학원 강좌 운영은 소수 교수진에게 집중되었으며, 계명대학교 여성학과와 지속성은 전임교원 수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대학원 전공수업 운영 현황(1990년~2025년)

대학원	학과	학위과정	개설강좌(빈도)*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	전공영어(16), 여성학개론(9), 여성학현장연구(9), 여성학방법론(7), 성/정보/매체(6), 성연구(6), 페미니즘과 기술과학(6), 산업사회와여성(6), 여성과 국가(5), 여성과 환경(5), 여성문제연구(4), 가족/성/일(4), 여성주의 문화이론(3), 한국여성의 정치문화(3), 여성과 몸(3), 결혼 및 가족제도(3), 일과 가족(2), 여성과 사회(2), 가족정책론(2), 여성학이론(2), 가부장제연구(2), 제3세계 여성연구(2), 여성교육학(2), 여성문학비평(2), 여성학연구방법론(2), 성과 사랑(1), 가족과 문화(1), 가족복지론(1), 가족과 젠더(1), 가사노동론(1), 한국여성사(1), 여성주의 이론(1), 여성사회경제사연구(1), 여성철학연구(1), 여성법률사상연구(1), 여성과 교육(1)

4) 계명대학교 여성학과(2010), 『계명여성학 20년사(1990년-2010년)』, 참다자인 도서출판 참.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	여성과 국가(6), 여성과 사회(6), 산업사회와 여성(6), 여성과 몸(6), 여성과 환경(6), 성과 사랑(6), 일과 가족(6), 성/정보/매체(6), 여성학연구방법론(5), 여성과 리더십(5), 제3세계 여성연구(5), 가사노동론(5), 여성과 교육(4), 페미니즘과 기술과 학(4), 가족정책론(4), 법여성학(3), 여성문제연구(3), 여성주의이론(1), 여성학현장연구(1), 가족복지론(1), 건강가정론(1), 가족과 문화(1)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박사과정	페미니즘이론(2), 성별화된 조직과 문화(2), 여성학방법론(1), 페미니스트 지식생산(1), 성별과 정치경제학(1), 한국여성노동연구(1), 사회통제와 여성범죄(1), 여성노동연구기법(1), 경험하는 섹슈얼리티(1), 여성과 인권(1), 가족/법/성별담론의 변화(1), 페미니즘과 국가정책(1), 여성노동론(1), 여성주의 상담연구(1), 여성작가문학(1), 설별화지구화:이론과과정(1), 여성학특강1(1), 담론과 성(1), 동/서양사상과 여성(1), 대중문화와 젠더질서(1), 한국가족과 여성(1)
	사회학과 (여성학전공)	박사과정	성별과지구화:이론과과정(6), 여성학현장연구(6), 성별/공간/권력(6), 성별과 정치경제학(5), 페미니즘과 정치이론(5), 성별/과학/이론(5), 경험하는 섹슈얼리티(4), 페미니즘과 국가정책(4), 여성노동론(3), 여성학의 쟁점들(2), 담론과 성(2), 여성학특강1(2), 페미니스트논문작성과출판(1),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주의(1), 여성주의 상담연구(1), 재생산의 정치(1), 지구화, 이주 그리고 젠더(1)

*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의 개설강좌는 1997년 2학기 이전의 데이터 확인이 불가하여 1997년 2학기부터 2010년 2학기까지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 석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은 총 105건에서 동산도서관 학위논문보관실에서도 초록을 확인할 수 없는 5건을 제외한 100건의 초록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위수여 연도를 기준으로 1기(1990년~1999년) 45건, 2기(2000년~2009년) 33건, 3기(2010년~2025년) 22건으로 구분하고,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키워드 출현 빈도(TF, Term Frequency)와 TF-IDF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TF-IDF 가중치는 특정 문서 내에서 자주 등장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어떤 키워드들이 여성주의 지식 생산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시기별로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은 1기(1990년~1999년), 2기(2000년~2009년), 3기(2010년~2025년) 석사학위논문 초록의 키워드 출현 빈도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것이다.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키워드가 크고 굵게 표현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성’, ‘사회’, ‘문제’, ‘과정’, ‘경험’은 세 시기 상위권에 등장하는 키워드로 확인된다.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시기별 출판된 논문의 수가 다르고, 키워드 출현 빈도가 절대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TF-IDF 가중치를 동시에 확인함으로써 최소한 시기별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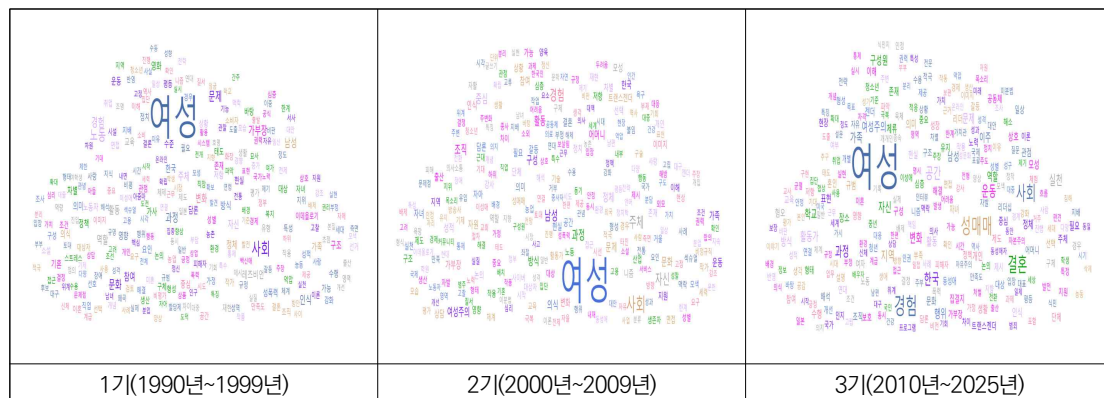
1기는 ‘노동’(128), ‘문화’(79), ‘남성’(75), ‘가부장’(74), ‘인식’(69), ‘역할’(63) 순으로 상위권으로 나타난다. TF-IDF 가중치를 적용하면, ‘노동’(4.3), ‘가족’(3.9), ‘정체성’(3.9), ‘주체’(3.9), ‘참여’(3.9), ‘가사’(3.8), ‘성별’(3.8)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위치한다. 여성학과 초기 석사학위논문은 여성주의 관점으로 우리 삶 속에서의 노동, 가족, 가부장제, 성별역할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노동’, ‘가족’, ‘가사’ 키워드가 상위권에 도출되었다는 점은 여성의 삶을 가족과 일, 노동의 이중 구조, 가부장제와 성역할 속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2기는 ‘경험’(99), ‘자신’(94), ‘주체’(94), ‘남성’(79), ‘정체성’(53), ‘문화’(52), ‘여성주의’(50) 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TF-IDF 가중치를 적용하면, ‘문화’(2.9), ‘정체성’(2.9), ‘주체’(2.9), ‘가

족’(2.8), ‘개인’(2.8), ‘담론’(2.8), ‘의식’(2.8), ‘저항’(2.8), ‘정치’(2.8), ‘차별’(2.8)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위치한다. 2기의 논문들은 1기 주제의 연속성에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개인의 경험과 정체성,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의 주체성, 문화와 자아, 여성주의 자기서사 등의 영역으로 논의 내용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항’, ‘정치’, ‘차별’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도출되면서 장애,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 문제와 여성주의 비판과 실천의 논의가 보다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기는 ‘성매매’(77), ‘결혼’(68), ‘공간’(48), ‘운동’(40), ‘지역’(34), ‘실천’(33)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위치한다. TF-IDF 가중치를 적용하면, ‘성매매’(2.4), ‘결혼’(2.3), ‘가족’(2), ‘공간’(2), ‘실천’(2), ‘운동’(2), ‘지역’(2), ‘규범’(1.9), ‘문화’(1.9), ‘생활’(1.9), ‘여성주의’(1.9) 등의 키워드가 도출된다. 3기에는 ‘성매매’ 키워드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2019년 대구지역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 및 철거 이슈 등이 학위논문주제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 ‘실천’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는 지역사회와 실천의 현장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3기의 학위논문 수는 감소하였으나, 논문 내용은 지역성을 포괄하며 동시에 당시의 사회적 문제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석사학위논문 워드 클라우드(1기~3기)



〈표 4〉 석사학위논문 TF와 TF-IDF(1기~3기)

순위	1기(1990년~1999년)				2기(2000년~2009년)				3기(2010년~2025년)			
	키워드	T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	키워드	TF-IDF
1	여성	643	노동	4.3	여성	580	문화	2.9	여성	243	성매매	2.4
2	사회	164	문화	4.1	사회	158	정체성	2.9	경험	89	결혼	2.3
3	노동	128	가족	3.9	경험	99	주체	2.9	성매매	77	가족	2
4	문제	87	정체성	3.9	자신	94	활동	2.9	사회	69	공간	2
5	경험	81	주체	3.9	주체	94	가족	2.8	결혼	68	변화	2
6	문화	79	참여	3.9	남성	79	개인	2.8	공간	46	실천	2
7	과정	78	활동	3.9	과정	73	담론	2.8	한국	43	운동	2
8	남성	75	가능	3.8	조직	68	변화	2.8	운동	40	지역	2
9	가부장	74	가사	3.8	중심	64	선택	2.8	과정	36	관점	1.9
10	인식	69	교육	3.8	활동	55	여성주의	2.8	지역	34	구성원	1.9
11	역할	63	기혼	3.8	문제	54	의식	2.8	실천	33	규범	1.9
12	변화	62	방식	3.8	정체성	53	저항	2.8	자신	32	문화	1.9
13	자신	59	성별	3.8	문화	52	정치	2.8	변화	31	생활	1.9

14	활동	58	수행	3.8	구성	51	차별	2.8	가족	28	여성주의	1.9
15	주체	55	영향	3.8	여성주의	50	필요	2.8	문제	27	역할	1.9
16	참여	54	존재	3.8	방식	49	한국	2.8	여성주의	27	의미	1.9
17	정체성	53	차별	3.8	의식	49	가능	2.7	학교	26	자신	1.9
18	구조	52	태도	3.8	어머니	44	갈등	2.7	행위	26	한국	1.9
19	레즈비언	52	한국	3.8	가부장	42	경우	2.7	활동가	26	가능	1.8
20	방식	49	결론	3.7	가족	41	구조	2.7	남성	25	가부장	1.8
21	가족	47	경제	3.7	인식	41	구체적	2.7	구성원	24	갈등	1.8
22	기혼	45	고찰	3.7	자원	40	극복	2.7	이주	23	개인	1.8
23	의미	45	관점	3.7	참여	39	기대	2.7	방식	21	교육	1.8
24	의식	44	구성	3.7	운동	38	논의	2.7	역할	21	구성	1.8
25	한국	43	구체적	3.7	성적	37	단체	2.7	의미	19	구체적	1.8
26	영화	42	규정	3.7	자녀	37	대상	2.7	활동	19	남성	1.8
27	정책	42	논의	3.7	한국	36	대상자	2.7	모성	18	노력	1.8
28	가사	41	문제	3.7	모성	34	맥락	2.7	정체성	18	논의	1.8
29	차별	41	바탕	3.7	변화	34	모성	2.7	상호	17	대상	1.8
30	노동자	40	상황	3.7	상담	33	부정	2.7	인식	17	문제	1.8

종합하면,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은 졸업의 필수 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전체 논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기별 논문 주제에 따른 관심사가 변화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여성’, ‘사회’, ‘문제’, ‘과정’, ‘경험’은 모든 시기 공동 키워드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 1기에서는 ‘노동’, ‘가족’, ‘정체성’, ‘주체’, ‘참여’, ‘가사’, ‘성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2기에서는 ‘문화’, ‘정체성’, ‘주체’, ‘담론’, ‘저항’, ‘정치’, ‘차별’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며, 여성문제에서 경험과 주체성의 문제로 조금 더 집중되어 논의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3기에서는 ‘성매매’, ‘결혼’, ‘가족’, ‘공간’, ‘실천’, ‘지역’, ‘규범’ 등의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도출되었다.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논문 주제가 지역성과 실천의 문제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 여성학세미나

여성학세미나는 1997년 9월 첫 세미나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총 16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성학세미나는 여성학 이론과 실천의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학기별로 대주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의 연구자와 활동가를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여성학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학술 모임이다. 현장상황을 분석하고 사회변화를 포착하는 강연을 통해 여성학 이론의 저변 확대와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대학생들에게는 수업의 연장선의 장을 제공하며, 교내외 연구자들에게 간학문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연구자와 지역의 연구자 등이 교류할 수 있는 교차로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였다⁵⁾. 본 연구에서는 각 소주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1기(1990년~1999년) 15개, 2기(2000년~2009년) 58개, 3기(2010년~2025년) 93개로 주제를 구분하여 키워드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2>는 1기(1990년~1999년), 2기(2000년~2009년), 3기(2010년~2025년) 여성학세미나 주제의 키워드 출현 빈도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것이다. 여성학세미나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기에 해당하는 분석대상이 매우 제한적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학 개설강좌 및 석사학위논문과 다른 차원에서 여성학세미나의 주제 구성을 살펴본다. ‘여성’

5) 계명대학교 여성학과(2010), 『계명여성학 20년사(1990년-2010년)』, 참다자인 도서출판 참.

은 세 시기 상위권에 등장하는 키워드로 확인되며, 시기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기에서는 ‘운동’(5), ‘복지’(5), ‘사회’(2), ‘세력’(2), ‘여성학’(2) 등이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1기의 경우, 여성학 이론의 기초, 여성운동, 여성복지 등과 같은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운동’, ‘복지’, ‘사회’, ‘세력’ 키워드는 당시 여성운동 그리고 사회 실천적 과제와 연결된 방식으로 주제를 설정했음을 시사한다.

2기에서는 ‘한국’(13), ‘사회’(9), ‘지역’(9), ‘시대’(7), ‘젠더’(7), ‘과제’(6), ‘페미니즘’(6) 등 순으로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노동시장, 젠더질서 등 보다 구체적이고 사회문제로 주제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시대’, ‘과제’ 키워드는 당시 여성학세미나가 한국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고, 여성학의 과제를 도출하며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3기에서는 ‘사회’(14), ‘노동’(12), ‘정치’(12), ‘젠더’(12), ‘지역’(8), ‘평등’(8), ‘공동체’(7), ‘교육’(6), ‘도시’(6), ‘문화’(6), ‘위기’(6), ‘커먼즈’(6)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특히 ‘공동체’, ‘도시’, ‘위기’, ‘커먼즈’는 앞선 두 시기와는 구별되는 키워드로 돌봄, 지역공동체, 도시와 생태, 위기와 대안적 삶에 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계명대학교 여성학과(2010), 『계명여성학 20년사(1990년-2010년)』, 참디자인 도서출판 참.
- 김혜경·남궁명희·이순미(2009), “지역에서의 여성학 교육의 현재와 역사적 특성: 전북지역 및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3호, 151-192쪽.
- 김영선(2010),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 인식』, 가을, 323-399쪽.
- _____(2015), “1970년대 한국여성학 학술운동의 계보와 장소성”, 『현상과 인식』, 봄·여름, 113-210쪽.
- 이기숙(1990), “본교 여성학 강의를 위한 기본자료의 수집과 분석”, 『여성연구논집』, 창간호, 45-82쪽.
- 이나영(2011), “한국‘여성학’의 위치성: 미완의 제도화와 기회구조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27권 4호, 37-81쪽.
- 조주현(1996), “대학여성학 과목분석을 통해 본 한국여성학의 현황과 전망”, 『사회과학논총』, 제15집, 259-274쪽.
- _____(2000), “한국여성학의 지식생산구조와 향방: 『한국여성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6권 2호, 145-170쪽.
- 허성우(2013), “한국 여성학‘위기담론’의 재구성: 여성활동가 대학원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4호, 41-74쪽.
-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입학공지, 2024.12.20., “정책대학원 신입생 모집 중지 안내”, <https://policy.kmu.ac.kr/policy/881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cG9saWN5JTJGNDExJTJGMTkyOTI0JTJGYXJ0Y2xWaWV3LmRvJTNG> (최종검색일 2026년 3월 23일).

「대구·경북지역 여성주의 지식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원 여성학과의 역할: 계명대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지현(동아대 젠더·어팩트 연구소)

계명대학교 여성학과는 지난 35년 동안 수도권 중심의 지식 생산 구조 속에서도 지역에서 여성주의 학문을 꾸준히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중요한 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여성학을 이끌고 지켜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떠올리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이 전통이 여기서 단절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이어지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또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계명대학교 여성학과의 걸어온 궤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문을 읽고 독자로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 발표문은 대학원 여성학과를 '지역 여성주의 지식 생산의 거점'으로 규정하고, 강의 커리큘럼과, 논문, 세미나 등 제도권 내부의 학문적 활동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 지식과 연구가 지역 여성운동이나 시민사회, 활동가 네트워크와는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발표문에는 석사 논문이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지역성이나 실천성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하고 있고, 세미나 또한 운동, 복지, 공동체, 도시, 위기, 커먼즈 등 사회적 실천과 연결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35년간 제도권 여성학을 유지해 온 사례라고 한다면 지역 대학과 지역 여성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접속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연구자-활동가-시민사회 간 지식 순환 구조가 존재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보충된다면 이러한 활동을 한 지식 거점이 지역에서 사라졌을 때, 어떤 공백이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2.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에서 '지역'은 핵심 키워드이지만 정작 지역이 어떤 분석 변수인지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지역 여성학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역에서 수행된 여성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텐데, 현재의 분석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듯 합니다.

이는 TF/IDF 중심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의 특성상 연구에서 무엇이 언급되었지는 드러나지만 '어떻게 논의되었는가'나 그 이면의 실천적 맥락까지는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와도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키워드 중심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연구 주제의 분포와 변화 양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키워드 분석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담론의 방향성 부분이나, 실천적 맥락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구라는 보수적 지역에서 여성학과 젠더 담론은 어떤 제약을 받거나 변형을 겪었는가. 혹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여성 문제가 노동 문제와 어떻게 결합하는가

등,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여성학이 어떤 쟁점을 더 집중적으로 생산했는지에 대한 보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역 여성학이라는 개념이 더욱 실질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덧붙여 계명대 정책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중지 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실용적·직업 지향적 학문을 우선하는 최근 대학 구조의 변화로 보아야 할지, 혹은 학령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이라는 거시적 문제와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대구)지역에서 여성학 자체의 제도적 위상 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할지에 따라 논의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4. 지역에서의 대학원 여성학과는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성평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연성 인프라 (soft infrastructure)로 규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역 페미니스트들이 지식을 배우고 ‘공통의 언어’를 습득하는 토대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 여성주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프라는 고장나거나 와해의 순간에 비로소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속성처럼, 현재 직면한 학과 폐지의 위기는 그동안 공기처럼 존재했던 여성주의 인프라의 역할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여성학과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학과 폐지가 가져올지 역적 공백을 조금 더 강조해도 좋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흥미로운 발표문을 통해 본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이 함께 고민해 가야 할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